

## 2012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

| 수험번호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출신고교(반 또는 졸업년도) |  |                |  |
|------|----------|------|-------------------|--------|--|-----------------|--|----------------|--|
|      |          |      |                   |        |  |                 |  |                |  |
| 구분   | 언어<br>영역 | 수리영역 | 외국어<br>(영어)<br>영역 |        |  |                 |  | 제2외국어<br>/한문영역 |  |
|      |          | ( )  |                   |        |  |                 |  |                |  |
| 표준점수 |          |      |                   |        |  |                 |  |                |  |
| 백분위  |          |      |                   |        |  |                 |  |                |  |
| 등급   |          |      |                   |        |  |                 |  |                |  |

2011. 12.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 성적표에 목표 성적을 적고 매일 본다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 -prologue

언어 영역에서 평가원이 출제하는 6.9 월 모의 평가와 수능은 공식적인 정답은 존재하지만 평가원이 제공하는 공식적인 해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중에 많은 수능 문제에 대한 해설들이 있지만 읽어보면 짹짹하거나 개운치 않은 해설도 많고 출제 의도에서 벗어난 해설들도 많다. 필자도 수험시절 때 했던 생각이지만 많은 학생들이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공식적인 해설이 있다면 출제 의도도 파악할 수 있고 답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수능 언어 문제에 대한 평가원의 공식적인 정답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정녕 없을까? 다행히도 우리는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www.kice.re.kr](http://www.kice.re.kr))에서 각년도 별로 가장 논란이 되고 이의가 많이 제기된 일부 문제에 한해 평가원의 공식적인 정답 해설을 볼 수 있다. 정말 수능 언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는 황금과 같은 자료가 아닐 수가 없다. 우리는 출제 기관인 평가원의 친절한 해설을 통해 출제자의 사고나 문제 출제 원칙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수능 언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해결해야하는지 그 지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 -평가원 공식 해설 key point

### 1.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올라온 어떤 학생의 질문이다. 시에 대해서 개개인의 감상이 다르고 해석이 다를 수도 있지 않냐고 물어보고 있다.

질문 내용 : ‘항상 언어영역에 시험을 치르게 되면 시에 대해서 평가가 나오는 데요

이 시는 개개인마다 감상이 다르다고 배워왔고 또 저도 다르게 해석하는 데요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개개인의 해석이 다른데 보기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평가원의 대답을 들어보자.

‘언어 영역의 경우 수험생의 주관성이 어느 정도 개입하게 마련인데 이를 허용하는지를 물었습니다. 현행 수능 언어영역의 문제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지문을 읽고 가장 적절한 답을 다섯개의 선택지 가운데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유형은 수많은 수험생을 객관적으로 채점하여 평가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학생이 지적한 것처럼 수험생의 다양한 반응을 수렴하여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수능은 한 해 60만명 가까운 수험생들을 짧은 시간 안에 평가해야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러한 선다형 문제 유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입 시험도 대부분 선다형 문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다형 문제 유형에 알맞은 방식으로 개인의 지나친 주관보다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주어진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보편타당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자. 즉, 내 생각이 60만명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답 인가를 한 번더 생각해야 한다.

## 2. 평가원은 문제를 해설하는 결정적 근거를 지문의 구체적 내용에 둔다는 것을 알자

다음의 평가원의 문제 해설 사례를 살펴보자.

-평가원의 문제 해설 사례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문의 셋째 문단을 보면 외부의 소리 자극에 따라 청세포가 반응하여 ‘귀의 소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귀의 소리’는  $f_1$ ,  $f_2$ , 자극 소리보다 늦게 감지됩니다. 따라서 답지 ①이 정답입니다.

둘째, 넷째 문단의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 $f_{귀의 소리}$ ’가 측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검사받는 사람에게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보기>의 그래프에 나타난 ‘귀의 소리’의 음압이 20dB이라 하더라도, 이는 ‘귀의 소리’의 음압이지 청력 손실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란, 30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30dB 이상 청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지 ③은 정답이 아닙니다.

위와 같이 평가원은 문제 해설을 할 때 구체적 위치를 들어가며 ‘지문의 몇 번째 문단, 몇 째 줄에 어떠한 내용이 있다.’는 내용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를 해설하는 근거가 지문에 있어야 60만명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원의 해설 사례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① 출제자는 문제를 해설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지문에 둘 수 밖에 없다.

② 역으로 생각해보면 지문에서 결정적인 근거의 구체적 위치(몇 째 문단, 몇 째 줄)만 찾을 수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따라서 수험생 여러분은 지문에서 근거를 찾기를 통해 평가원의 논리를 연습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정답을 고르는 사고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 3. 시어는 시에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다음의 평가원의 문제 해설 사례를 살펴보자.

-평가원의 문제 해설 사례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이 창작시는, 답지 ①의 창작시와는 다른 각도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아가 그 고통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삶의 곤경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줄에서 창작시의 화자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겠다고 합니

다. ‘고난’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고난은 삶의 슬픔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삶의 슬픔’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삶의 슬픔은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의 평가원의 시어 해석에 주목해 보자.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라는 구절에서 평가원은 ‘고난 = 삶의 슬픔을 이해하는 도구’, ‘삶의 슬픔 = 이해의 대상’이란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우리는 앞으로 시어 해석을 할 때, 함축적 의미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평가원처럼 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 4. 비문학에는 글의 구조가 있다.

-평가원의 문제 해설 내용 中(2005 06 평가원)

그리고 벤야민은 영화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밝혀집니다.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오늘날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장르인데, 이 영화에 대해 영화 초창기에 벤야민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B) 벤야민의 견해: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된 영화는 아우라를 상실하였기에 전통적인 예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C) 벤야민의 이 견해가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적용될지 미지수이다.

평가원에서는 ‘제시문의 구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긴 지문의 내용을 크게 구조상 (A), (B), (C)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글을 몇 부분으로 나누고 그 구조만 파악 할 수 있어도 글의 전개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5. 평가원의 개념어 정의

우리는 평가원의 문제 해설을 살펴보면서 평가원이 개념어에 대해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평가원 문제 사례를 통해 ‘서술자의 개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평가원 문제 해설 사례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난다는 말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 다음 두 대목을 보겠습니다.

(ㄱ)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ㄴ)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ㄱ)과 (ㄴ)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 등을 통해 작품에 폭넓게 개입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문제편 (2005 06 평가원 ~ 2011 수능)

이제 직접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본 뒤, 평가원의 문제 해설을 보도록 하자. 평가원의 문제 해설에 있어서 여러분의 유의해야 할 만한 부분에 밑줄을 쳐서 굵은 글씨로 표시를 따로 해놨으니 유의해서 읽기를 바란다.

### -2005 6월 평가원 28번 문항

오늘날 영화 한 편에 천만 명의 관객이 몰릴 정도로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영화 초창기인 1930년대에 발터 벤야민(W. Benjamin)이 영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에 따르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이 지니는 아우라(Aura)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 그런데 사진이나 카메라 등과 같은 기계적, 기술적 장치들이 예술의 영역에 침투하면서 예술 작품의 아우라는 파괴되는데, 벤야민은 그 대표적인 예로 영화를 든다.

벤야민은 영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관객의 자리에 카메라가 대신 들어선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극의 경우 배우와 관객은 직접적으로 교감하면서, 배우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연출해 보이고 관중의 호흡에 맞추어 연기를 할 수 있다. 관객은 연극의 주인공을 둘러싸고 있는 아우라를 그 주인공 역할을 하는 배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배우와 관객 사이에 카메라가 개입된다. 배우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카메라라는 기계가 갖는 비인간적 요소로 인해 시선의 교감을 나눌 수 없게 된다. 관객은 스크린에 비친 영상만을 접하기 때문에 배우와 교감할 수 없고, 다만 카메라와 일치감을 느낄 때만 배우와 일치감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관객은 카메라처럼 배우를 시각적으로 시험하고 비평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 결과 배우는 모든 교감의 관계가 차단된 유배지 같은 곳에서 카메라를 앞에 두고 재주를 부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배우를 감싸고 있는 아우라도, 배우가 그려내는 인물의 아우라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영화 배우의 연기는 하나의 통일된 작업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 작업이 합쳐져서 이루어진다. 이는 연기자의 연기를 일련의 조립할 수 있는 에피소드로 쪼개어 놓는 카메라의 특성에서 비롯된다. 카메라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촬영되고 편집된 한 편의 완성된 영화에 담긴 동작의 순간들은 카메라 자체의 그것일 뿐이다. 영화 배우는 각 동

작의 순간순간에 선별적으로 배치된 여러 소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카메라에 의해 조립된 영상들에 아우라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이런 점들을 들어, 벤야민은 전통적인 예술이 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아름다운 가상(假像)의 왕국으로부터 예술과 그 수용층이 멀어지고 있음을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비판한다. 영화 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이러한 비판이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전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8. 위 글에 나타난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5 6월 평가원)

- ① 요즘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화려하면서도 눈부신 영상미는 영화만이 갖는 큰 강점이지.
- ② 벤야민이 살던 시대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못했나 봐. 요즘 영화 배우들은 연기를 정말 잘하잖아.
- ③ 우리나라 영화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데. 제작비만 하더라도 몇 십 억이 들잖아? 그리고 영화관에 몰리는 관객 수도 엄청나.
- ④ 요즘 카메라 촬영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은 물론이고 세밀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 놓잖아.
- ⑤ 영화를 두고 예술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사람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 기준도 변하잖아.

정답 : ⑤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번호 : 28번]

<1>(남구현)의 이의제기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제시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서 벤야민은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라 하고,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이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예술작품과 수용자 사이에 기계적 장치(카메라)가 개입함으로써 아우라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러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벤야민은 영화와는 달리 연극의 경우 무대 위의 배우와 관객이 직접 교감하면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28번 문제의 문두는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된 논지라고 한 것은, 벤야민의 주된 논의의 취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된 논지는 영화가 전통적인 예술작품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아우라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되는 영화에서는 연극처럼 수용자가 직접 영혼의 교감을 할 수 없기에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갖는 아우라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장르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판은, 벤야민이 예술의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다만 그 기준을 아우라의 유무라는 단 한 가지 측면만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남구현 님이 “벤야민이 아우라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영화가 예술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은 제시문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남구현 님은 벤야민의 논지를 “영화는 기계적인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전통예술이 지니고 있었던 아우라를 상실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맞습니다. 곧 벤야민은 예술작품과 수용자 사이에 카메라나 사진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되면 아우라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영화에서는 아우라가 상실되었고, 그래서 전통적 예술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곧 벤야민은 카메라의 촬영기법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남구현 님이 정답이라 주장하는 4번 “요즘 카메라 촬영 기법이 아주 좋아졌어.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은 물론이고 세밀한 행동 하나하나를 그대로 화면으로 옮겨 놓잖아.”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4번이 남구현 님의 표현대로 “촬영 기법의 발달로 오늘날 우리는 배우들의 섬세한 표정과 세밀한 행동은 물론 그들의 숨결과 심장의 고동소리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면 벤야민의 논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객이 교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답지 4번에는 밀줄 친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밀줄 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벤야민은 카메라의 촬영기법을 주된 논지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서성균)의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앞의 <1>에서처럼 먼저 제시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시문에서 벤야민은 아우라는 비인간화되고 사물화된 의식과 태도를 버리고, 영혼의 시선으로 대상과 교감할 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 내지 살아 숨쉬는 듯한 생명력과 같은 것이라 하고, 그것은 우리들 가까이 있으면서도 저 멀리 있는데, 대상과 영혼의 교감을 통해 몰입할 때, 그때 어느 한 순간 일회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예술 작품은 심연에 있는 이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이고, 수용자는 그런 예술 작품과의 교감을 통해 아우라를 경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예술작품과 수용자 사이에 기계적 장치(카메라)가 개입함으로써 아우라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로 인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작품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이러한 측면을 비판하면서, 벤야민은 영화와는 달리 연극의 경우 무대 위의 배우와 관객이 직접 교감하면서 아우라를 느낄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하여, 28번 문제의 문두는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된 논지라고 한 것은, 벤야민의 주된 논의의 취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주된 논지는 영화가 전통적인 예술작품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며, 그 이유는 기계적 장치에 의해 아우라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곧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되는 영화에서는 연극처럼 수용자가 직접 영혼의 교감을 할 수 없기에 전통적인 예술작품이 갖는 아우라를 상실하였고, 이로 인해 영화는 전통적인 예술 장르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벤야민의 주된 논지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판은, 벤야민이 예술의 기준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는 사실을 무시한 채, 다만 그 기준을 아우라의 유무라는 단 한 가지 측면만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한 비판입니다.

<2>에서는 “글 전체에 반복해서 아우라를 불러내는 것은 전통예술로, 아우라가 파괴된 영화를 새로운 예술로 즉 예술의 범주 안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면서, 제시문에서 벤야민이 영화를 예술이 아니라고 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여 정답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시문에 벤야민이 영화를 ‘새로운 예술’이라고 언급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벤야민은 영화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밝혀집니다.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오늘날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장르인데, 이 영화에 대해 영화 초창기에 벤야민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B) 벤야민의 견해: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된 영화는 아우라를 상실하였기에 전통적인 예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C) 벤야민의 이 견해가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적용될지 미지수이다.

이 구조를 보면, 벤야민은 영화를 전통적인 예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곧 벤야민은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을 예술(전통적 예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벤야민이 생각하는 예술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달라지면서 영화를 비롯하여 사진 등도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기에, 영화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견해가 적용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3>(유승찬)의 이의제기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 지금의 사이버 소설을 두고 소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소설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각각의 견해에 대해 옳다거나 틀리다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이버 소설은 소설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은 예술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벤야민이 아우라의 유무에 따라 영화를 예술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예술의 개념을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영화도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은 시대가 변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3>의 이의제기에서 예로 든 ‘법원 판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예는 예술이 지닌 가변성과 유동성을 염두에 둘 때 적절하지 않은 예로 생각됩니다. 예술과 관련된 예를 들어보시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요즘 좋은 영화가 얼마나 많은데. 화려하면서도 눈부신 영상미는 영화만이 갖는 큰 강점이지.”라는 답지가 정답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답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벤야민은 영상미를 주된 논지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정윤희)의 이의제기는 <2>의 이의제기와 같다고 생각되기에, <2>에 대한 답변을 조금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4>에서는 “벤야민은 영화가 예술이긴 하지만 아우라를 상실한 예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제시문을 보면 벤야민은 영화를 자신이 생각하는 예술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밝혀집니다. 제시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 오늘날 영화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예술장르인데, 이 영화에 대해 영화 초창기에 벤야민이 비판을 가하고 있다.

(B) 벤야민의 견해: 카메라와 같은 기계적 장치가 개입된 영화는 아우라를 상실하였기에 전통적인 예술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C) 벤야민의 이 견해가 오늘날 문화의 총아로 각광받는 영화에 적용될지 미지수이다.

이 구조를 보면, 벤야민은 영화를 전통적인 예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곧 벤야민은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것만을 예술(전통적 예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벤야민이 생각하는 예술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예술에 대한 개념 규정이 달라지면서 영화를 비롯하여 사진 등도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기에, 영화초창기에 대두된 벤야민의 견해가 적용될지 미지수라는 것입니다.

-2005 6월 평가원 39번 문항

(가) 이 중에 시름 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片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면 천심(千尋) 녹수(綠水) 돌아보면 만첩(萬疊) 청산(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만경파(萬頃波): 넓은 바다 물결.

\*\* 홍진(紅塵):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제세현(濟世賢):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인재.

- 이현보, 어부단가 -

39. (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공간의 대비가 드러나 있다.
- ② 어부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③ 마지막 연에서 복잡한 화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속세와의 거리감을 수(數)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⑤ 마지막 구의 ‘제세현(濟世賢)’에서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정답 : ②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번호 : 39번]

<지문> (가)에 제시된 이현보의 <어부단가>는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당대 사람파의 거두 이현보가 고향에 은거하면서, 자신의 심정을 어부라는 화자의 입을 빌어 표현한 것이다. 이때 이현보는 정치 현실에의 참여와 강호 자연에의 은거라는 모순적 상황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답지 2번의 경우, 작품에서 화자가 ‘어부’라는 사실은 짐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생활상 (특히, 어부와 관련하여)이 드러나 있지 않다. 때문에, 정답이 된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듯이 작가가 어부의 입을 빌린 것이므로, 더더욱 작품에서는 어부로서의 구체적 생활상이 반영되어 드러나지 않는다. 설사 화자가 실제 어부라 하더라도 ‘일엽편주’를 띄운다거나, ‘어주에 누워 있다’거나 하는 행동을 어부의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생활’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어부의 생활 속에서만 표현될 수 있는 행위나 모습이 잘 드러난다는 뜻이다.

답지 3번의 경우,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장안’, ‘북궐’과 대비되는 ‘어주’라는 공간을 제시하고, 그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화자는 현실에서 떠나 있기는 하지만 현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무심하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무심에 이르지 못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복잡한 화자의 심리’라 했으므로 맞는 진술이 된다.

답지 5번의 경우, ‘제세현’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문에 주석이 제시되어 있고, 이 작품이 시 장르라는 것을 생각하면, 문맥 속에서 ‘제세현’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세현’의 의미는 초장, 중장에 이어지는 말을 받아서, 종장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앞에서 언급된 정치적인 관심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또 질문처럼 이 구의 해석을 단면적으로 보아서 화자의 정서가 완전한 ‘무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없다. 다음 40번의 문항이 보여주는 것처럼 화자는 ‘무심’에 도달하기보다는 ‘무심’의 경지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없으니’, ‘잇었거니’, ‘가렸는고’, ‘두어라’, ‘아니라’ 등의 언급이 잘 보여준다. 작품 마지막까지 정치 현실과 관련된 시어 사용이나 시적 진술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걱정을 벗어나 ‘무심’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전후 지낸 일이 다 정한 운명인 줄 알고, 더욱 슬퍼하여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말씀을 듣고 보니 저의 전생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 분명한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겠습니까마는, 지나간 고생과 지금 병든 아버가 굶주리고 슬퍼하여 죽게 될 일을 생각하니 간장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하니, 용왕이 말하기를,

“이제는 너의 고생이 다 끝나고 이후에 무궁한 복을 누릴 것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하고 시녀를 명하여 다과를 내와서 먹이라 하니, 얼마 후에 시녀가 붉은 소반에 차를 내오는데 백옥 잔에 안개 같은 차와 대추 같은 과일이었다. 청이 받아먹으니 정신이 맑아져서 전생의 일이 분명히 기억났다. 부왕(父王)의 용안을 새롭게 알아보며, 좌우 시녀가 전생에 자기 앞에서 심부름하던 무리인 줄 아니 반갑기 그지없었다. 자기가 본디 천일주를 맡아보다가 노군을 불쌍히 여겨 술을 훔쳐 먹이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나니, 슬픈 마음이 새로워 부인을 우러러 눈물을 흘리며,

“제가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던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두렵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 도로 나가지 말고 여기 머물기를 원합니다.”

부인이 말하기를,

“너는 슬퍼하지 말아라. 이제 다시 인간 세상에 나가면 전날의 고초는 일장춘몽이 될 것이니 어찌 천명을 어기겠느냐?”

하고, 시녀를 명하여,

“청을 후원 별당으로 인도하여 편히 쉬게 하라.”

하였다.

청이 시녀를 따라 후원 별당에 이르니 집안에 벌여놓은 것들이 모두 전날에 보던 것이었다.

이때 심현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딸이 문을 나가 어디로든 가는 모양이나 보려 하나 눈이 감겼으니 어찌 볼 수가 있겠는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문득 기절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니, 이웃 사람들이 그 형편을 참혹히 여겨 붙들어 손발을 주무르고 더운물을 입에 떠 넣어 구호하니,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려 손으로 벽을 치며 통곡했다.

“불쌍하다 내 딸아, 세 살에 어미를 잃고 가련한 어린 아기 어미를 부르짖어 울 적에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목숨이 모질어 죽지 못하고 사는 중에 앞 못보는 병신까지 되어 지척을 분간하지 못하고, 집안 살림은 나날이 어려워서 하루 한 끼를 얻어먹지 못하고 있을 때에, 추위와 더위를 헤아리지 아니하고 빌어다가 잠시도 배고프지 않게 해 주더니, 이제 아버를 위하여 이렇게 되었으니 네 정성은 지극하나 내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아아, 하늘이여, 집안 살림이 어렵거든 눈이나 성하거나, 앞을 보지 못하거든 집안 살림이 넉넉하거나 할 일이지, 제 어찌 애를 그토록 태우며 죽을 곳에 나아갔단 말이나?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한데 나는 오랜 병에 성한 자식을 눈앞에서 비명원사(非命冤死)케 하니, 설령 천지귀신이 그릇되게 여기지 아니하여 눈이 뜨인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밤낮으로 청을 부르며 통곡하니 이웃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공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홀로 애통해 하다가 스스로 위로하여 더듬어 보니, 청이 벌어다 모아 둔 양식과 마른 고기 반찬과 익힌 음식이 그릇마다 담겼거늘, 만지는 족족 가슴이 막히고 간장이 녹는 듯하여 아무리 슬픔을 억제하려 하나 어찌할 수가 없었다. 다시금 딸을 부르짖어,

“불쌍하다, 너는 병신 아버지를 이같이 먹여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너를 죽을 곳에 보내고도 태연하니 이게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느냐?”

하며, 밤낮없이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었다. 눈바람이 몰아쳐 뼈에 사무치고 적막한 빈집에 인적이 끊어지니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청이뿐이었고, 얼굴은 핏색하여 뼈만 남아 있었다.

- 심청전 (경판본) -

56. 위 글을 읽은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심현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지는 않았군.
- ② 용궁의 신비한 다과는 심청이 지상에서 살았던 삶을 잊게 하는군.
- ③ 용궁은 심청에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군.
- ④ 용궁은 심청이 다른 존재로 변화하기 위한 장소라는 의미를 지니는군.
- ⑤ 심청은 심현에 대한 걱정과 용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군.

정답 : ②

[문항번호 : 56번]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용궁에 온 후 심청은 자신의 전생죄악과 지난 고생의 인과관계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먹은 후에는 전생의 일을 스스로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②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답지 5에서 제시된 ‘심청은 심현에 대한 걱정과 용궁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을 모

두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된 지문 전체에서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시된 지문의 앞 부분에서 분명 병든 아버지가 처한 상황에 대한 근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먹은 후에는 심청이 용궁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가 효를 주제로 한 이 소설에서 특이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꼼꼼히 읽어낼 것을 주문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본다는 말이 자아성찰, 반성으로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용궁에서의 시간은 지상에서의 삶 뿐만 아니라 지상의 삶이 있기까지의 천상에서의 삶까지도 인과관계에 의해 돌아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제시하신 ‘과거의 삶’, ‘전생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같은 말들은 구체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소설을 제한된 시각에서 읽게 할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더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2005 9월 평가원 24번 문항

(가)

꽃 사이 타오르는 햇살을 향하여  
고요히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높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맑은 냇을 살게 하자.

가시밭길 넘어 그윽히 웃는 한 송이 꽃은  
눈물의 이슬을 받아 핀다 하노니,  
깊고 거룩한 세상을 우리르기에  
삼가 육신의 괴로움도 ㉠ 달게 받으라.

[A] ┌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 마음 나라의 [원광(圓光)]은 떠오른다.

푸른 하늘로 푸른 하늘로  
항시 날아오르는 노고지리같이  
맑고 아름다운 하늘을 받들어  
그 속에 높은 냇을 살게 하자.

- 조지훈, 마음의 태양 -



24. (가)를 읽고 시 창작 활동을 하였다. [A]연의 내용과 정서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은?

[3점] (2005년 9월 평가원)

- ①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 ②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 ③ 이제 나는 너그럽게 사람과 세상을 받아들이리  
내 마음의 검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검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 ④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삶은 험난한 길, 아무도 피해 갈 수 없는 가시밭길  
설사 돌아오는 것이 허망한 것이더라도 삶은 원래 그런 것
- ⑤ 이제 나는 발끝의 작은 것도 사랑하리라  
내가 먼 곳만 바라본다면, 나의 발 디딘 곳 아픔을 어떻게 알리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 하리라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번호 : 24번

1. [A]에 대한 출제자의 관점

원시에서 특별히 지정된 부분 [A]는 다음과 같습니다.

괴로움에 짐짓 웃을 양이면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  
고난을 사랑하는 이에게만이  
마음 나라의 <원광>은 떠오른다.

이 부분의 내용과 정서를, 산문적인 진술로 바꾸어 항목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시는 산문적 진술로 환원하거나 번역할 수 없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꼭 이 주장에 기대지 않더라도 시를 산문적 진술로 바꾸어 놓는 것이 시가 지닌 본래의 뜻과 멋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은 상식적 판단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시에 대해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야기할 때 산문적 진술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 (1) 괴로움이 와도 웃자.
- (2) 그러면 슬픔도 아름답게 여겨진다.
- (3) 고난을 사랑하자.
- (4) 그러면 마음의 평온이 시작된다.

이 항목화된 진술들을 묶으면, “X(슬픔, 고난)를 웃고 사랑하면, X가 아름답게 여겨지고 마음이 평온해진다.”라는 문장이 될 것입니다. 이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념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X는 웃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 (2) 그래서 사람들은 X가 다가왔을 때 그 상황을 원망하면서 절망에 빠지기 쉽다.
- (3) 화자(시인)는 통념 또는 상식과 달리 X를 호의적으로 보자고 한다.
- (4) 그러면 원망과 절망에서 벗어나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다.

화자(시인)는 고난이나 슬픔으로 대표되는 삶의 곤경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이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화자(시인)는 그 가운데 하나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시를 쓴 시인은, “대상(객체)은 받아들이는 사람(주체)의 자세/태도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인 대상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무엇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2. 답지 ①에 대한 출제자의 관점

답지 ①의 가상 학생 창작시(이하 창작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

‘겨울’은 삶의 곤경을 표현한 것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시에서 ‘겨울’은, [A]에서 고난, 슬픔과 비슷한 의미인 것입니다. 문항이 암시한 시 쓰기의 조건에 따라 ‘고난과 슬픔’에 해당하는 삶의 곤경을 실습하는 학생이 ‘겨울’로 바꾸어 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A]를 살필 때 수행한 방식과 같이, 이 창작시에 담긴 내용과 정서를,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 단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념과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겨울은 추운 것이다.
- (2) 그래서 많은 경우 사람들은 겨울이 왔을 때 추워하고 움추려들기 쉽다.
- (3) 화자(시인)는 통념 또는 상식과 달리 겨울이 와도 춥다고 하지 않겠다고 한다.
- (4) 그러면 추위와 위축된 상태에서 벗어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 [A]의 경우와 대조해 보면 그 내용과 정서의 유사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위 단계별 설명에 반영되지 않은 창작시의 두 번째 줄,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잊지 않으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어려워도 자신을 다잡고”라는 구절은,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노력을 통해, 삶의 곤경을 수용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노력은 바로, 삶의 곤경을 대하는 태도(자세, 방식)를 숙고하는 일입니다. 이는 [A]의 그것과 같습니다. 이를 다른 답지와도 대비할 수 있는데, 답지 ②의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와, 답지 ③의 “내 마음의 겸손과 원만함이 사람들에게 햇살처럼 퍼지게 하리 / 겸손하게 빛나는 영혼의 세계를 위해 마음을 열고 얘기하리라”, 답지 ④의 “이제 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에 현혹되지 않으리”, 답지 ⑤의 “이제 남은 내 삶은 이웃의 아픔, 슬픔과 함께 하리라”에서 읽을 수 있는 삶의 태도와 뚜렷이 분간됩니다. 특히, ②, ③, ⑤의 답지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주체적이고 내면적인 노력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사회적, 공익적, 동지적 연대와 교류, 또는 공감과 연민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이들이 택한 방식은 그 자체로만 보자면 사실 삶의 곤경을 받아들이는 건전한 해결 방식이라 할 수 있으나, [A]의 초점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요컨대 [A]는 곤경을 이겨내려는 주체적, 내면적 사유(思惟)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따스한 봄날과 무성한 숲의 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봄과 여름의 형편을 구체화한 부분입니다. 이는 이 창작시가 선택한 핵심 비유어, ‘겨울’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연상된 결과입니다. 겨울은 봄, 여름, 가을과 함께 한 해의 순환을 이룹니다. 겨울이 우리에게 주는 불편함과 고통을 이겨내고자 할 때, 그 부정적 속성(추위)이 제거된 미래의 시간 또는 계절을 상상해 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특히 유의할 것은, 24번 문항이, 제시된 시(긴 시의 일부이기는 하나 제 나뭇의 자족성을 갖춘)의 일부를 단순히 요약하거나 다시 쓰기를 묻는 데서 나아가 새로운 시의 창작이라는 심층적, 창의적 학습까지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작예술로서 ‘시’를 염두에 둘 때 ‘겨울’이라는 핵심 비유어를 통해 봄과 여름에까지 생각의 영역을 넓혀보는 것은 교육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당연하고도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봄과 여름은 오늘의 부정적 현실인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A]의 마지막 줄에 출현하는 “마음나라의 원광”과 닮아 있습니다.

### 3. 답지 ②에 대한 출제자의 관점

답지 ②의 창작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리  
내 쓰린 마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  
슬픔은 우리 삶을 둘러싼 아득한 철조망

이 창작시는, 답지 ①의 창작시와는 다른 각도에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또 다른 한 가지 태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을 그대로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나아가 그 고통을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더불어 나눔으로써 삶의 곤경을 견디고자 하는 태도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첫 줄에서 창작시의 화자는, ‘고난’을 통해 ‘삶의 슬픔’을 이해하겠다고 합니다. ‘고난’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고난은 삶의 슬픔을 이해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삶의 슬픔’을 중심에 놓고 보자면, 삶의 슬픔은 이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을 보면, 내 “쓰린 마음”, 즉 고난의 느낌을 남과 나누고, 남의 고난의 느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화자(시인)가 제안하는 것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고난(정확하게는 고난의 느낌)을 함께 나눔으로써 삶의 곤경을 이겨내자는 것임이 분명합니다. 앞서 [A]와 창작시를 살필 때 수행한 방식과 같이, 이 창작시에 담긴 내용과 정서를, 설명을 덧붙여 항목화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삶의 슬픔을 고난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해하고 싶다).
- (2) 고난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것이 좋다(위로하고 싶다).
- (3) 우리 삶은 피하기 어려운 슬픔으로 둘러싸여 있다.

(1)의 진술은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겨지나, [A]에서 나타나지 않은 생각이므로 [A]의 내용과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해야 옳습니다. (2)의 진술은 그 나름의 건강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A]에서는 다룬 바 없는 내용입니다. (3)의 진술은 다소 비관주의적인 생각을 포함하고 있는데, [A]의 내용과 정서에서 그런 생각을 의심의 여지 없이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 4. 이의제기에 대한 구체적 답변

이 문항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하여 두 항목으로 나누어 답변하겠습니다.

##### 4-1. 게시판 ‘38’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이의제기자(이하 제기자)는 [A]의 내용과 정서를 “괴로움을 달게 받으라”로 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해의 방식이 오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A]의 내용과 정서를 편협하게 이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위 ‘1’의 [A]에 대한 출제자의 관점 참조). 더 상세히 말하면, 제기자는 “달게 받으라”에서 “달게”보다 “받으라”를 상대적으로 훨씬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받으라”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달게”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제기자는, 답지 ①의 창작시를 감상하면서 그 일부인 둘째 줄만을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주제를 뚜렷하게 함축, 반영하고 있는 첫째 줄과, 가정절인 둘째 줄에 이어지는 주절, 즉 셋째 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기자는 둘째 줄을 “괴로움을 달게 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해하면서, <괴로움을 달게 받으려는 자세>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첫째 줄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와 셋째 줄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에서

드러난 <괴로움을 달게 받으려는 자세>를 간과한 것입니다.

이어 제기자는 답지 ②의 오답 부당성, 즉 정답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에서 “**받아들이다**”라는 표현이 명백하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다”는 “달게 받으라”의 “받다”와 형태/의미상 근접한 표현이기는 하나, 문맥적 쓰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고난을 더불어 “나누겠다”는 의미입니다. 즉 ‘받다/받아들이다’의 목적어가, 한쪽은 ‘나에게 닥친 고난/곤경’이지만, 다른 쪽은 ‘그들의 쓰린 마음’, 즉 ‘남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쓰린 마음을 받아들이리**”에서 정서의 핵심은 “고난의 감내”가 아니라, “타인과의 교감” 또는 “동지의식에 근거한 고통의 공감”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기자는 답지의 창작시를 읽으면서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소홀히 한 채, 덜 중요한 부분에 몰두한 해석은 널리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답지의 창작시 각 편 전체를 읽고 대의에 유의해서 읽어 보면, 상대적으로 답지 ①의 창작시가 드러내는 내용과 정서가 [A]의 그것과 더 가깝고, 이에 비해 ②번을 위시한 오답지의 창작시는 내용과 정서에서 [A]와 결정적인 상이점이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상이점을 짚혀두고 그렇지 않은 유사점에 집착하는 일은 이 문항이 지향하는, 시 쓰기와 읽기, 그리고 예술작품을 비교하며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4-2. 게시판 ‘27’, ‘28’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제기자는 [A]에서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와 “고난을 사랑하는 이”라는 구절을 주목하여, 화자(시인)가 “고통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 따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와 같은 생각의 대의는 수긍할 수 있으나, 엄밀하게 [A]의 세부를 살펴 읽어 보면 정확한 이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화자(시인)가 “고통이나 슬픔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제기자의 견해는 단순히 고 소박한 이해에 근거한 피상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소박한 이해에 근거한 판단은 [A]에 담긴 내용과 정서를 충분히 담아내기에 부족합니다.

당연한 사실이라 글의 표면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 화자(시인)가 고통과 슬픔을 부정적으로 보는 통념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자(시인)는 그보다 더 나아가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기는 하나, 긍정적으로 보자”라며 ‘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국 화자(시인)는, 제기자와 같은 용어로 말하자면, “부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라는 정도의 표현적 특성에 머물지 않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태도를 제안하고 그 효용을 설명한다”라는 적극적인 의도를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나 슬픔 같은 부정적인 것 따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제기자의 이해에 포함된 소박성과 부정확성은 일단 접고 보더라도, 제기자는, 답지 ①의 창작시를 감상하면서 그 일부인 둘째 줄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주제를 뚜렷하게 함축, 반영하고 있는 첫째 줄과, 가정절인 둘째 줄에 이어지는 주절, 즉 셋째 줄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기자는 둘째 줄을 “부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 태도라기보다는 부정적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잊지 않게 하는 다짐”으로 해석하면서, [A]와 뜻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첫째 줄 “이제 나는 겨울이 와도 춥다 하지 않으리”와 셋째 줄 “어느 세찬 바람과 눈보라인들 내 따뜻한 털옷 되지 않으리”에서 드러난 <부정적인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간과한 것입니다.

또한 제기자는 답지 ②의 첫줄 “이제 나는 고난을 통해 슬픔을 이해하리”라는 구절이 “[A]와 부분적으로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슬픔을 이해하기 위해 고난을 택한다” 또는 “슬픔을 이해하게 된다는 혜택이 있으므로 고난을 달게 받겠다” 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 슬픔의 이해 여부는 [A]의 내용과 정서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A]의 “슬픔도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에서 “슬픔도 오히려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슬픔을 (제대로) 이해하였다’가 아니라, ‘(아름답다고 보기 어려운) 슬픔도 (어찌어찌하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이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느냐, 즉 이해의 방식이 [A]의 핵심 내용에 속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이때에도 ‘고난 이해의 방식’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며, ‘고난 수용의 방식’, ‘고난 수용의 태도/자세’가 적절할 것입니다.

한편, [A]에서 ‘고난-슬픔’의 개념 영역과 관계의 측면에서도 답지 ②의 창작시에서처럼 어느 한쪽을 경험함으로써 다른 한쪽을 이해할 수 있는, 양자가 상호 독립적 영역을 확보한 채 단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중첩된 영역으로 등질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답지 ②의 창작시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A]와 그만큼 다르다는 뜻입니다.

전반적으로 제기자는 답지의 창작시를 읽으면서 일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자신의 주관적 견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답지의 창작시 각 편 전체를 읽고 대의에 유의해서 읽어보면, 상대적으로 답지 ①의 창작시가 드러내는 내용과 정서가 [A]의 그것과 더 가깝고, 이에 비해 ②번을 위시한 오답지의 창작시는 내용과 정서에서

[A]와 결정적인 상이점이 있음을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상이점을  
젖혀두고 그렇지 않은 유사점에 집착하는 일은 이 문항이 지향하는, 시 쓰기와 읽  
기, 그리고 예술작품을 비교하며 이해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05 9월 평가원 27번 문항**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었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느이 고향이 어딘데?”

“몰라서 묻니? 개성쪽, 개풍군이야.”

“거기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도.”

“그래도라니? 변명치곤 너무 구차스럽다 애. 이북에 두고 온 눈발 저당잡고 돈도  
꽤 달랠라.”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목계 같은 거지. 어머니는 비록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  
아가신 후에만은 어머니가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라실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을 거 없잖아. 묘지란 어차  
피 사후의 집이니까.”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는 판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  
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에그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호숙 에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네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握力)이 나를 놀라게도 서럽게도 했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 했다. 그러잖아도 언제고 꼭 알려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알려  
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래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잇다니요. 그걸 어떻게 잇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발머리에 가매장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로나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恨)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 박완서, 엄마의 말뚝 2 -

27. ㉠과 같이 말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2005 수능 9월 평가원)

- ① 체험의 동질성    ② 성격의 동질성    ③ 신념의 동질성  
④ 심리의 동질성    ⑤ 생사관(生死觀)의 동질성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 **문항 번호 : 27번**

어머니와 화자 ‘나’는, 전쟁 중에 죽은 오빠를 몸소 가매장하고 다시 화장하여 고향 쪽으로 날려 보내는 일련의 행위를 함께 하였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두 인물은 자신들의 가족사에 반영된 전쟁과 분단의 고통을, ‘같은 바탕과 질을 가진, 즉 동질적인 체험’으로 내면화하고 공유하게 됩니다. 그 외의 인물, 예컨대 ‘올케’ 등은 오빠의 뼈를 날려 보내는 행위의 과정에 부분적으로 동반하더라도, 어머니와 ‘나’처럼 같은 바탕과 질을 가진 체험으로 공유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극적 고통을 내용으로 하는 일련의 동질적인 체험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는 오직 화자인 딸에게 자신의 죽음 이후에 대해 그런 부탁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동질적인 체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 ‘나’는 어머니의 신념을 점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머니의 신념을 화자가 ‘같은 바탕과 질로’ 함께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은 화자의 서술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자신이 죽은 뒤에 화장하여 고향 쪽으로 날려 보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화자는 어머니의 신념을 이해하면서도 “삼십 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하고 스스로 되묻습니다. 비록 화자가 어머니의 신념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 신념이 어머니의 신념과 완전하게 동질화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못했음을 어머니의 말과 화자의 물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대비가 소설의 결말 부분인 위 지문에서 주제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5 수능 11번 문항**

11. <보기>의 우화를 바꿔 쓰기 위해 토의해 보았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2005 수능)

—<보 기>—

참나무가 갈대에게 힘자랑을 하고 있었다. 허약하고 바람에 쉽게 굽힌다는 참나무의 놀림에 갈대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그때 거센 바람이 불어 닥쳤다. 갈대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바람을 이겨 냈지만, 제 힘만 믿고 바람에 맞서 버티던 참나무는 결국 부러지고 말았다. - 『이솝 우화』 -

- ① 나는 이 우화의 서술 시점을 바꿔 보겠어. 갈대를 서술자로 만들어, 갈대가 직접 사건을 진술하여 자신의 삶의 태도를 드러내도록 해야지.
- ②나는 이 우화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해 보겠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갈대를 평가하여, 강한 힘 앞에서 쉽게 굴복하는 나약한 존재로 나타낼 거야.
- ③나는 이 우화를 현실 상황에 적용해 보겠어. 자신의 재주를 내세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인물과 유연한 자세로 순응하며 살아가는 인물을 찾아, 이야기를 꾸며 볼 거야.
- ④나는 이 우화의 장면을 구체적으로 서술해 보겠어. 참나무와 갈대가 삶의 방식을 놓고 대화하는 장면을 설정하고, 거센 바람이 불어 닥치는 장면도 자세히 묘사할 거야.
- ⑤나는 이 우화의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를 추가해 보겠어. 부러진 참나무가 튼튼한 건축재로 거듭난다는 이야기를 보태어, 참나무가 지닌 삶의 방식에 가치를 부여해 봐야지.

정답 : ⑤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11번**

문학 작품의 ‘바꿔 쓰기’는 곧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을 달리 이르는 말입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에 따르면, 이는 작품을 새로운 맥락에서 해석하기, 작품의 비판적 수용에 이어 작품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하기, 내용과 형식·표현의 요소를 바꾸어 재창조하기, 작품에 대

한 비평적 글 쓰기 등으로 세부 내용이 구성됩니다. 또 이들 내용을 학습하기 위한 활동으로 작품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 보고, 다른 관점에서 재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토론하며, 작품에 대한 수용 텍스트를 쓰고, 그 결과를 놓고 다른 학생과 토론하는 활동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바꿔 쓴다는 것은 이야기의 내용 요소뿐 아니라 형식 요소의 전 층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전제되며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기본 텍스트가 변형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생성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특히 우화(寓話, fable)는 교훈적이고 풍자적인 내용을 동식물 등에 빗대어 간결하고 소박한 문체로 엮은 이야기로서 그 성격상 우의적이고 함축적이기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우화는 일종의 서사이기는 하되 형식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요소를 추가하여 변형, 확장이 가능한 개방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화와 같은 비교적 짧은 이야기를 다양하게 바꾸어 써 본다는 것은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하여 이해하고 사고하는 태도를 기르고, 나아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직접 써 보게 함으로써 창작의 과정을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창의적인 글쓰기 교육의 일환으로 실제 문학 수업이나 수행 평가 과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변형되거나 생성된 내용 자체의 적절성을 따진다는 것은 ‘창조적 재구성’이라는 행위가 갖는 본질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인 기준을 갖고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바꿔 쓰기의 방향이나 전략에 맞게 내용이 생성되었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두에서 제시한 ‘사고 방향’이라는 말은 바꿔 쓰기의 방향이나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바꿔 쓰기의 내용으로 적절한’이란 변형되거나 생성된 내용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방향에 따른’이라는 조건에 맞게 각각의 활동이 수행되었느냐를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답지는 모두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편의상 각각 A와 B로 칭한다면, 앞 문장 A는 바꿔 쓰기를 하기 위한 사고 방향을, 뒷 문장 B는 사고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수행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에 제시된 조건과 B에 진술된 수행 내용 사이의 정합성이 바로 문두에서 요구하는 적절성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A의 조건이 없거나 이를

간과한다면 B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답지에 제시된 바뀐 쓰기의 사고 방향 내지 전략은 각각 ① 서술의 시점 바꾸기, ②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기, ③ 현실 상황에 적용하기, ④ 장면을 구체화하기, ⑤ 주제 강조를 위해 이야기 추가하기입니다. 여기서 ①과 ④는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바뀐 쓰기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보기>의 틀을 변형하고 새로운 내용을 생성한다는 것입니다. 또 ②, ③, ⑤는 <보기>에서 일반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교만한 삶에 대한 경계와 유연한 삶의 추구’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내용적인 측면에서 바뀐 쓰기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⑤가 정답으로, 제시된 사고 방향은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이야기 추가하기’인데 그에 따른 활동 내용이 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야기의 추가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답지 ②에서 ‘이 우화를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겠다’는 것은 <보기>가 지니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맥락과 관점에서 이야기를 꾸며 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참나무와 같은 삶의 방식보다는 갈대와 같은 삶의 방식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보기>와 달리, 답지 ②는 이와 상반된 입장에서 갈대와 같은 삶의 방식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가령 자신보다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의 몸을 숙이며 생존하는 모습을 유연함이라기보다는 힘이 모자라 복종하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측면에서 갈대를 나타내고자 한 것입니다. 정답에 대한 이의제기 내용은 답지에 제시된 갈대의 속성이 <보기>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보기>에 드러나는 갈대의 모습에서 나약한 속성과 같은 부정적인 속성을 찾을 수 있는가에만 초점을 둔 것이지 문제에서 제시한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여 바뀐 쓰겠다’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간과하거나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바뀐 쓰기가 기존의 텍스트를 바탕으로 하되, 그 이야기가 다양한 측면에서 변형되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②의 정답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에 대한 정답 가능성도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배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④의 정답 가능성에 대한 이의 제기의 요지는 ④는 표현 내지

서술 방식 등이 바뀐 것이므로 사고의 전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사고’라는 말을 ‘이야기의 내용’ 층위에만 국한한데다 ‘사고 방향에 따른 바꿔 쓰기’라는 말을 ‘이야기의 내용을 전환하는 것에 따른 바꿔 쓰기’라는 말과 동일시한 오독이라고 여겨집니다. 문두에 제시된 ‘사고 방향’이라는 말을 굳이 사전적으로 풀어 본다면 ‘생각이 일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쪽’이라는 뜻이므로 이를 이야기의 내용 전환에만 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술했듯 바꿔 쓰기의 요소는 내용과 형식의 전 층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답지 ①, ④는 형식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바꿔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 요소가 생성되어 진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지 ④가 정답이라는 주장은 문제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에 근거한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 -2005 수능 13번 문항

13.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 수능 13번)

—<보 기>—

-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 문장입니다.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 문항 번호 : 13번

“철수 밥 먹었어요?”라는 문장이 있을 때, ‘철수’와 ‘밥’은 문장 속에서 어떤 구실을 하고 있을까요? 한국어 화자라면 누구나 ‘철수’는 주어, ‘밥’은 목적어 구실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철수’ 뒤에 ‘-가’를 ‘밥’ 뒤에 ‘-을’을 붙이는 것은 ‘철수’와 ‘밥’의 문장 속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의 구실을, ‘-을’은 앞에 나오는 명사가 목적어 구실을 한다는 표시입니다.

‘그가 착한 사람임’도 문장 속에서 목적어 구실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 구실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을’이 붙은 것입니다. 따라서 밑줄이 ‘그가 착한 사람임’까지만 그어진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ㄱ ‘흐르는’에서 ‘는’이나 ㄷ ‘없이’에서 ‘이’와 달리, ㄴ의 ‘을’은 단어에 부속된 형태가 아니라 조사로서 독립된 품사이기 때문에 설명 단위가 달라서 밑줄을 긋지 않았던 것입니다.(고등학교 문법 교과서 참조)

또, ‘철수’는 단어로서 형태론 분야에 속하는 것이지만 문장 성분을 묻는 통사론의 분야에 속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단어 ‘철수’가 개별적인 단어로만 존재한다면 형태론 분야에 속하겠지만, 문장 속에 들어온 순간 문장의 성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잡한 생각’의 범위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문장 구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생각이라는 범위도 문장 구조와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문장은 생각을 표현하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장은 모두 홑문장이 아니라 안은 문장입니다. 안은 문장은 홑문장으로 표현해야 하는 둘 이상의 생각을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땀이 이마에 흘렀다’와 ‘담징이 땀을 씻었다’는 각각 어떤 사태에 대한 관찰을 표현한 문장이지요. 그런데 ㄱ의 문장은 이 두 사태에 대한 관찰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안은 문장은 홑문장으로 표현하는 생각보다는 복잡한 생각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은 문장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

아질수록 문장의 구조도 복잡해지면서 그 문장이 표현하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2005 수능 17번 문항

(가) 날로 밤으로

왕거미 줄치기에 분주한 집  
마을서 흥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이 집에 살았다는 백성들은  
대대손손에 물려줄  
은동곳도 산호 관자도 갖지 못했니라

재를 넘어 무곡을 다니던 당나귀  
항구로 가는 콩실이에 늙은 동글소  
모두 없어진 지 오랜  
외양간엔 아직 초라한 내음새 그윽하다만  
털보네 간 곳은 아모도 모른다

찾길 이 뇌이기 전  
노루 멧돼지 쪽제비 이런 것들이  
앞뒤 산을 마음 놓고 뛰어다니던 시절  
털보의 셋째 아들은  
나의 싸리말 동무는  
이 집 안방 짓두광주리\* 옆에서  
첫울음을 울었다고 한다

[A]

“털보네는 또 아들을 봤다우  
송아지래두 불었으면 팔아나 먹지”  
마을 아낙네들은 무심코  
차그운 이야기를 가을 냇물에 실어 보냈다는  
그날 밤  
저릅등이 시름시름 타들어 가고  
소주에 취한 털보의 눈도 일층 붉더란다

갓주지 이야기와



무서운 전설 가운데서 가난 속에서  
나의 동무는 늘 마음 졸이며 자랐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  
노랑고양이 울어 울어  
종시 잠 이루지 못하는 밤이면  
어미 분주히 일하는 방앗간 한구석에서  
나의 동무는  
도토리의 꿈을 키웠다

그가 아홉 살 되던 해  
사냥개 핏을 쫓아다니는 겨울  
이 집에 살던 일곱 식솔이  
어데론지 사라지고 이튿날 아침  
북쪽을 향한 발자욱만 눈 우에 떨고 있었다

더러는 오랑캐령 쪽으로 갔으리라고  
더러는 아라사로 갔으리라고  
이웃 늙은이들은  
모두 무서운 곳을 짚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마을서 흉집이라고 꺼리는 낡은 집  
제철마다 먹음직한 열매  
탐스럽게 열던 살구  
살구나무도 글거리\*\*만 남았길래  
꽃피는 철이 와도 가도 뒤울안에  
꿀벌 하나 날아들지 않는다

- 이용악, 「낡은 집」 -

\* 짓두광주리 : ‘반진고리’의 방언.

\*\* 글거리 : ‘그루터기’의 방언.

17. (가)에 대한 감상문을 쓰기 위해 <보기>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5 수능)

<보 기>

·발표 연도 : 1938년  
 ·작가 소개 :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 그의 집안은 대대로 소금 장사를 하였는데, 아버지의 객사(客死)로 어머니가 생계를 꾸려야 했다. 어려서부터 궁핍한 생활을 했던 이용악은 일본 유학 시절에도 품팔이로 학비를 조달했다. 그러면서도 방학 때면 으레 귀국하여 동포들이 모여 사는 간도 등지를 돌며 유이민(流移民)의 비극적인 삶을 살펴보기도 했다.

- ① 1938년에 발표된 것으로 보아, ‘가난’, ‘겨울’과 같은 시어를 일제 강점기의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읽을 수도 있겠어.
- ②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이라는 시구에서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했음을 알 수 있어.
- ③ 이 시에 나타난 궁핍한 생활상은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작가의 실제 삶과도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
- ④ 유이민에 대한 작가의 관심이 털보네 가족의 삶으로 형상화된 것으로 보여.
- ⑤ 함경도에서의 공간 체험이 시에 방언으로 형상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정답 : ②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 **문항 번호 : 17번**

제기된 의견을 몇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작품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답지 ②가 아니라 답지 ①을 말하는 것이겠지요? 답지 ①만 반영론적 관점이고 나머지는 모두 표현론적 관점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치게 도식적인 것입니다. 작가의 전기적 사실에 의거하고 있다고 해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작가도 그 시대를 살아낸 인물이기 때문에 작가의 삶 속에 시대의 양상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지 ③의 ‘궁핍한 생활상’이라든가 답지 ④의 ‘유이민’과 같은 것이 이미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지를 구성할

때, ‘반영론’이나 ‘표현론’을 구분하여 구성하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답지의 오류를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함경도 방언이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함경도 방언이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주장은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기>에서 “이용악의 고향은 함경북도 경성이다.”라고 분명히 언급하였고, 시 속에는 우리가 익숙하게 보지 못하던 시어들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낱말 풀이에도 ‘짓두광주리’와 ‘글거리’ 같은 방언을 제시해 주었고, 이 외에도 ‘쪽제비’, ‘차그운’, ‘저릐등’ 등의 방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용악의 ‘넓은 집’을 읽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한편 작품에 나타난 방언이 반드시 대화 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작품 전반에 시어로 나타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작품 속에 나타난 방언의 의미를 따질 때에는 작가가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느 곳에서 주로 생활하였는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소월, 백석, 김영랑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객사한 것이 맞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을 객사로 읽을 것이냐 아니냐, 작가의 아버지와 관련된 경험을 시적 화자의 아버지 또는 인물의 아버지에 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항 자체의 성립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답지에 대한 논란도 역시 작품에 대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당나귀 몰고 간 애비 돌아오지 않는 밤’에서 ‘애비’는 시적 화자의 아버지가 아니라 털보네 아들, 시적 화자의 친구 아버지인 털보입니다. 5연은 시적 화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털보네 아들, 시적 화자의 동무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 -2005 수능 42번 문항

- (나) ┌ 연하(煙霞)\*로 집을 삼고 풍월(風月)로 벗을 사마  
 [A] 태평성대(太平聖代)에 병(病)으로 늘거 가뇌  
 └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  
 순풍(淳風)\*\*이 죽다 하니 진실(眞實)로 거짓말이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이  
 천하(天下)에 허다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슴 흘가.

천운대(天雲臺) 도라 드러 완락재(玩樂齋) 소쇄\*\*\*헌디  
만권생애(萬卷生涯)로 낙사(樂事) | 무궁(無窮)하애라  
이 중에 왕래풍류(往來風流)를 닐러 므슴 흘고.

청산(靑山)은 엇제헌여 만고(萬古)에 프르르며  
유수(流水)는 엇제헌여 주야(晝夜)에 굿지 아니논고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萬古常靑)헌리라.

우부(愚夫)도 알며 헌거니 그 아니 쉬온가  
성인(聖人)도 못 다 헌시니 그 아니 어려운가  
쉽거나 어렵거나 중에 늙는 줄을 몰래라.

- 이황,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 -

\* 연하(煙霞): 안개와 노을.

\*\* 순풍(淳風): 순박한 풍속.

\*\*\* 소쇄(瀟灑): 기운이 맑고 깨끗함.

42. [A]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와 거리가 가장 먼 것은? (2005 수능)

① 십 년(十年)을 경영(經營)헌여 초려삼간(草廬三間) 지여 내니  
나 헌 간 둘 헌 간에 청풍(淸風) 헌 간 맞겨 두고  
강산(江山)은 들일 디 업스니 둘러 두고 보리라.

- 송준 -

② 말 업슨 청산(靑山)이오 태(態) 업슨 유수(流水) | 로다  
갑 업슨 청풍(淸風)과 임즈 업슨 명월(明月)이로다  
이 둥에 일 업슨 니 몸이 분별(分別) 업시 늙그리라.

- 성혼 -

③ 산수간(山水間) 바회 아래 뛰집을 짓노라 헌니  
그 모론 늙들은 웃는다 헌다마는  
어리고 하암의 뜻에는 내 분인가 헌노라.

- 윤선도, 「만흥 1」 -

④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 사름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못룰 것가.  
 - 정극인, 「상춘곡」 -

⑤ 7올이 부족(不足)거든 봄이라 유여(有餘)하며,  
 주머니 뷔였거든 병(瓶)의라 담겨시랴.  
 빈곤(貧困)흔 인생(人生)이 천지간(天地間)의 나뿐이라,  
 기한(飢寒)이 절신(切身)하다 일단심(一丹心)을 이질는가.  
 - 박인로, 「누항사」 -

정답 : ⑤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2번

[A]의 작품은 이항의 ‘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입니다. ‘도산십이곡’은 조선 전기에 창작된 연시조입니다. 연시조의 특징은 전체(이 작품의 경우 12수)가 동일한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의미나 내용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조와 같이 개별 작품들은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과 42번 답지에 제시한 작품들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정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42번 [A]의 작품은 ‘도산십이곡’의 ‘언지(言志) 2’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자연을 노래한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江湖詩歌)’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강호시이란 ‘혼탁한 세속의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강호 자연 속에서 심성을 기르며 유유자적한 삶을 그리는 일군의 시가 작품’을 지칭합니다. 이 작품 역시 강호시가의 전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중장의 ‘병(病)’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질병’이 아닌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깊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연시조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명한다면, ‘언지 1’의 종장에 제시되어 있는 ‘천석고황(泉石膏肓)’이란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 속에서 생활하면서 ‘허름’

이나 없이 살겠다는 것이 화자의 태도입니다. 문항과 관련하여 이 작품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자연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화자의 정서입니다. 자연 속에서 지내는 화자의 태도는 속세에서 지내는 사람들과 대비해서 은연중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요체입니다.

이제 답지의 작품들을 살펴볼까요? 대체로 답지 ①~③까지의 작품들은 모두 전형적인 ‘강호시가’ 작품으로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태도와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A]나 답지 ①~③의 작품에서는 화자의 자족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때로는 세속의 화려한 생활과 다른 자연 속에서의 삶을 ‘안빈(安貧)’이라는 표현 속에 감추어 두고 있습니다. 대체로 조선 전기 사대부들의 작품에 드러나는 ‘안빈(安貧)’은 실질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연 속에서의 삶을 보다 도드라지게 하려는 ‘수사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A]나 답지 ①~③의 작품은 모두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지 ④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자연 속에서 지내는 화자의 생활을 ‘세속의 사람들(홍진에 못친 분네)’의 삶과 대비하여 그 자족감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A]나 자연 속에서의 ‘지극한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답지 ④의 ‘상춘곡’ 부분은 답지 ①~③에서 제시된 작품들과 유사한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지 ⑤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학사에서 박인로의 ‘누항사’는 사대부들의 작품 중에서 매우 독특한 내용과 정서를 지니고 있다고 논의되고 있습니다. 인용된 부분을 보면, ‘빈곤한 인생’이나 ‘기한이 절신’이라는 표현을 통해 시적 화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심(丹心)’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변함없는 마음’ 혹은 더 나아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사 이의제기자의 의견처럼 ‘단심’이 ‘안빈일념(安貧一念)’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 작품의 의미를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 [A]와 동일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난’이 나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안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가난이 관념적인 수사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궁핍상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④에는 [A]와 달리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A]의 ‘이 중에 브라는 일은 허물이나 업고자.’에 자신의 삶에 대한 은근한 자부

심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또한 ①~③의 작품들에도 마찬가지로 자부심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문제의 [A]나 답지 ①~③은 화자 자신의 입장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답지 ④는 속세의 사람들과 화자의 처지를 대비하는 방식으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시적 화자의 정서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면에 나타난 그대로 화자의 경제적 궁핍상을 제시하고 있는 답지 ⑤와는 시적 화자의 정서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 -2006 6월 평가원 24번 문항

백호산군이 왈,

“대개 만물의 경중을 알고자 할진대 저울만 같음이 없고, 송사의 곡직을 알진대 양쪽의 말을 들음만 같음이 없나니, 한 쪽의 말만 듣고 선불선(善不善)을 가벼이 판결치 못할지라. 소진\*의 말로써 진나라를 배반함이 어찌 옳다 하며 장의\*의 말로써 진나라를 섬김이 어찌 그르다 하리오. 소장(訴狀) 양쪽의 말을 같이 들은 연후에야 종횡을 꿰히 결단하리니, 다람쥐는 우선 옥으로 내리고 서대쥐를 즉각 잡아 와서 상대한 연후에 가히 밝게 분변하리라.”

하고, 오소리와 너구리 두 형졸로 하여금 서대쥐를 빨리 잡아 대령하라 분부하니 두 짐승이 명을 듣고 나올새 오소리가 너구리더러 일러 왈,

“내 들으니 서대쥐 재물이 많으므로 심히 교만하매 우리 매양 괴악히 알아 버르던 바이러니, 오늘 우리에게 걸렸는지라. 이놈을 잡아 우리를 괘시하던 일을 분풀이하고 또 소송당한 쪽 전례는 위에서도 아는 바라. 수백 냥이 아니면 결단코 놓지 말자.”

하고 둘이 서로 약속을 정하고, 호호탕탕한 기분을 발호하고 예기는 맹렬하여 바로 구궁산 팔괘동에 이르러 토굴 밖에서 소리 높여 부르며 가로되,

“서대쥐 고소를 당함에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패자(牌子)\*를 가지고 잡으러 왔나니 서대쥐는 빨리 나오고 지체 말라.” 독촉이 성화 같은지라.

비복들이 이 말을 듣고 혼백이 흩어져 버리는 듯 놀라서 급급히 들어가서 서대쥐께 연유를 고할새 서대쥐 호흡이 급해지고 땀이 배어 등을 적시는지라. 모든 쥐들이 이를 보고 눈을 둥글고 두 귀 발록발록하여 허둥지둥하거늘 서대쥐 왈,

“너희들은 놀라지 말라. 옛말에 일렸으되 칼이 비록 비수라도 죄 없는 사람은 해치지 못한다 하였으니 우리 본디 죄를 범한 바 없는지라 무엇이 두려우리오.”

인하여 자손과 노복쥐를 데리고 토굴 밖으로 나오니 오소리와 너구리가 서대쥐 나

음을 보고 더욱 의기양양 하는지라. 서대쥐 오소리를 보고 혼연히 웃어 가로되,

“오 별감은 그 사이 평안하셨느뇨. 나는 층암절벽 한 곳에 토굴을 의지하고 그대는 천봉만학 절승처에 산군을 모시니 유현(幽顯)\*의 길이 다른지라. 마음은 항상 그 옥하나 승안접사(承顔接事)\*를 일차 부득하더니 오늘 관고(官故)로 말미암아 누추한 곳에 왕림하여 의외로 청안(淸眼)을 대하니 패자에차는 서서히 수작하려니와 일배 박주(薄酒)\*를 잠깐 나누기를 바라노니 허락함이 어떠리오.”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 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서대쥐더러 왈,

“우리 백호산군의 명을 받아 서대쥐와 다람쥐로 더불어 재 판코자 하여 빨리 잡아오라 분부 지엄하니 빨리 행함이 옳거늘 어찌 조금이나 지체 하리오.”

장자쥐 왈,

“오 별감 말씀이 옳은지라, 어찌 두 번 청함이 있으리오마는 성인도 권도(權道)함이 있나니 원컨대 오 별감은 두 번 살피라.”

모든 쥐들이 일시에 간청하며 서대쥐는 오소리의 손을 잡고 장자쥐는 너구리를 붙 들고 들어가기를 청하니,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만일 들어가는 경우에는 죄인 다루는 데 거북할 테니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리고 기왕 뇌물을 받으려면 툭툭히 실속을 차려야 한다.’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관령은 지엄하고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느 때에 술 마시고 놀며 희롱하리오. 관령이 엄한 줄 알지 못하고 다만 일배 박주에 팔려 형장(刑杖)이 이 몸에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못하는가. 나는 굴 밖에 있으리니 빨리 다녀오라.”

하고 말을 마치며 나와 수풀 사이에 앉아 종시 들어가지 않는지라. 서대쥐 이 말을 듣고 오소리더러 너구리를 청하라 권하매, 오소리 나아가 너구리를 이끌어 가로되,

“서대쥐 이처럼 간청하거늘 어찌 차마 거절하리오. 잠깐 들어가 동정을 봄이 좋도다.”

너구리 가로되,

“그러면 전례는 어찌한다 하느뇨.”

오소리가 너구리 귀에 대고 대강 이르니, 너구리 그제야 오소리와 더불어 가니 화려한 누각이 굉장한지라. 전각에 올라 서대쥐와 더불어 좌정 후에 다람쥐 송사한 일을 두어 마디 수작하더니 얼마 안 되어 안으로서 주찬이 나오는지라. 잔을 잡아 서로 권할새 수십 배를 지난 후에, 장자쥐 화각(畵角) 모반에 황금 스무 냥을 담아 서대쥐 앞에 드리니, 서대쥐 황금을 가져 오소리 앞으로 밀어 놓으며 가로되,



“이것이 대접하는 예는 아니나 서로 정을 표할 것이 없으며 마음에 심히 무정한고로 소소한 물건으로 옛정을 표하나니 두 분 별감은 혐의치 말고 나의 적은 정성을 거두소서.”

오소리 웃으며 알,

“서대쥐의 관대함이 감사하던 중 이같이 후의를 끼치시니 받는 것이 온당치 못하오나 감히 물리치지 못할지라. 그러나 서대쥐는 조금도 염려치 말고 다람쥐와 결송케 하면 내일 재판할 때에 우리 둘이 집장(執杖)할 터이니 어찌 다람쥐를 중죄(重罪)하여 서대쥐의 분풀이를 못하리오.”

하고 인하여 서대쥐와 더불어 떠나더라.

- 작자 미상, 「서동지전(鼠同知傳)」 -

- \* 소진, 장의: 중국 전국시대에 활약한 달변의 정치가.
- \* 패자: 지위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주는 글.
- \* 유현: 사람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곳과 눈에 띄는 곳.
- \* 승안접사: 웃어른을 만나 뵙는 일.
- \* 박주: 맛이 좋지 못한 술.

2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인물이 처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회상 형식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④ 섬세하고 치밀한 묘사로 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 ⑤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의 심리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정답 : ⑤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24번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난다는 말은 독자가 서술자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문에서 다음 두 대목을 보겠습니다.

(ㄱ) 오소리는 본디 마음이 순한지라, 서대쥐의 대접이 심히 관후함을 보고 처음에 발발하던 마음이 춘산에 눈 녹듯이 스러지는지라.

(ㄴ) 너구리는 본래 음흉한 짐승이라 심중에 생각하되 … 하며 소매를 떨치고 거짓 노왈

(ㄱ)과 (ㄴ)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앞선 상황에 대한 판단, 인물의 심리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요약 등을 통해 작품에 폭넓게 개입하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여러 가지 방식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 -2006 6월 평가원 40번 문항

발명의 이론으로 알려진 트리즈(TRIZ)는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으로서, 구 소련의 겐리히 알츠슐러에 의하여 탄생하였다. 그는 4만 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우수한 특허는 모두 모순을 극복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 후, 알츠슐러는 모순의 극복이라는 관점에서 연구를 계속한 끝에 모순을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으로 유형화하여 그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게 되었다.

기술적 모순이란 두 개의 기술적 변수의 값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다. 가령 비행기의 속도를 높이려면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해야 한다. 그런데 출력을 높이려면 엔진이 커져야 하고, 그에 따라 엔진은 무거워진다. 결국 출력이 높은 엔진을 장착하면 비행기의 무게가 증가하여 속도는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가벼운 엔진을 장착하면 출력의 한계 때문에 속도를 증가시키기 어렵다.

트리즈에는 이와 같은 기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40가지 발명의 원리가 있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기술 문제에 발명의 원리를 하나씩 적용한다면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비행기의 속도 문제 해결에 ‘복합 재료를 사용하라’는 40번째 발명의 원리가 적용된 예가 있다. 당시, B1 폭격기의 무게를 줄여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받은 항공기 제작 회사는 금속 재료 대신 에폭시 계열의 플라스틱 복합 재료로 비행기의 날개를 만들어 폭격기 전체 무게의 15%를 줄였으며 비용도 절감하였다. 이렇게 무게가 줄면 동일한 엔진으로도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한편, 물리적 모순이란 하나의 변수가 서로 다른 값을 동시에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예컨대, 비행기는 이착륙 시에 바퀴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비행 중에는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바퀴가 없어야 하는 모순을 갖는다. 비행 중에도 바퀴가 동체에 그대로 붙어 있는 초창기 비행기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오늘날 초음속 비행기에서 동체의 바퀴는 엄청난 공기 저항을 유발하여 치명적인 사고를 불러올 수 있

으므로 비행 중에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이러한 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알츠슐러는 ‘시간에 의한 분리’ 등 몇 가지의 원리를 제안하였다. 시간에 의한 분리를 설명하기 위해 앞에서 예로 든 비행기 바퀴의 문제를 생각해 보자. 우선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퀴로 ㉔활주로를 달린다. 비행기가 완전히 이륙하면 바퀴를 동체에 접어 넣어 비행 중에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 문제는 해결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을 누구나 쉽게 알아내고 쉽게 풀어낼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현장에서 기술자가 우선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기술적 모순이다. 그런데 기술적 모순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물리적 모순이 문제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㉔길이다.

40. 위 글을 근거로 하여 만든,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 6월 평가원)

- ①발명은 모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트리즈로 발명왕, 특허왕에 도전하세요.
- ②발명은 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트리즈 동아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 보세요.
- ③발명은 모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과학에 관심 있는 신입생은 특별히 환영합니다.
- ④발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업들의 끝없는 스카웃 행렬, 트리즈 동아리만의 자랑입니다.
- ⑤ 발명은 성공의 열쇠입니다. 전국 대회에서 3년 연속 수상한 트리즈 동아리가 새내기를 기다립니다.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0번

이 글을 근거로 하여 발명 동아리 회원 모집의 홍보 문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이 글이 발명의 이론인 트리즈 이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리즈 이론에서는 발명을 위하여 일반적인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순을 발견하여 그것을 극복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발명 동아리 홍보 문구에서는 트리즈 이론의 이런 특성을 잘 드러내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트리즈 원리를 사용하는 데 상당한 훈련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지, 단순히 훈련과 경험을 통해 발명이 가능하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발명에 경험이 필요하다는 명시적인 진술이 이 글에 나타나 있지 않다는 점에서 ②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2006 6월 평가원 41번 문항**

41. ㉠, ㉡의 관계는 <보기>와 같다. 밑줄 친 단어들이 ㉠, ㉡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1점]

<보 기>

㉠는 어떤 단어 W의 하위어이고, ㉡는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 ① 동해를 지나가는 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 ②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 ③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 ④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어.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 ⑤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정답 : ④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1번**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면 정답이 ③이라는 것과 ‘추상화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나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답이 ㉓이라는 근거로 ‘해바라기’가 ‘꽃’의 하위어이고 ‘씨앗’은 추상화된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해바라기’가 ‘꽃’의 하위어인 것은 분명하지만 ‘꽃’과 ‘씨앗’은 <보기>의 조건과 맞지 않습니다. <보기>에서는 분명히 ㉔가 어떤 단어 W에서 의미가 추상화되었다고 했으므로 W가 ‘꽃’이 될 경우 ㉔는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추상화된 것’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상화’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상화(抽象化) : 「명」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되거나 함.

‘추상적’이라는 말을 다시 찾아보면 아래와 같이 뜻풀이되어 있습니다.

추상적(抽象的) : 「관」「명」 어떤 사물이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또는 그런 것.

문제의 초점은 W의 ‘꿈’이 추상화된 것이 ㉔의 ‘꿈’인가 하는 점입니다. ‘꿈’의 국어사전 뜻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꿈 : 「명」「1」잠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 「2」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

위의 뜻풀이에 따르면 W의 ‘꿈’은 ‘잠자는 동안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듣는 정신 현상’이고 ㉔의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입니다. 위의 ‘추상적’의 뜻풀이를 보면 ‘추상적’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느끼고 겪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인 W의 ‘꿈’이 추상화되어 ㉔의 ‘희망’이나 ‘이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꿈’은 다의어가 되므로 ‘다의어가 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추상화’라고 표현한 것은 ‘길(도로)→길(방법)’과 같이 의미가 확장되는 경우 ‘의미의 추상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불리는 가곡의 종류는 모두 41곡으로 남자가 부르는 남창(男唱)에 26곡, 여자가 부르는 여창(女唱)에 15곡이 있다. 그러나 그 레퍼토리는 무한정 늘어날 수 있는데, 한 가지의 선율에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시조시(時調詩)를 ㉠엮어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초삭대엽(初數大葉)’이라는 곡이 있다면, 그것의 선율에 ‘동창이 밝았느냐……’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하고, 다른 시조인 ‘동짓달 기나긴 밤을……’의 가사를 엮어 부르기도 한다. 이것은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노래 가사 바꾸기’와 유사하다.

실제 노래를 부를 때는 맨 첫 곡인 ‘초삭대엽’부터 끝 곡인 ‘태평가’까지 한꺼번에 이어서 부르는 연창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연창의 무대를 ㉡접하기는 힘들고 프로그램에 가곡을 한두 곡 정도 끼워 넣어 들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곡의 장단에는 16박(拍)과 10박의 두 가지가 있다. 장단은 장구로 치는데, 북판을 치지 않고 주로 변죽을 쳐 다른 악기들과의 음량을 조절한다. 16박과 10박 모두 10점(點)으로 장단을 친다. 그래서 ‘10점 16박’, ‘10점 10박’ 등으로 일컫는다. 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장구에 손이 가서 소리를 내는 타점(打點)이 10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16박과 10박에는 장단의 기본 형태인 덩(), 쿵(), 덕(), 기덕(), 더러러() 등이 10번 들어 간다는 말이다.

위의 그림에서 10점 16박의 빠르기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한 칸이 서양 음악의 빠르기를 기준해서 20~40이다. 음악의 빠르기는 특정 음표 하나를 1분에 지정하는 수만큼 연주하라는 것이다. 빠르기가 20이라면 1박은 3초가 소요되고, 30이라면 1박은 2초가 된다. 보통 빠르기가 90~110 정도인 서양 음악과 비교하면 가곡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실제 가곡을 들어 보면, 그 가사 내용을 알아듣기가 힘들다.

이처럼 가곡의 가사를 알아듣기 어려운 데는 노래 가사에 한문구(漢文句)가 종종 등장하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이지만, 무엇보다도 노래 가사가 모음 변화를 하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즉, ‘아’는 ‘아으’로, ‘에’는 ‘어으이’ 등으로 발음한다. ‘청석령’이라는 노래 가사는 ‘청서—호—억려——으’로 부르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쫓아가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가곡이 성행하던 시대에도 그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가곡이란 명칭도 가사를 노래한다기보다, 곡조를 노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금 인내하며 눈을 지그시 감고, 첫 곡인 ‘초삭대엽’을 한번 끝까지 감상해 보라. 곡의 중반부를 ㉣지나기도 전에 시시콜콜한 일상의 잡념들은 사라지고, 해질녘의 고즈넉한 평온이 조용히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곡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그 감흥에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이누이트(에스키모) 하면 연상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글루이다. 그들의 주거 시설에는 빙설을 이용한 집 외에도 목재나 가죽으로 만든 천막 등이 있다. 이글루라는 말은 이러한 주거 시설의 총칭이었으나, 눈으로 만든 집이 외지인의 시선을 끌어 그것만 일컫는 말이 되었다. 이글루는 눈을 벽돌 모양으로 잘라서 반구 모양으로 쌓은 것이다. 눈 벽돌로 만든 집이 어떻게 얼음집으로 될까? 이글루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할까?

일단 눈 벽돌로 이글루를 만든 후에, 이글루 안에서 불을 피워 온도를 높인다. 온도가 올라가면 눈이 녹으면서 벽의 빈틈을 메워 준다. 어느 정도 눈이 녹으면 출입구를 열어 물이 얼도록 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눈 벽돌집을 얼음집으로 변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눈 사이에 들어 있던 공기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얼음 속에 갇히게 된다. 이글루가 뿌옇게 보이는 것도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기체에 부딪힌 빛의 산란 때문이다.

이글루 안은 밖보다 온도가 높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글루가 단위 면적당 태양 에너지를 지면보다 많이 받기 때문이다. 이것은 적도 지방이 극지방보다 태양 빛을 더 많이 받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다른 이유로 일부 과학자들은 온실 효과를 든다. 지구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부분은 자외선, 가시광선 영역의 단파이지만, 지구가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영역의 장파이다. 단파는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지만, 복사파인 장파는 지구의 대기에 의해 흡수된다. 이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데, 온실 유리가 복사파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이글루도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장파인 복사파가 얼음에 의해 차단되어 이글루 안이 따뜻한 것이다.

이글루 안이 추울 때 이누이트는 바닥에 물을 뿌린다. 마당에 물을 뿌리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을 것이다. 여름철 마당에 뿌린 물은 증발되면서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시원해지는 것이지만,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은 곧 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올라간다. 물의 물리적 변화 과정에서는 열의 흡수와 방출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 찬물보다 뜨거운 물을 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바닥에 뿌려진 뜨거운 물은 온도가 높고 표면적이 넓어져서 증발이 빨리 일어나고 증발로 물의 양이 줄어들어 같은 양의 찬물보다 어느 온도까지 빨리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누이트가 융해와 응고, 복사, 기화 등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글루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눈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으며, 또한 물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였다. 이글루에는 극한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터득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3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이글루의 건축 과정에서 ㉠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 수능)

- ① 이글루 안에 피운 불
- ② 이글루 바닥에 뿌린 물
- ③ 얼음벽을 통과한 태양 빛
- ④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
- ⑤ 이글루 안에서 발생한 복사파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9

이 문항은 이글루 건축 과정에서 눈 벽돌을 서로 붙여 주는 접착제의 구실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접착제란 두 물체를 서로 붙이는 데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눈 벽돌을 이루고 있는 눈이 열에 의해 녹았다가 얼면서 눈 벽돌을 서로 붙여 주는 접착제의 구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 벽돌 사이에서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불의 열에 의해 융해되는 눈’입니다.

‘이글루 안에 피운 불’은 눈이 접착제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할 뿐, ‘이글루 안에 피운 불’ 자체가 접착제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접착제 구실을 한다면, 눈 벽돌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이어야 하는데, 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옵션(option)’이라면 금융 상품을 떠올리기 쉽지만, 알고 보면 우리 주위에는 옵션의 성격을 갖는 현상이 참 많다.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옵션은 ‘미래의 일정한 시기(행사 시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 가격)으로 어떤 상품(기초 자산)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역사에 등장하는 최초의 옵션은 고대 그리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하학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탈레스는 올리브유 압착기에 대한 옵션을 개발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사람들은 올리브에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압착기를 빌려야 했다. 탈레스는 파종기에 미리 조금의 돈을 주고 수확기에 일정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사 두었다. 만약 올리브가 풍작이면 압착기를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임대료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탈레스는 파종기에 계약한 임대료로 압착기를 빌려서, 수확기에 새로 형성된 임대료로 사람들에게 빌려줌으로써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다. 하지만 흉작이면 압착기를 빌릴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탈레스가 파종기에 계약을 통해 사 둔 권리는 그 성격상 ‘살 권리’라는 옵션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다. 즉, 미래에 기초 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 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권리를 사기 위해 지급하는 돈, 즉 ‘옵션 프리미엄’은 이러한 보장을 제공 받기 위해 치르는 비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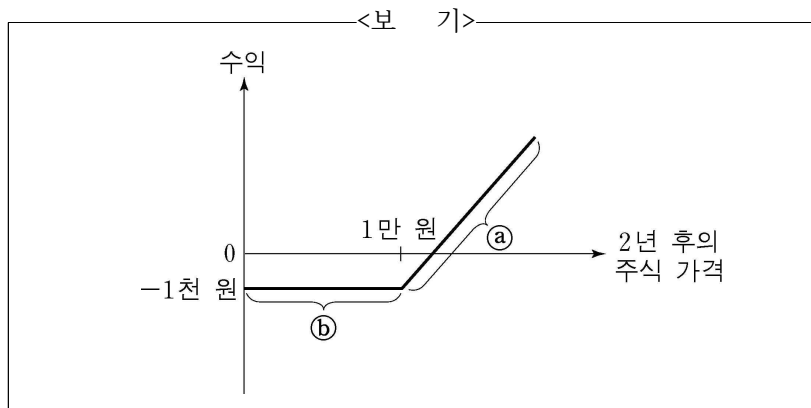
옵션 가운데 주식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주식 옵션의 사례를 살펴보면 옵션의 성격을 이해하기가 한층 더 쉽다. 가령,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A]

여기서 주식 옵션을 가진 사람의 수익이 기초 자산인 주식의 가격 변화에 의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경영자에게 주식 옵션을 유인책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영자가 옵션을 지급받는 대신 포기한 현금을 옵션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 준다. 이 때문에 옵션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해 주는 위험 관리 수단일 수 있다. 하지만 옵션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옵션은 보유자로 하여금 더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예컨대 주식을 살 권리를 가진 경영자의 경우에는 기초 자산의 가격을 많이 올릴 가능성이 큰 사업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만, 그런 사업일수록 가격을 많이 하락시킬 확률도 높기 때문이다. 옵션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주주와 경영자의 행동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는 데 무척 중요하다.

54.[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
- ② b는 주식 가격이 아무리 낮아져도 손실은 일정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③ b의 모양이 수평인 것은 구입한 주식 옵션을 행사하였기 때문이다.
- ④ b가 세로축의 0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것은 옵션 프리미엄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⑤ a와 b의 모양이 다른 것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정답 : ③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54

54번 문항의 문두는 다음과 같습니다.

“[A]에서 2년 후의 상황을 <보기>의 그래프로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리고 지문의 [A]는 다음과 같습니다.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 2년 후에 그 회사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이 옵션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1만 5천 원이라면 1만 원에 사서 5천 원의 차익을 얻게 되므로 옵션 구입 가격 1천 원을 제하면 수익은 주당 4천 원이 된다. 하지만 1만 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옵션을 포기하면 되므로 손실은 1천 원에 그친다.”

선택지 ③번이 적절하지 못한 설명이므로 정답이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택지 ①번, “㉠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준다.”도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이의가 있었습니다.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고, 1만 원에 못 미치면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주식 가격이 1만 1천 원을 넘는다면 플러스의 수익, 즉 이득이 발생하겠지만, 옵션을 행사할지 포기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행사 시기인 2년 후의 주식 가격이 미리 정해진 가격, 즉 행사 가격인 1만 원을 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1만 원이 넘지만 1만 1천 원에는 못 미치는 경우에도 옵션을 구입한 가격 1천 원보다는 손실을 줄일 수 있으므로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욱이 선택지 ①번의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문장은 지문의 [A]에 나타난 서술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1만 원이 넘는데도 옵션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래프는 ㉠과 같이 주식 가격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익도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되지 않고, ㉡와 같이 수익이 -1천 원의 수준에 머무는 수평선의 모양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에서 ㉠과 같이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는 구간에서 수익이 올라가는 모양으로 표현된 것은 주식 가격이 1만 원을 넘으면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옵션을 구입한 이후의 상황과 비교’하면 선택지 ①번이 적절한 설명일 수 있지만, ‘옵션을 구입하기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면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리하다’의 주어는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이지 ‘옵션을 구입하는 것이’가 아닙니다. 더욱이 문두에서 ‘[A]에서 2년 후의 상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A]의 첫 문장에서 “2년 후에 어떤 회사의 주식을 한 주당 1만 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지금 1천 원에 샀다고 하자.”라고 하여 옵션을 구입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였습니다. 따라서 옵션을 구입한 상황에서 옵션을 행사할지 포기할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은 1만 원이 맞습니다.

요약하자면, 선택지 ①번의 문장은, 옵션 구매자가 옵션을 행사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즉 ‘행사 가격’이 미리 정한 가격, 즉 1만 원이라는 지문의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서술한 것이며, 주식 가격이 오를수록 수익도 늘어나는 ㉔와 같은 모양의 직선의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2006 수능 56번 문항

[앞의 줄거리]

광복 직후, 이명준은 남한과 북한 사회 모두에 환멸을 느낀다. 6.25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된 명준은 석방 과정에서 남도 북도 아닌 중립국을 선택하고, 배를 타고 제삼국으로 떠난다.

지금 그의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이든지 바라보면서, 자기 안에 있는 빈 데를 메우지 않으면,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다. 얼마를 그러고 있다가 또 뱃간으로 돌아온다. 방은 아까처럼 비어 있다.

자기 자리로 올라간다. 자려고 해서가 아니다. 그저 찾는 것도 없이, 머리맡을 어물어물 더듬는다. 손에 딱딱한 물건이 잡힌다. 부채다. 문간에서 기척이 난다.

얼른 돌아다보았으나, 아무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되도록 천천히 다락에서 내려와, 마루에 내려선다. 무슨 할 일이 없는가 찾는 사람처럼, 두리번거린다. 방 안에 새삼스레 그의 주의를 끌 만한 것은 없다. 발끝으로 살살 밀어서 유리 조각을 한곳에 모으고, 짹 밟는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 더 힘 있게 밟는다. 그만한 힘으로 발바닥을 올려 밀 뿐, 우리는 바스러질 대로 바스러진 모양인지, 꿈쩍도 않는다. 북도로 나선다. 북도에도 인기척은 없다. 선장실로 올라간다. 선장은 없다. 벽장 문을 연다. 총이 제자리에 세워져 있다. 벽장문을 닫는다. 서랍을 열고, 아까 선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처 돌려놓지 못한 총알을 제자리에 놓는다. 몹시 중요한 일을 마친 사람처럼, 훌가분해진다. 테이블로 가서 해도를 들여다본다. 이 배가 밝아 온 자국이 연필로 그려져 있다. 선장이 하는 것처럼 컴퍼스를 손가락으로 꼬나 잡고, 해도 위를 재 보는 시늉을 한다. 한

참 장난을 하다가 컴퍼스를 던져 버린다. 그때 여태까지 한 손에 부채를 들고 있었는데 사실을 처음 안다.

아까, 침대에서 손에 잡힌 대로, 들고 온 것이다. 의자에 걸터앉아서 부채를 쭉 편다. 바다가 있고, 갈매기가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

……펼쳐진 부채가 있다. 부채의 끝 넓은 테두리 쪽을, 철학과 학생 이명준이 걸어 간다. 가을이다. 겨드랑이에 낀 대학신문을 꺼내 들여다본다. 약간 자랑스러운 듯이. 여자를 깔보지는 않아도, 알 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기고 있다.

책을 모으고, 미라를 구경하러 다닌다. 정치는 경멸하고 있다. 그 경멸이 실은 강한 관심과 아버지 일 때문에 그런 모양으로 나타난 것인 줄은 알고 있다. 다음에, 부채의 안쪽 좀 더 좁은 너비에, 바다가 보이는 분지가 있다. 거기서 보면 갈매기가 날고 있다. 윤애에게 말하고 있다. 윤애 날 믿어 줘. 알몸으로 날 믿어 줘. 고기 썩는 냄새가 역한 배 안에서 물결에 흔들리다가 깜빡 잠든 사이에, 유토피아의 꿈을 꾸고 있는 그 자신이 있다. 조선인 콜호스\* 숙소의 창에서 불타는 저녁놀의 힘을 부러운 듯이 바라보고 있는 그도 있다. 구겨진 바바리코트 속에 시래기처럼 바랜 심장을 안고 은혜가 기다리는 하숙으로 돌아가고 있는 9월의 어느 저녁이 있다. 도어에 뒤통수를 부딪히면서 악마도 되지 못한 자기를 언제까지나 웃고 있는 그가 있다. 그의 삶의 터는 부채꼴, 넓은 데서 점점 안으로 오므라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은혜와 둘이 함께 있던 동굴이 그 부채꼴 위에 있다. 사람이 안고 뒹구는 목숨의 꿈이 다르지 않느니. 어디선가 그런 소리도 들렸다. 그는 지금, 부채의 사복\*\*자리에 서 있다. 삶의 광장은 좁아지다 못해 끝내 그의 두 발바닥이 차지하는 넓이가 되고 말았다. 자 이제는? 모르는 나라, 아무도 자기를 알 리 없는 먼 나라로 가서, 전혀 새사람이 되기 위해 이 배를 탔다.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기 성격까지도 마음 대로 골라잡을 수도 있다고 믿는다. 성격을 골라잡다니! 모든 일이 잘 될 터이었다. 다만 한 가지만 없었다면. 그는 두 마리 새들을 방금까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무덤 속에서 몸을 푼 한 여자의 용기를, 방금 태어난 아기를 한 팔로 보듬고 다른 팔로 무덤을 깨뜨리고 하늘 높이 치솟는 여자를, 그리고 마침내 그를 찾아내고야 만 그들의 사랑을.

돌아서서 마스트\*\*\*를 올려다본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다.

바다를 본다. 큰 새와 꼬마 새는 바다를 향하여 미끄러지듯 내려오고 있다. 바다. 그 녀들이 마음껏 날아다니는 광장을 명준은 처음 알아본다. 부채꼴 사복까지 뒷걸음질 친 그는 지금 핑그르르 뒤로 돌아선다. 제정신이 든 눈에 비친 푸른 광장이 거기 있다.

자기가 무엇에 홀려 있음을 깨닫는다. 그 넉넉한 뱃길에 여태껏 알아보지 못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피하려 하고 총으로 쏘려고까지 한 일을 생각하면, 무엇에 썩었던 게 틀림없다. 큰일 날 뻔했다. 큰 새 작은 새는 좋아서 미칠 듯이, 물속에가라앉을 듯, 탁스치고 지나가는가 하면, 되돌아오면서, 그렇다고 한다. 무덤을 이기고 온, 못 잇을

고운 각시들이, 손짓해 부른다. 내 딸아. 비로소 마음이 놓인다. 옛날, 어느 별판에서 겪은 신내림이, 문득 떠오른다. 그러자, 언젠가 전에, 이렇게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별판을 지금처럼 떠올린 일이, 그리고 딸을 부르던 일이, 이렇게 마음이 놓이던 일이 떠올랐다. 거울 속에 비친 남자는 활짝 웃고 있다.

- 최인훈, 「광장」-

\*콜호스:구소련의 집단 농장.

\*\* 사복: 접었다 폈다 하는 부채의 아랫머리나 가위다리의 교차된 곳에 박아 돌쩌귀처럼 쓰이는 물건.

\*\*\* 마스트: 돛대.

56. 위 글의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2006 수능)

- <보 기>
- ㄱ. 풍자적 어조를 통해 이야기의 비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 ㄴ. 서술의 초점을 한 인물에 맞추어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ㄷ.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 ㄹ.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일상적 삶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①ㄱ, ㄴ ②ㄱ, ㄹ ③ㄴ, ㄷ ④ㄴ, ㄹ ⑤ㄷ, ㄹ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56

56번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항입니다. 이의가 제기된 것은 <보기>의 ㄷ과 ㄹ입니다.

1. <보기>의 ㄷ과 관련하여 이의가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작중 인물의 회상이 아니라 말을 하는 주체가 화자(작가)라는 이의 제기

(나) 과거 회상은 맞지만,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킨다기보다는 단편적인 사진처럼 극한 상황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이라는 이의 제기

(다)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거 회상이 아니라

상징적인 몽상의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의 제기

(가)에 대해 : 지문에서 서술자는 이명준의 과거 이야기를 ‘직접 요약 설명’하지 않고, 작중 인물의 ‘회상 방식’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문을 보면,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다가, 스르르 눈을 감는다. 머릿속으로 허허한 별판이 끝없이 열리며, 희미한 모습이 해돋이처럼 차츰 떠올라 온다.”라는 문장에 뒤이어 과거 회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즉, 서술자가 직접 이명준의 과거를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명준이라는 작중 인물의 회상을 통해 지난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 : 지문은, ‘이명준이 처한 현재 상황(배 안에서 불안해 하는 행동)→그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부분)→그 상황의 결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곧,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면서, 현재 상황과 그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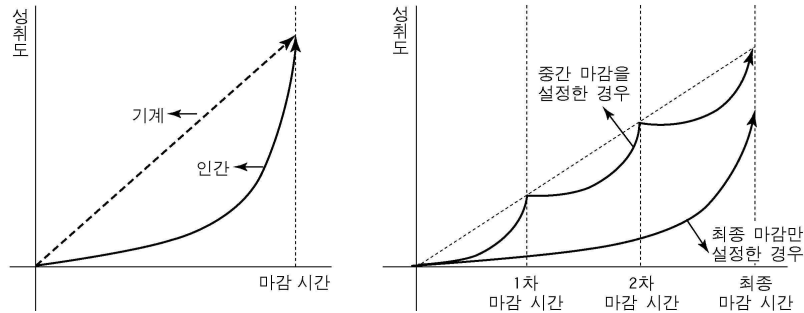
(다)에 대해 : ‘몽상’의 의미는 ‘실현성이 없는 꿈같이 허황한 생각’입니다. 지문의 회상 내용을 보면 그것이 결코 ‘몽상’이 아니라 이명준이 살아온 과거 삶의 경험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회상’은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의미인데, 이명준은 배 안에서 부채를 폈다 접었다 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2. <보기>의 ㄹ이 타당한 진술이라는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즉, 이 지문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해서 ‘일상적 삶’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문에서 현재형 어미가 사용되고는 있지만, 그것이 ‘일상적 삶’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은 ‘날마다, 평소, 항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 ‘일상생활에서의 식사’라는 표현을 보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이명준이 배를 타고 가면서, 배 안에서 유리를 뚫고, 총을 제자리에 세워 두는 것 등을 일상적인 삶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명준은 일상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채의 사복자리’로 상징되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ㄹ은 이 지문의 서술상의 특징이 될 수 없습니다.



-2007 6월 평가원 7번 문항

7. 다음 그래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부’에 관한 글을 쓰려고 한다.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2007 6월 평가원)



<보 기>

- ㄱ. 꾸준히 노력하는 것보다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없다.
- ㄴ. 중간에 가끔씩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효과적이다.
- ㄷ.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느 시기에 있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다르다.
- ㄹ.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일별, 주별 공부량을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 ⑤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7

왼쪽 그래프는 마감 시간까지 기계와 인간의 작업 유형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기계와 달리 인간은 마감 시간이 다가올수록 성취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계와 인간의 대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중간 마감을 설정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를 대비적인 상황으로 설정하여 성취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 분석을 ‘효과적인 공부’와 관련지었을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에 해당되는 것은 <보기>의 ‘ㄷ’과 ‘ㄹ’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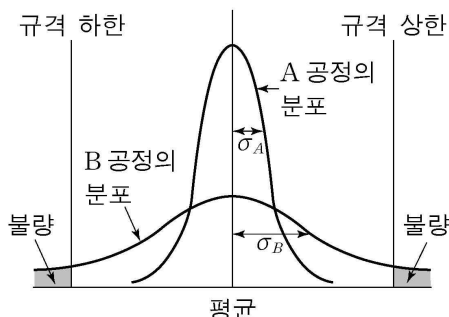
중간 마감을 휴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끔씩 휴식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제시된 두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마감까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성취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쉬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미는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래프에서 기계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선의 제시 여부는 문항의 풀이 과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제시된 그래프를 바탕으로 하여 이끌어 낼 수 있는 논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에 표현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여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 문항을 풀면 안 됩니다.

#### -2007년 6월 평가원 33번 문항

어느 공장에서 길이가 7미터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하자. 이때 가장 이상적인 제품의 길이는 7미터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정이 안정되고 설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생산된 모든 제품의 길이가 하나같이 7미터가 되게 하는 것은 어렵고, 7미터를 중심으로 약간씩 오차를 갖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제품의 품질 특성값은 평균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특성값이 평균에서 멀리 떨어진 제품일수록 생산될 가능성은 점차 줄어든다. 여기서 품질 특성값들이 그 평균에서 떨어져 흩어져 있는 정도를 산포도라고 하며, 산포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표준 편차를 이용한다. 시그마( $\sigma$ )는 표준 편차를 나타내는 기호로 그 값이 작다는 것은 평균을 중심으로 품질 특성값이 덜 흩어져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생산된 제품의 품질이 상대적으로 균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제품에는 나름대로의 규격이 있는데 이 규격은 일반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으로 주어진다. 규격을 벗어나는 제품은 모두 불량품이 된다. 왼쪽의 그림처럼 두 공정 A, B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품질 특성값 평균이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의 중간인 목표값에 모두 일치하였다고 가정하자. A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작아서 규격을 벗어나는 것이 거의 없으나, B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은 산포도가 커서 규격을 벗어나는 불량품이 발생하고 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



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A 공정은 시그마가 작아 그 배수가 큰 반면, B 공정은 시그마가 커서 A 공정에 비해 그 배수는 작다. 이와 같이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 불량률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의 한 회사가 천명한 6 시그마 품질 향상 계획은 기본적으로 규격 하한과 규격 상한이 제품의 규격 평균으로부터 각각 6 시그마의 거리에 위치하도록 공정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이 수준은 10억 개 중에서 2개만이 불량인 것으로 거의 무결점에 가까운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계나 원자재의 특성, 작업 환경 등의 원인에 의하여 품질 특성값의 평균이 목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대략  $\pm 1.5$  시그마까지 흔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6 시그마 수준이 성취되면 불량률은 100만 개 중에서 3.4개 이하로 관리될 수 있게 된다. 이 수치도 충분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6 시그마 수준은 새로운 품질 기준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계적 개념인 6 시그마를 조직이 도달해야 하는 품질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최근에 널리 보급되고 있는 6 시그마 경영의 출발점이다. 6 시그마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6 시그마 경영은 아주 적은 불량에 대해서도 그것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활동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특정한 공정을 바꾸는 것처럼 부분적인 처방보다는 주로 시스템 자체를 개선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필요하다면 6 시그마 수준을 달성하는 데 적합하도록 아예 시스템 전체를 새로 설계하기도 한다. 6 시그마를 도입한 세계적인 기업들은 공통적으로 품질 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이 감소하였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되었고, 고객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33. 위 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품질 관리의 기술은 통계적 개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② 공정의 목표값과 품질 특성값의 평균은 서로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 ③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불량률이 적은 우수한 공정으로 판정하게 된다.
- ④ 6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⑤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표준 편차의 6배이면 공정은 6 시그마 상태에 있다.

정답 : ②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3

먼저 이 문항은 문두에서 드러나듯이 사실 확인이 아니라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요구하는 문항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풀어야 합니다. ②, ③, ⑤번 답지가 이의 제기 내용과 관련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②: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현장에서 품질 특성값의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서는 공정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두 값을 일치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것과 그것들의 평균이 목표값과 일치하느냐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문에서는 두 값이 서로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답지 ②가 정답입니다.

③: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일치하는 상태보다 불량률이 더 많이 발생하지만, 이 때의 원인은 불일치 때문이지 표준 편차 때문은 아닙니다. 표준 편차는 불량률을 좌우하는 또 다른 독립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평균과 목표값이 일치하지 않더라도(세 번째 문단에 나와 있듯이 실제로 평균은 목표값에서  $\pm 1.5$ 시그마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 상태에서 표준 편차가 적을수록 불량률은 줄어듭니다. 따라서 평균과 목표값이 불일치 상태에 있더라도 그 상황에서 표준 편차가 적으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불량률은 줄 것입니다. 이것은 지문에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이므로 타당한 진술입니다.

⑤: 시그마 수준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설명은 두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때”, “평균에서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가 시그마의 몇 배가 되느냐”라고 하여 ‘규격 하한 혹은 규격 상한’을 두 차례나 언급하면서 시그마 수준의 개념이 규격의 어느 한 편과 관련이 있음을 밝혔기 때문에(즉 AND의 개념이 아니라 OR의 개념임을 밝혔기 때문에) 답지 ⑤의 진술이 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빗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순이’가 ㉠이라고 할 때, ‘순이’가 취할 행동과 그 이유로 적절한 것은? (2007 6월 평가원)

—<보 기>—

순이는 오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 중 한 분을 하루 동안 간병하기로 했다. 연세가 더 많으신 외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있고, 친할머니께서는 간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이외에 두 분이 처한 상황 조건은 완전히 동일하다.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가까웠던 순이는 친할머니보다는 외할머니를 더 좋아한다.

- ① 두 분 다 소중하므로 누구를 도와도 상관없다.
- ② 외할머니를 더 좋아하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 ③ 친할머니께서 더 젊으시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④ 친할머니를 간병할 사람이 없으므로 친할머니를 돕는다.
- ⑤ 외할머니께서 연세가 더 많으시므로 외할머니를 돕는다.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9

온건한 공평주의자는 상황이 같을 때에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문의 여섯째 줄에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나와 있듯이, 나이는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병인이 있고 없음은 상황을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기 때문에 순이의 외할머니와 친할머니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순이는 간병인이 없는 친할머니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을의 어느 날이었다. 이미 가끔씩 노환으로 자리보전을 하던 석담 선생은 그날도 병석에서 일어나기 바쁘게 종지와 붓을 찾았다. 그것도 그 무렵에는 거의 쓰지 않던 대필(大筆)과 전지(全紙)였다. 벌써 몇 달째 종지와 붓을 가까이 않던 고죽은 그런 스승의 집착에 까닭 모를 심화를 느끼며 먹을 갈기 바쁘게 스승 곁을 물러나고 말았다. 어딘가 모르게 스승의 과장된 집착에는 제자의 방향을 비웃는 듯한 느낌이 드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동안 뜰을 서성이는 사이에 그는 문득 늙은 스승의 하는 양이 궁금해졌다.

방에 돌아오니 석담 선생은 붓을 연적에 기대 놓고 눈을 감은 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바닥에는 방금 쓰다가 그만둔 것인 듯 ‘萬毫齊力(만호제력)’ 낙 자 중에서 앞의 석 자만이 씌어져 있었다.

“소재(蘇齋)\*는 일흔여덟에 참깨 위에 ‘天下泰平(천하태평)’ 낙 자를 썼다고 한다. 나는 아직 일흔도 차지 않았는데 이 낙 자 ‘萬毫齊力’을 단숨에 쓸 힘도 남지 않았으니…….”

그렇게 탄식하는 석담 선생의 얼굴에는 자못 처연한 기색이 떠올랐다. 그러나 고죽은 그 말을 듣자 억눌렀던 심화가 다시 솟아올랐다. 스승의 그 같은 표정은 그에게는 처연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만함으로 비쳤다.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이 노닐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글송글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我]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들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 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 에 나왔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아버님, 김 군이 왔습니다.”

다시 추수의 목소리가 그를 끝 모를 회상에서 깨나게 하였다. 이어 방문이 열리며 초헌(草軒)의 둥글넓적한 얼굴이 나타났다. 대할 때마다 만득자(晩得子)를 대하는 것과 같이 유별난 애정을 느끼게 하는 제자였다. 사람이 무던하다거나 이렇다할 요구 없이 일 년 가까이나 그가 없는 서실을 꾸러 가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글씨 때문이었다. 붓 쥐는 법도 익히기 전에 행서(行書)를 휘갈기고, 점획 결구(點劃結構)도 모르면서 초서(草書)며 전서(篆書)까지 그려 대는 요즈음 젊은이들 답지 않게 초헌은 스스로 정서(正書)로만 삼 년을 채웠다. 또 서력(書歷) 칠 년이라고는 하지만 칠 년을 하루같이 서실에만 붙어 산 그에게는 결코 짧은 것이 아닌데도 그 봄의 고죽 문하생 합동전에는 정서 두어 폭을 수줍게 내놓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의 글은 서투른 것 같으면서도 이상한 힘으로 충만돼 있어, 고죽에게는 남모를 감동을 주곤 했다. 젊었을 때는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윽하게 느껴지는 스승 석담의 서법을 연상케 하는 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 이문열, 『금시조(金翅鳥)』 -

- \* 소재: 청나라 학자 옹방강의 호.
- \*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
- \* 향상: 상상의 큰 코끼리.



55. 위 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7 6월 평가원)

- ① 예술이 갖는 효용성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군.
- ② 예술의 경지를 깨달아 가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군.
- ③ 예술가로서 스승과 제자의 만남과 헤어짐을 작가는 극적으로 그려 내었군.
- ④ 예술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태도에 대해 작가는 잘못되었다고 말하는군.
- ⑤ 예술을 창조하는 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군.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문항 번호 : 55

이 작품은 스승과 제자의 예술관의 차이를 서사적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고죽은 자신의 스승 석담과 결별했지만, 자신의 제자인 초헌을 만나 그에게서 스승의 예술혼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두 사람이 만나 갈등하고 위기가 증폭된다는 서사적 상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갈등의 제시와 위기 상황의 등장, 그리고 파국이라는 극적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극적이라는 용어는 갈등과 위기, 전환적 파국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답지 ③의 ‘만남과 헤어짐’은 계기적인 관계를 가진 용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대개의 서사 전개에서 인물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글에서 ‘헤어짐’을 극적으로 그려내었으나, ‘만남’을 극적으로 그려내지 않았다는 이해는 ‘만남과 헤어짐’의 계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 -2007 6월 평가원 58번 문항

소리굽쇠는 굽기가 일정한 금속 사각 막대를 U자형으로 구부리고 아래쪽에 쇠기둥을 단단하게 용접한 것으로, 작은 망치로 때리면 일정한 진동수의 음을 발생시키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리굽쇠는 작을수록 높은 음을 낸다. 원래 소리굽쇠는 1711년에 영국의 트럼펫 연주자인 존 쇼어가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음을 내는 도구로 개발한 것이었다. 처음에 사람들은 소리굽쇠가 건반악기의 어떤 음을 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초당 몇 회의 진동을 하는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리굽쇠로 악기를 조율하였기에 지역마다 연주자마다 악기들은 조금씩 다른 기준음

을 가졌다. 소리굽쇠가 정확하게 얼마의 진동수를 갖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정확한 측정 장치가 없는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처럼 보였다. 이 문제는 독일의 음향학자인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 1834년에 명쾌하게 해결되었다.

샤이블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른 진동음을 내는 두 개의 소리굽쇠가 만들어 내는 맥놀이 진동수를 세는 방법을 사용했다. 맥놀이란 진동수가 약간 다른 두 개의 소리가 간섭을 일으켜 소리가 주기적으로 세어졌다 약해졌다 하는 현상이다.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 맥놀이 진동수는 초당 4회, 즉 4 Hz(헤르츠) 정도일 때 귀로 들으면서 측정하기에 적당하다.

샤이블러의 실험에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가 필요했다. 그는 어떤 건반악기의 A 음과 같은 음을 내도록 만든 1번 소리굽쇠와 그것보다 약간 크게 만든 2번 소리굽쇠 사이의 맥놀이 진동수가 4 Hz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가 2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보다 4 Hz만큼 큼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샤이블러는 좀 더 큰 3번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2번 소리굽쇠와 함께 울렸을 때 역시 초당 4회의 맥놀이가 일어나도록 조절하였다. 이렇게 해서 3번 소리굽쇠는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8 Hz만큼 낮은 진동수의 음을 내게 되었다. 샤이블러는 이런 방법으로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새로운 소리굽쇠를 만들었다. 그랬더니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보다 정확하게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었다. 샤이블러는 56번 소리굽쇠가 1번 소리굽쇠에 비하여  $4 \text{ Hz} \times 55$ , 즉 220 Hz만큼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었다.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로부터 샤이블러는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해 낼 수 있었다.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두 배이고 그 차이는 220 Hz이므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 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 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 의지하여 샤이블러는 1834년에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에서 열린 과학자들의 회의에서 건반의 A 음을 440 Hz로 삼아 음 높이의 기준을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슈투트가르트 피치’는 이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조율의 기준으로 한 동안 널리 쓰였다.

58.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샤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 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 실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2007 6월 평가원)

- <보 기>—
- ㄱ. 1번 소리굽쇠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는 100 Hz의 고유 진동수를 가질 것이다.

ㄴ. 처음과 마지막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의 차이는 220 Hz일 것이다.

ㄷ. 이 실험에서 사용해야 하는 소리굽쇠의 개수는 50개일 것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⑤ ㄴ, ㄷ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58

우리는 무엇이든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는 재기 위한 기준이 먼저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샤이블러는 기준이 없어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샤이블러가 미지의 소리굽쇠의 진동수를 알아내기 위해 사용한 전제는 “서로 다른 진동수를 갖는 두 음이 함께 울릴 때 생기는 맥놀이의 진동수는 두 음의 진동수의 차에 해당한다.”는 것과 “한 옥타브만큼 차이 나는 두 음 중 높은 음의 진동수는 낮은 음의 진동수의 두 배가 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샤이블러의 목표는 한 옥타브 차이 나는 두 음이 얼마의 진동수 차이를 갖는가를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음의 진동수를 a, b(a<b)라고 합시다. 우선 두 음이 한 옥타브 차이가 나므로

$$2a=b \quad \cdots \cdots \textcircled{1}$$

입니다. 그리고 맥놀이를 이용해서 샤이블러가 4Hz의 차이를 갖는 여러 개의 소리굽쇠를 만들어서, 결국 1번부터 56번까지 소리굽쇠를 만들었을 때 두 소리굽쇠는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음을 냈고, 56번이 1번에 비해 220Hz 낮은 진동음을 낸다는 것을 실험으로 알아냈던 것입니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b-a=220 \quad \cdots \cdots \textcircled{2}$$

이 됩니다. ①과 ②를 연립해서 풀면

$$a=220, b=440\cdots\cdots \textcircled{3}$$

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1번 소리굽쇠는 440Hz, 56번 소리굽쇠는 220Hz의 진동수를 갖습니다.

58번 문항은 이러한 사이블러의 측정 방법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라고 한 것은 지문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지문에서 “1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440 Hz, 56번 소리굽쇠의 고유 진동수는 220 Hz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라고 단정을 지어 놓았는데, 문두에서 “사이블러가 사용한 1번 소리굽쇠가 200 Hz의 고유 진동수를 갖는다고 할 때”라고 전제한 것은 1번 소리굽쇠를 440Hz에서 200Hz로 바꾸어 놓고 새로운 실험 상황에 사이블러의 방법을 적용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의 식에서  $b=200$ 으로 놓고 이것을 여전히 유효한 ①번 식  $2a=b$ 에 대입하면  $a=100$ 이 됩니다. 사이블러는 200Hz의 소리굽쇠를 가지고 시작을 해서 4Hz씩 낮은 음을 내는 소리굽쇠를 계속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옥타브 낮은 음 즉, 100Hz의 음을 내는 소리굽쇠를 만드는 데까지 갔을 것입니다. 200과 100의 차는 100이므로 이 사이를 4Hz의 간격으로 나누면 모두 25개의 간격이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소리굽쇠는 모두 26개가 있어야 합니다.

<보기>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낮은 음은 원래의 음의 절반의 진동수를 갖는다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법칙이므로 200의 절반은 100이 됩니다. 따라서 ㄱ은 옳습니다. 두 음의 진동수의 차이는 100Hz이므로 ㄴ은 틀립니다. 앞에서 구했듯이 필요한 소리굽쇠의 수는 26개이므로 ㄷ은 틀립니다.

#### - 2007 9월 평가원 58번 문항

한국사 연구에서 임진왜란만큼 성과가 축적되어 있는 연구 주제는 많지 않다. 하지만 그 주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향적이었다. 즉, 온 민족이 일치단결하여 ‘국난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만 제시되면서, 그 이면의 다양한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의병의 봉기 원인은 새롭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종래에는 의병이 봉기한 이유를 주로 유교 이념에서 비롯된 ‘임금에 대한 충성’의 측면에서 해석해 왔다. ㉠ 실제로 의병들을 모으기 위해 의병장이 띄운 격문(檄文)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해석이 일면 타당하다. 의병장은 거의가 전직 관료나 유생 등 유교 이념을 깊이 체득한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킨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일반 백성들이 의병에 가담한 동기를 설명하는 데에는 충분치 못하다.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임진왜란을 당했던 데다가, ㉡ 전쟁 중에 보였던 조

정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당시 조선 왕조에 대한 민심은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오로지 임금에 충성하기 위해서 의병에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로 가득한 한자투성이 격문의 내용을 백성들이 얼마나 읽고 이해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의병의 주축을 이룬 백성들의 참여 동기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

의병들은 서로가 혈연(血緣) 혹은 지연(地緣)에 의해 연결된 사이였다. 따라서 그들은 지켜야 할 공동의 대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 결속력도 높았다. 그 대상은 멀리 있는 임금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가족이었으며, 추상적인 이념이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마을이었다. 백성들이 관군에 들어가는 것을 기피하고 의병에 참여했던 까닭도,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이동해야 하는 관군과는 달리 의병은 비교적 지역 방위에만 충실하였던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일부 의병을 제외하고는 의병의 활동 범위가 고을 단위를 넘어서지 않았으며, 의병들 사이의 연합 작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병장의 참여 동기도 단순히 ‘임금에 대한 충성’이라는 명분적인 측면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의병장들은 대체로 각 지역에서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고히 갖춘 인물들이었다. 그러나 전쟁으로 그러한 기반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 의병장들이 지역적 기반을 계속 유지하려는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유교적 명분론과 결합하면서 의병을 일으키는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한편 관군의 잇단 패배로 의병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게 된 ㉡ 조정에서는 의병장에게 관직을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적극적인 봉기를 유도하기도 했다. 기본적으로 관료가 되어야 양반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관직 임명은 의병장들에게 큰 매력이 되었다.

58. ㉠~㉡ 중, <보기>의 역사 자료 ㄱ과 ㄴ을 그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절한 것을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2007 09 평가원)

- <보 기>
- ㄱ. 왜적이 대동강변에 나타나자 조정의 대신들은 피난을 떠나기 위해 먼저 평양성을 나섰다. 이에 성안의 아전과 백성들이 난을 일으켜 칼을 빼어 들고 그 길을 막으면서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너희들은 평소에 나라의 녹봉만 훔쳐 먹다가 이제 와서는 나랏일을 그르치고 백성들을 속임이 이와 같으냐?”
- ㄴ. “진실로 기운을 내고 떨쳐 일어나, 우리 조상 임금님들께서 남기신 은덕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창고에 가득한 물건과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살아서는 아름다운 칭송이 있을 것이고,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니, 어찌 홀륭하지 않으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58

58번은 지문의 필자가 글을 쓰면서 참조했을 법한 역사 자료를 추론해서 찾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의 <보기>로 제시한 ㉠과 ㉡은 각각 임진왜란 당시의 자료인 유성룡의 ‘징비록’과 오희문의 ‘쇄미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출제에 적합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특히 이의가 제기가 된 ㉡은 선조 임금이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지은 글입니다. 일단 사실적인 측면에서 ㉡은 문장 ㉣의 근거로 제시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도 ㉡의 서술 주체는 임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 임금님’,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손에게까지 은택이 흘러 전해질 것이다’ 등의 표현이 그 근거입니다. 특히 핵심이 되는 것은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왕조 사회에서 벼슬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임금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의 글로 보아야 합니다.

‘벼슬자리를 나는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장에서 ‘아끼지 않을 것이다’를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이다’로 해석해서 의병장의 격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직 관료가 아닌 의병장이 벼슬자리를 버리겠다고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굳이 의병장이 ‘아끼지 않고 싸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벼슬자리 대신에 자신이나 가족의 생명, 안전 등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야 자연스럽습니다. 덧붙여 왕조 사회에서 임금에게 받은 벼슬자리를 임금의 허락도 받지 않고 공공연히 내던지겠다고 언급하는 상황도 가정하기 어렵습니다.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험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 + 3 = 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 + 3 = 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험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35.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생략된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2007 수능)

- ① 귀납추리는 일반 법칙에 기초해 있다.
- ②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 ③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
- ④ 귀납추리는 지식이 경험 세계를 넘어서도록 한다.
- ⑤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5

이 문항은 생략된 전제를 추리하는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은 전제이고, ㉡은 결론입니다. 그런데 ㉠으로부터 ㉡을 도출하는 과정에는 표현되지 않은 어떤 전제가 매개되어 있습니다. 감각 경험을 통해 만나는 개별적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서 일반 법칙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 지식인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그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연결하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추론 과정을 명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1:**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전제 2:** 귀납추리는 지식의 경험적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과 경험적 지식을 연결해 줌.)

**결론:**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전제 2에 답지 ②를 대체해 넣는다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으며, 답지 ⑤를 대체해 넣는다면 ㉡과는 전혀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지 ②를 전제 2에 넣은 추론의 경우>



**전제 1:**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전제 2:** 귀납추리는 자연에 대한 지식을 확장해 준다.

**결론:** 도출 불가

위의 추론에서 전제 2는 경험적 지식의 확장에 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전제 1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제 1과 전제 2로부터는 어떤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수 없습니다.

<답지 ⑤를 전제 2에 넣은 추론의 경우>

**전제 1:**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전제 2:** 귀납추리의 결론은 전제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결론:** 따라서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은 개별적 대상들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되지 않는다.

위의 추론에서 얻은 결론은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이 필연적으로 도출되는가 아닌가 하는 것에 관한 진술이지, 그 지식이 경험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문의 ㉠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됩니다.

-2008 6월 평가원 9번 문항

9. ‘미세 먼지 오염의 감소 방안’에 관한 개요를 작성한 뒤, <보기>의 자료를 새로 접하였다. 자료를 참고하면서 개요를 수정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6월 평가원)

- I. 서론: 환경오염의 심각성
- II. 미세 먼지 오염의 영향
  - 1. 호흡기 질환 유발
  - 2. 심장 혈관계 질병 악화
- III. 미세 먼지 발생 원인
  - 1. 산업체 소각 시설 배출 가스
  - 2. 자동차 배출 가스
  - 3. 도로 먼지
- IV. 미세 먼지 오염 감소 대책
  - 1. 소각 폐기물 배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2.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 기술 개발
  - 3. 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
- V. 결론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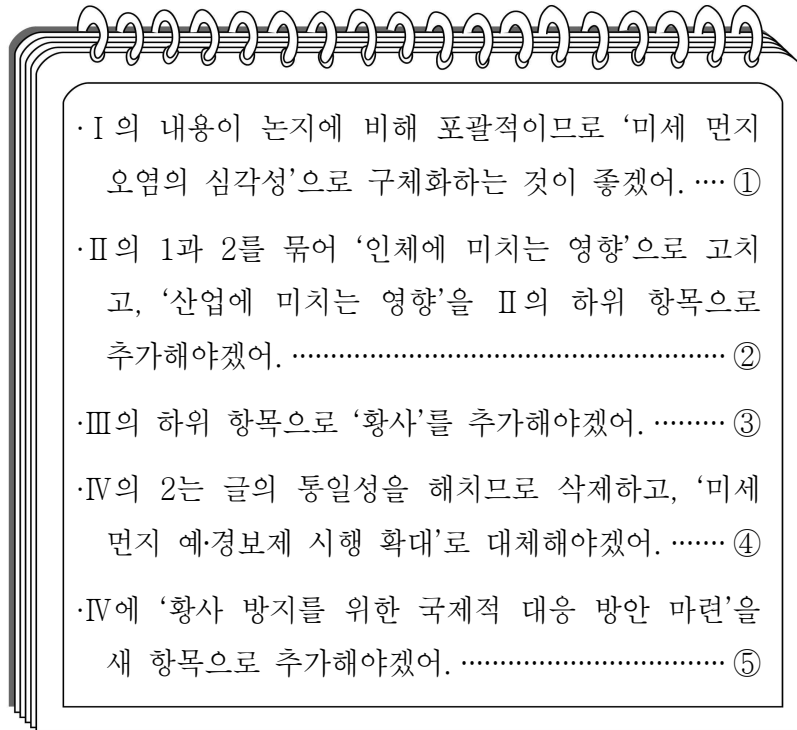
**황사가 몰려온다**

황사 피해 예방, 제도적 차원의 접근 필요

최근 황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황사의 주성분은 미세 먼지인데, 여기에 마그네슘, 규소, 알루미늄, 철 등의 산화물이 포함되어서 호흡기 질환 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또 농작물이나 활엽수의 기공을 막아 성장을 방해하기도 하며, 매우 정밀한 기기를 사용하는 항공기나 전자 장비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황사에 의한 대기 오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사 발원지인 중국과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접 국가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 ○○ 신문 -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9

②번 : <보기>를 통해 미세 먼지 발생이 식물의 성장을 막거나 항공기나 전자 장비 같은 정밀 기계의 고장 발생률을 높이는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II 의 하위 항목으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는 개요 수정 계획은 적절합니다.

③번 : <보기>에서 황사의 주성분은 미세 먼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황사의 주성분은 미세 먼지이므로, 중국과 몽골에서 황사가 몰려오면 공기 중에 미세 먼지의 양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황사는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④번 : III-2에서 자동차 배출 가스가 미세 먼지 발생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IV-2는 그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친환경 전기 자동차 생산 기술 개발은 미세 먼지 오염 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저감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2008 9월 평가원 12번 문항

12.<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2008 09 평가원)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주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젖혀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찼다.  
→ **푸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정답 :⑤

### -평가원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12

답지 ①번과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펴다’에 대한 설명을 가져온 것입니다.

**펴다**〔펴, 펴니〕

①【…을】

- ① 접히거나 개킨 것을 찢히어 벌리다. ㉠날개를 **펴다**
- ② 구김이나 주름 따위를 없애어 반반하게 하다. ㉡얼굴의 주름살을 **펴다**
- ③ 굽은 것을 곧게 하다. 또는 움츠리거나 구부리거나 오므라든 것을 벌리다. ㉢주먹을 **펴다**
- ④ 생각, 감정, 기세 따위를 얹매임 없이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주장하다. ㉣꿈을 **펴다**

②【…에 …을】

- ① 넓게 늘어놓거나 골고루 헤쳐 놓다. ㉠마당에 돛자리를 **펴다**
- ② 어떤 것을 널리 공포하여 실시하거나 베풀다. ㉡전국에 계엄령을 **펴다**.
- ③ 세력이나 작전, 정책 따위를 벌이거나 그 범위를 넓히다. ㉢세력을 **펴다**

이의 제기에서는 ‘펴다’와 ‘깔다’가 동의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펴다’와 ‘깔다’는 모든 의미에서 동의 관계인 것은 아닙니다. 위의 사전에서 볼 수 있듯이 ‘펴다’ ㉠ - ㉠의 뜻은 ‘깔다’와 동의 관계가 아니고 ‘펴다’ ㉡ - ㉠의 뜻이 ‘깔다’와 동의 관계입니다. 문제 12번의 ①번 답지의 뜻풀이는 ‘펴다’의 ㉠ - ㉠의 뜻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깔다’의 뜻풀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①에 제시한 뜻풀이에 해당하는 적합한 문장 구조는 (…이 …을 …에)가 아니라 (…이 …을)입니다. 따라서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니므로 ①은 정답이 아닙니다.

답지 ⑤의 예문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사전의 예문에서 어떤 명사구가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든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든 그 예문의 구조가 해당 동사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면 그 예문을 토대로 문장의 구조와 동사의 뜻을 사전에 기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만이’가 예문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예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은행의 핵심 업무는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예금을 유치해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일이다. 은행은 이 과정에서 대출과 예금의 금리 차이를 통해 수익을 얻으며, 국민 경제 차원에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사회적 역할도 수행한다. 그러나 고객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해 이 역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고객의 상환 능력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늘 노출되는 것이다.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은행은 확실한 담보가 있거나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전략을 채택한다. 요즈음 많은 사람들이 매우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물론 그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경제 관념이 희박하고 소득 창출 능력 또한 떨어지므로 대출금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배제층에게 소액의 창업 자금을 무담보로 대출해 주면서도 은행을 무색케 할 정도로 높은 성과를 거두는 사례도 있다. 빈곤층의 자활을 지향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이 그것이다.

세계적인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인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은 용자를 희망하는 최저 빈곤층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다섯 명이 자발적으로 짝을 지어 대출을 신청하도록 해, 먼저 두 명에게 창업 자금을 제공한 후 이들이 매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분할 상환 약속을 지키면 그 다음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들이 모두 상환에 성공하면 마지막 사람에게 대출을 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들이 소액의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다음에는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 이런 방법으로 ‘그라민은행’은 99%의 높은 상환율을 달성할 수 있었고, 장기 용자 대상자 중 42%가 빈곤선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크레딧은 아무리 작은 사업이라도 자기 사업을 벌일 인적·물적 자본의 확보가 자활의 핵심 요건이라고 본다. 한국에서 이러한 활동을 펼치는 ‘사회연대은행’이 대출뿐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식과 경영상의 조언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들 단체의 실험은 금융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충분히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과 성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유효한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임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49. ‘마이크로크레딧’ 운동과 관련하여 <보기>와 같은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8 9월 평가원)

<보        기>

높은 헌신성에 기반하여 묵묵히 훌륭한 성과를 내던 단체들이 사회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받게 되면 초심을 잃고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양질의 창업 지원 서비스가 계속 제공되도록 하려면, 이들 단체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할 대책이 필요하다.

- ① 전문성이 떨어지는 민간 단체 대신 은행이 마이크로크레딧 업무를 담당하도록 유도한다.
- ②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대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절차를 표준화한다.
- ③ 창업 지원 담당자의 보수를 민간 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④ 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을 개발하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한다.
- ⑤ 정부가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사용될 기금을 조성하고, 단일한 중앙 조직이 전국의 각 지점을 통해 그 기금을 사용하도록 한다.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9

##### 1. #06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이의 제기자는 ‘공개 의무화→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외형상의 성장 주력’이라는 논리 연쇄를 바탕으로 답지 ④가 적절한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 의무화’는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얻게 하는 장치라기보다는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역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보아야 합니다. 공개 의무화를 통해 해당 단체의 활동 내역과 성과가 투명하게 드러난다면, 이의 제기자의 예상과는 달리 실적을 부풀리는 등의 외형상의 성장에만 주력하는 일은 어렵게 되고, 내실 위주의 활동을 벌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 2. #09 이의 제기에 대한 답변

이의 제기가 몇 가지 논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답변 또한 논점별로 나누어 제시합니다.

첫째, 이윤 추구를 하는 기업이든 공익을 추구하는 정부이든 빈곤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마이크로크레딧 단체이든 간에 어떤 조직이 누군가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면, 그 조직은 소중한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지원한 사람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원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알 자격이 있으며,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둘째, 이의 제기자가 말한 ‘채찍’이나 ‘당근’은 ‘공개의 의무화’에 대한 적절한 비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당근’은 ‘보다 많은 지원’이 되겠고 ‘채찍’은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 정도가 될 터인데, ‘공개의 의무화’는 ‘당근’을 줄 것인지 아니면 ‘채찍’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선결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의 의무화’를 ‘채찍’으로 보고 이의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셋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이 외형상의 것이라고 단정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보다 많은 지원을 받기 위해 성과를 부풀리면서 외형상의 실적 확대에만 치중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하는 공신력 있는 지표들에는, 양적인 지표는 물론 내실을 평가할 다양한 질적 지표들이 당연히 포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성과 지표의 공개가 의무화될 경우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이 대출을 받을 사람의 상환 능력을 까다롭게 평가할 것이라는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크레딧 단체들의 지원 대상은 모든 빈곤층, 모든 금융 배제 계층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 이행 의지가 있고 자활 의욕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이들 단체의 임무입니다. 그라민은행이 ‘공동 대출 프로그램’을 개발한 이유도 바로 자활 의욕이 있는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빈곤층을 가려내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다섯째, 창업 지원 담당자들의 보수를 현실화하는 방안은 보다 많은 양질의 인력이 마이크로크레딧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실적을 부풀리는 식의 외형상의 성장을 억제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나) …… 활자(活字)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나의 영(靈)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벗이여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마음에 들지 앓아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앓아라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의 푸른 페인트 빛도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그대의 정의(正義)도 우리들의 섬세(纖細)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이 **욕된 교외**에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마음에 들지 앓아라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이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 김수영, 「사령(死靈)」 -

1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이해하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8 수능)

<보 기>

김수영은 1955년 6월 성북동에서 서강으로 이사하였다. 서강에서의 생활은 피폐해진 그의 몸과 마음을 점차 회복시키고, 그로 하여금 오랜만에 안정을 누리게 했다. 그가 이전과는 달리 생활에 대한 긍정을 시에 담아내었던 것도 그러한 안정과 관련이 깊다. 하지만 생활에 대한 시인의 긍정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줄곧 이상과 현실을 문제 삼으면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느껴 왔던 시인은 다시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이겨 내려고 애를 썼다. 이러한 서강에서의 생활은 1959년에 발표된 「사령(死靈)」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 ① ‘자유’는 시인이 추구하던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어.
- ②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은 이상을 묵묵히 실천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어.
- ③ ‘고요함’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시인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육된 교외’는 서강에서의 생활에 대한 시인의 성찰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
- ⑤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겠군.

정답 : ②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17

이의를 제기한 분들은 공통적으로 <보기>를 참고로 할 때 (나)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질책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것’을 함축하는 말이지, 결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하는 말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정답지 ⑤번에 나오는 ‘함축하는’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함축’은 사전적으로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뜻합니다. 따라서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을 함축하기에 ㉡을 함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우선적으로 ‘함축’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주장이 타당하려면 ㉡을 함축하고 있기에 ㉡을 함축할 수 없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의를 제기한 분들은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가 시인의 과거 생활(성북동에서의 생활)에 더 적합한 것이고, 「사령」과는 어울릴 수 없는 설명이므로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보기> 내용의 일부를 지나치게 단속적(斷續的)인 것으로 받아들여 (나)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함축할 수 있는 의미를 과 거적인 것으로 한정한 나머지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할 수 없다고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나)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가 함축하는 바는 <보기>의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상과 현실에 대한 시인의 문제의식과 관련지어 읽어내고, 이를 참고하여 (나)의 전반적인 의미 구조를 파악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려는 시인의 의식, 즉 이상을 전제로 한 정서들입니다. 그런 만큼 ‘설움과 비애’는 시인이 이상과 현실(일상생활)을 문제 삼을 경우에 다시 현재화될 수 있습니다. 그 현재화의 가능성을 (나)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적 화자가 ‘자유’와 ‘자신의 영’을 대비시키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성찰하고 있다는 점, 게다가 그러한 성찰이 첫 연과 끝 연의 수미상관을 고려할 정도로 구조적 안정감을 도모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이상과 현실(일상생활)에 대한 시인의 문제의식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를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나)의 의미 구조와 어조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커집니다. (나)에서 ‘자유’와 관련하여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던 시적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지닌 부정성을 강하게 부각시켜 내면서도, 다시 끝 연에서 자조감과 비애감이 서려 있는 어조를 들려주는 것은 그 좋은 증거입니다. 그만큼 그에게는 현실(일상생활)이 벗어나야 할 것이면서도 동시에 구속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나)의 “우스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활의 안정 속에 빠져 있는 자신을 질책하고 그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자의 태도뿐 아니라 일상에 매달려 살아가야 하는 자의 설움과 비애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지 ⑤는 적절한 반응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불고기 백반’을 ‘불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ㅌ)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ㅗ, ㅜ, ㅡ)은 4도, 중모음(ㅓ, ㅕ, ㅗ, ㅛ)은 5도, 저모음(ㅘ, ㅚ)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말소리 | ㄷ | ㅛ | ㅇ | ㅈ | ㅊ | ㅁ | ㅌ | ㄴ |
| 개구도 | 0 | 5 | 2 | 0 | 6 | 2 | 4 | 2 |
| 부등호 | < | > | > | < | >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ㅛㅇㅈㅊㅁㅌ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ㅊ, ㅌ’이면 모음 ‘ㅓ, ㅕ, ㅗ, ㅛ’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n]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33. 위 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 > < >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2008 수능)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정답 : ①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3

33번 문항(홀수형)은 지문의 내용에 따라 답지에 주어진 다섯 개의 단어들에 부등호를 매겨, 부등호의 배열이 ‘< > < >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지문에 따라 답지의 단어들에 부등호를 매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가족: < > < > > (개구도 06150)  
② 다수: < > < >  
③ 성질: < > > < > >  
④ 승부: < > > < >  
⑤ 우정: > < > > (개구도 4152)

정답은 ‘① 가족’입니다.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의 주장은 ‘⑤ 우정’도 부등호의 배열이 ‘< > < > >’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문의 넷째 문단에 “음절 초에는 ‘ㅇ[n]’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이라고 하여 음절 초에 ‘ㅇ[n]’이 올 수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였습니다. 국어 음절 말의 표기 ‘ㅇ’은 자음으로 발음이 [n]이지만, 음절 초의 표기 ‘ㅇ’은 자음이 아니라 자리를 채우기 위한 기호일 뿐입니다. ‘우정’을 발음기호로 나타내면 [ɳudʒən]이 아니라 [udʒən]이 됩니다. 이것을 지문의 개구도에 따라 부등호로 표시하면 ‘> < > >’이 됩니다.

이때 그물을 메고 풀이 죽은 연철이 들어온다. 네 사람, 우르르 몰려가 연철을 에워싼다.

곰치 그래 얼마나 올렸어?

도삼 기다리는 사람들 생각을 해 줘사 쓸 것 아니라고! 자네 기다리다가 지쳤어! (기대에 찬 얼굴로) 어서 어서 말이나 해 보게!

성삼 석 장은 올랐제?

구포덕 저 사람 무담씨 장난치고 싶으께는 일부러 쌍다구 딱 찡그리고 말 않는 거 봐! 그라제? (수선스럽게 웃어댄다.)

연철 (아무 말 없이 마루 끝에 가 앉으며 침통하게) 놀러라우? 맘이 기뻐사 놀릴 맘도 생기지라우!

곰치 (영문을 몰라) 므 소리여? (와락 연철의 팔을 붙들고) 아니, 므 소리여? 엉?

연철 (처절하게) 다, 다 뺏겼오! 아무 것도 없이 다 뺏겼오!

일동 (비명처럼) 뭣이라고?

곰치 (미친 사람처럼) 뺏기다니? 뺏기다니? 뭣을 누구한테 뺏겼단 말이여? 엉?

연철 (처절하게) 빛에 싹 잦혔지라우! 그것도 빛은 이만 원이나 남고……. (절규하듯) 므 도리로 막는단 말이요?

성삼 (주먹을 불끈 쥐곤) 죽일 놈!

도삼 (두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 버리며) 아아!

구포덕 (손바닥을 철썩 철썩 때려 가며) 그렇게 됐어? 뺏겼어? (신음처럼) 허어!

연철 (사립문 쪽을 가리키며) 쉬잇!

임제순 어색한 미소를 흘리며 들어온다. 그 뒤로 야릇한 표정의 범쇠 따라 들어와선 눈길을 땅에 박은 채, 뒷짐을 쥐고 마당을 서성댄다. 긴장해서 그들을 응시하고 있는 네 사람.

임제순 (능글맞게 웃음을 흘리며) 곰치! 오늘 잘 했어! 자네가 제일 많이 했어! 거 참 멋있거등!

곰치 (건성으로) 예예! 예예!

임제순 부서 때도 몇 십 년 만이지만 부서 크기도 처음이여! 죄다 허벅다리 같은 놈들이니……. (갑자기 불만스러운 얼굴을 해 가지곤) 그라제만 나는 손해여! 이익이 없그등! 천상 널린 돈 거둔 것뿐잉께……. 그나마도 일부분만 거뒀으니……. (속상하다는 듯이) 진장칠 놈의 것,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이자만 키웠어도……. 예잇! 쫓쫓!

범쇠 (여전히 마당을 서성대며) 아암!

임제순 곰치!

곰치 (뉘 뺀고 서선, 헛소리처럼) 예예! 예예!

(중략)

임제순 ……자네 섭섭할는지 모르겠네만은……. (강경하게) 남은 이만 원 청산할 때까지 내일부터 배를 묶겠네! 묶겠어!

곰치 (기겁할 듯 놀라) 예예? 아니 배, 배를 묶어라우?

성삼.연철.도삼 배를 묶다니?

구포댁 (떨쩍 뛰며) 왔따! 든 말씀이싱게라우? 아니, 해필이면 이럴 때 배를 묶으라우? 예예?

임제순 (단호하게) 나는 두말 앓는 사람이여!

곰치 (애걸조로) 영감님! 배만은, 배만은…….

임제순 (손을 저으며) 더 말 말어! (몇 걸음 걸어 나가며)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어! 배 빌려 달란 사람이 밀린단 말이여!

곰치 (따라가며) 영감님! 사나흘 안으로 빚 갚지랍네! 요참 물만 안 놓치면 되고 말 고라우! 제발 배는 풀어 주씨요! 제발!

임제순 (㉠ 곰치를 떠밀며) 안 돼! 안 된다먼!

- 천승세, 「만선」 -

38. <보기>는 ‘연철’과 관련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8 수능)

—<보 기>—

연철은 ㉠ 무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등장인물과 관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킨다. 또한 연철은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 연철은 전달해야 할 내용을 부분적인 정보로 분할하여 점진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누가 빼앗아 갔느냐는 물음에는 끝까지 명시적으로 대답하지 않는다. ㉣ 연철은 그 인물이 등장하는 시점을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빼앗아 간 자의 정체를 관객들에게 시각적으로 소개하는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 이후에는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관망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⑤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8

연철의 등장으로 흥겨웠던 극중 분위기는 불길한 징후를 띠기 시작합니다. 특히 연철의 첫 대사로 인해 기대감에 차 있던 극중 인물들은 분위기가 급변했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철의 첫 대사는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철은 임제순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임제순이 등장한 이후에 갈 등의 중심이 곰치와 임제순에게 집중되지만, 연철은 냉정하게 그 사태를 관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배를 묶다니?”라는 반응은 연철이 지니고 있는 심정적 반항심과 사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무대 위에는 일곱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임제순이 등장한 이후에는 주로 임제순과 곰치가 대화하고 나머지 다섯 명은 이를 지켜보는 형국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심리적 태도를 지닌 채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를 묶다니?”라는 대사는 지켜보는 이들의 심리상태를 알기 위해서 꼭 필요한 대사입니다. 더구나 성삼, 연철, 도삼이 한꺼번에 말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대사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반영한 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008 수능 46번 문항

정부나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



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 만큼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2008 수능)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정답 : ②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6

이의 제기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놀이동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미래의 종합적인 손실을 예상하고 그러한 손실을 강조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종합적인 손실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그 손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할인율을 낮게 제시할 것이므로 ②번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
2. 지문의 결론 부분에서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근거로 ⑤번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발 사업에 대해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놀이동산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주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인율 개념에 대한 지문 첫 단락의 설명에 따르면, 놀이동산 건설

의 지역 경제 활성화가 가져올 이익에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야 그 현재 가치가 작아지게 되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2. 지문에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고 말한 것은 공공사업의 일반적 특징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나 <보기>의 놀이동산 개발은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해야 하는 공공사업이 아닙니다. <보기>는 개발 업체, 사업 찬성 주민, 사업 반대 주민이라는 각 주체의 입장에서 할인율을 선택하는 상황입니다.

⑤번 답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이익의 크기가 아니라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문의 첫 부분을 보면, 할인의 요인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미래 시점까지의 ‘시간’에 대한 투자 기회, 물가 상승, 불확실성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즉 할인의 대상이 되는 가치가 현재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러한 요인 또한 커지기 때문에 <보기>에 제시된 주체와는 상관없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009 6월 평가원 13번 문항

신기루는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대상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이다. 찬 공기층은 밀도가 크고 따뜻한 공기층은 밀도가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는 빛이 공기를 통과하는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밀도가 클수록 시간이 더 걸리게 된다. 이 때 공기층을 지나는 빛은 밀도가 다른 경계 면을 통과하면서 굴절한다. 따라서 신기루는 지표면 공기와 그 위 공기 간의 온도 차가 큰 사막이나 극지방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뜨거운 여름, 사막의 지표면은 쉽게 햇볕을 받아 가열되고, 지표면 공기는 그 위층의 공기에 비해 쉽게 뜨거워진다.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에 비해 밀도가 작는데,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이 굴절하게 된다. 나무 한 그루가 사막 위에 있다고 가정하자. 나무의 윗부분에서 나온 빛의 일부는 직진하여 사람 눈에 곧바로 도달하므로 우리 눈에는 똑바로 선 나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빛의 일부는 아래로 가다가 밀도가 큰 공기층을 지나며 계속 굴절되어 다시 위로 올라가고, 나무의 아랫부분에서 출발한 빛은 계속 굴절되면서 더 위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두 빛의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사람에게에는 나무가 거꾸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를 ‘아래 신기루’라고 한다. 따라서 멀리서 볼 때는 바로 선 나무와 그 밑에 거꾸로 선 나무의 영상이 동시에 보이는 것이다.

매우 추운 지역에서도 신기루는 일어난다. 극지방의 눈 덮인 지표면 공기는 늘 그 상공의 공기보다 훨씬 차다. 찬 공기층의 밀도는 크고, 따뜻한 공기층의 밀도는 작다. 이러한 밀도 차이에 의해 빛은 밀도가 큰 지표면 쪽으로 굴절되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극지방에 있는 산봉우리는 실제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위 신기루’라고 부른다.

신기루가 나타나는 상황은 다양하다. 더운 여름철 오후에는 지표면 온도가 쉽게 높아진다. 이때 가열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차로 달리면, 전방의 도로 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그런데 차가 접근하면 이는 곧 사라지고 얼마쯤 앞에 물웅덩이가 또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표면과 그 위 공기 간에 온도 차이가 생겨서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아지랑이도 신기루의 일종이다.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지는 봄날, 지표면 부근의 가열된 공기는 상승·하강하면서 불규칙적인 밀도 변화를 일으킨다. 이러한 변화는 빛의 굴절 차이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아지랑이가 발생한다. 이 경우 물체의 위치는 변하지 않고,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

13.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은?(2009 6월 평가원)

- ① 신기루는 사막과 극지방에서만 나타난다.
- ② 빛은 밀도가 작은 쪽에서만 굴절하는 속성이 있다.
- ③ 신기루가 나타나려면 그 부근에 대상이 있어야 한다.
- ④ 공기층의 밀도 차이가 없어도 신기루가 생길 수 있다.
- ⑤ 도로에서 굴절 현상이 일어나려면 주변에 물이 있어야 한다.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13

13번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토대로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지문을 보면, ‘신기루’는 ‘환상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래의 대상이 공기층의 온도 차 때문에 다른 곳에 보이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어떤 대상이 기상 현상에 따른 빛의 굴절 효과로 다른 곳에 보이거나 왜곡되어 보이는 것으로 신기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3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웅덩이’와 관련한 신기루 현상에 대한 이의 제기입니다.

지문에서는 ‘물웅덩이가 있다’가 아니라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지문에서 “이러한 현상은 …… 하늘에서 오는 빛이 굴절되어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면에 물웅덩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현상은 전방의 도로면 근처의 하늘 빛이 굴절되어 운전자에게 도달하기 때문에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지랑이의 대상이 없다는 이의 제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문에 ‘아지랑이 때문에 물체가 그 자리에서 어른거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로 볼 때 아지랑이의 대상은 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 -2009 6월 평가원 18번 문항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 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 가고 있는 듯하다.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그 비극이 언제든지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조건에 비추어 볼 때 현대 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현대 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둘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셋째,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인은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가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 가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도 높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간다.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들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 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 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1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경수’를 평가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 06 평가원)

—<보 기>—

경수는 어떤 할머니의 고통을 소개하는 방송을 보았다.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의 탓이고, 그 불행이 자기에게는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방송 도중 전화 모금에 참여했다. 마음은 뿌듯했지만 경수의 일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 ① 불행의 원인을 사회적 관계에서 찾지 않는 아쉬움이 있군.
- ②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연민을 느낄 수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군.
- ④ 연민 때문에 도움을 주긴 했지만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아쉬움이 있군.
- ⑤ 타인의 비극이 나를 엄습할 수 있다는 인식이 없이도 연민을 가질 수 있군.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18

18번의 ③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보기>의 “경수는 할머니가 불행에 대비하지 못한 것이 할머니 자신 탓이고……” 부분에서 할머니의 불행이 사전 예방이 가능한 불행이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2) 경수는 할머니의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

고 있다. 따라서 (3) 경수는 사전에 예방이 가능한 불행을 연민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의 신청하신 분의 위와 같은 추론은 형식적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의 신청자가 근거로 제시한 (2)의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기>에서 “할머니가 불쌍하다고 느껴져서 …… 참여했다.”의 부분으로부터 우리는 경수가 할머니에게 연민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의 신청자는 <보기>와 반대되는 내용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자의 추론 과정은 형식적으로 정당하지만 잘못된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09 6월 평가원 49번 문항

(나) 북창(北窓)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다  
아침까지 울적하여 ㉠ 먼 들을 바라보니  
즐기는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린다  
세정(世情)\*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른다  
술 고기 있으면 친구도 사귀련만  
두 주먹 비게 쥐고 물정 모르는 말에 모습도 못 고우니  
하루아침 부릴 소도 못 빌려 말았거든  
하물며 교외(郊外)에서 취(醉)할 뜻을 갖을쏘냐  
아까운 저 쟁기는 벗보임도 좋을시고  
가시 엉킨 묵은 발도 험사리 갈련만은  
㉡ 텅 빈 집 벽에 쓸 데 없이 걸렸구나  
차라리 첫 봄에 팔아나 버릴 것을  
이제야 팔려 한들 알 이 있어 사러오랴  
봄갈이도 끝나간다 후리 쳐 던져두자  
강호 한 꿈을 꾸 지도 오래려니  
㉢ 입과 배가 누가 되어 어즈버 잊었도다  
저 물을 바라보니 푸른 대도 하도할샤  
㉣ 훌륭한 군자들이 낡대 하나 빌려스라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 벗이 되어  
㉤ 임자 없는 풍월강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 -

\* 세정: 세상 물정.

49. <보기>를 참조하여 (나)의 ㉠~㉢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 6월 평가원)

<보 기>

사대부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했던 삶은 세상에 나아가 태평성대를 구현하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었으며, 이것을 자신들의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박인로도 이와 같은 삶을 지향했으며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고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추종하며 살 수도 없었기에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갈등하다가 그가 선택하게 된 또 하나의 가치가 ‘안빈낙도(安貧樂道)’이다. 즉 안빈낙도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사대부로서의 고결한 내면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삶의 양식이었던 것이다.

- ① ㉠은 화자와 세상과의 심리적 거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은 사대부로서의 직분을 현실에서 실천할 수 없는 화자의 안타까운 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은 화자가 선비로서의 고결한 삶을 살 수 없었던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④ ㉢은 권력욕에 빠진 위정자들에 대한 비판을 보여 주는군.
  - ⑤ ㉢은 안빈낙도하며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습니다.

정답 : ④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9**

이 문항은 「누항사」를 <보기>의 관점에 따라 새로운 시각에서 읽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사대부의 직분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럴 만한 지위를 얻지 못해 세상에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은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 농사를 지으려다 실패하여 탄식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은 <보기>의 관점에 따른 감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2009 09 평가원 7번 문항

7. <보기>는 ‘도로 교통 현안’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이를 활용하여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 09 평가원)

<보 기>

(가) 「보도 자료」의 일부

도로 교통량의 증가와 자동차 과속으로 인해 야생동물이 교통사고로 죽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생태통로를 건설하였으나, 동물의 행동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

(나) 도로 교통 지표 추이

| 구분                 | 2001<br>년 | 2003<br>년 | 2005<br>년 |
|--------------------|-----------|-----------|-----------|
| 도로 연장<br>(km)      | 2,599     | 2,659     | 2,850     |
| 차량 대수<br>(천 대)     | 12,914    | 14,586    | 15,396    |
| 교통 혼잡비용*<br>(십억 원) | 21,108    | 22,769    | 23,698    |

\* 교통 혼잡비용: 교통 혼잡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

(다) 자동차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  
- 1 km 주행 시 일산화탄소(CO)의 농도

| 속도(km/h) | 승용차 (ppm) | 트럭·버스 (ppm) |
|----------|-----------|-------------|
| 10       | 2.0       | 8.0         |
| 40       | 1.5       | 3.0         |
| 70       | 1.0       | 2.0         |
| 100      | 1.0       | 2.0         |

- ① (가)+(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할 때에는 동물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생태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
- ② (가)+(다): 자동차 속도를 줄일수록 야생동물의 교통사고와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가 줄어든다.
- ③ (나)+(다): 교통 혼잡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동차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를 증가시킨다.
- ④ (나): 도로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⑤ (다): 자동차의 배출 가스에 함유된 오염 물질의 양은 차량 종류 및 속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답 : ②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7

7번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답지 ②가 속도를 줄임으로써 야생동물의 교통사고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옳은 진술이라는 것이며, 둘째, 답지 ①이 중의적 표현이어서 적절한 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의견은 다를 통해 ‘배출 가스의 오염 물질 농도’는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다음으로 중의적 표현에 관한 의견은 부사절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가 ‘도로를 신설함’과 ‘동물의 생태 특성을 고려한 생태 통로를 만들’ 두 가지 모두를 꾸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문장의 동사적 중의성은 주로 맥락(문맥)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장 자체에 한정해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일정한 상황이나 맥락이 주어지면 이런 중의성은 해소되거나 완화되기 마련입니다. 문항에서 제시한 문두와 자료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가 ‘도로를 신설할 때’를 수식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2009 9월 평가원 22번 문항

흥보 아내 그 말 듣고,

“애고, 이게 웬 말인가? 그런대도 내가 알고 저런대도 내가 압네.”

섰다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 쿵쿵 발 구르며 하는 말이,

㉠ “시아자씨도 야속하다. 재물만 생각하고 형제 윤기 저버리니 이런 법도 또 있는가. 무거불촉 목공이도 이에서 더할손가. 무궁무진 나의 설움 생각하니 측량없다. 애고애고, 내 일이야.”

흥보 듣고 비감하여,

㉡ “이 울음 그만 우소. 속이 매워 못 들겠네. 우리가 곤궁함은 모두 장부의 허물이라. 부끄럽기 측량없네. 우리도 설마 때를 만나 귀히 될 제 있을 테니 설워 말고 살아 보세.”

이날부터 흥보 품을 팔 제, 상하 평전 지심 매기, 전세 대동 방아 찧기, 북경 장사 편지 전하기, 상부군의 대상 매고, 이집 저집 나래 엮기, 낡은 집에 토담 쌓고, 새집 짓고 왕토하기, 한 말 두 말 마질하고, 여각 주인 말짐 신기, 오 푼 받고 마철 걸고, 두 푼 받고 쥐구멍 막기, 닷 냥 받고 송장 치기, 날로 벌고 달로 벌어 아무리 극력으로 벌어도 여러 식구 살릴 일이 전혀 없어 곤궁으로 지내더니, 하루는 흥보가,

“내 갓망건 두루마기 내오소. 오늘날은 읍내를 잠깐 들어갈 수밖에는 수가 없네.”

“읍내는 무엇하러 가랴시오?”

“환곡(還穀) 호방(戶房)과 집안끼리 아는 사이니 쌀섬이나 타다 먹세.”

“그것 무슨 말씀이오? 환곡미는 국곡(國穀)인데, 먹을 때는 좋다 하고 값을 때는 어찌 값게?”

㊸ “여보소, 그 말 마소. 값다 값다 못 값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나. 형님께로 떠넘기세.”

(중략)

“먹고 노니 종소마는 그 돈이 웬 돈이오?”

“자네 이 말을 천기누설 하지 마소. 읍내를 가서 환곡 호방을 보았더니 나를 보고, ‘병영으로 매품 팔러 가려오?’ 하기에, 돈 삼십 냥 받고 별도로 마삿 닷 냥까지 받아 왔네.”

흥보 아내 이 말 듣고,

㊸ “애고, 이게 웬 말이오. ‘하늘은 복록이 없는 사람은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키우지 않는다.’고 하옵나니, 모진 목숨 사는 대로 살 것이지 남의 죄로 매 맞을까. 마오 마오, 가지 마오.”

흥보 하는 말이,

“어허, 그거 방정이라고.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그러하면 볼기가 다 구실이 있소?”

“내 이를 테니 들어보소. 삼정승 하였으니 평교자에 앉아 볼까. 육조 판서 하였으니 초헌 위에 앉아 볼까. 양국대장 하였으니 장대(將臺) 위에 앉아 볼까. 팔도 방백 하였으니 선화당에 앉아 볼까. 각읍 수령 하였으니 동헌 좌기 하여볼까. 좌수별감 하였으니 행사당에 앉아 볼까. 이방 호장 하였으니 각청 수석 앉아 볼까. 장안 일색 명기 되어 승교 위에 앉아 볼까. 만금 거래 상고 되어 부담마에 앉아 볼까. 이내 몸 궁곤한데 매품이나 팔아먹지 볼기 놀려 쓸 데 있나. 자네 내 말 들어 보소. 그 돈 삼십 냥 벌 어다가 착한 사람 맡겨 두면 이리저리 놀리어서 큰 아들은 장가들이고 티끌 모아 태산으로 그렁저렁 살아 보세.”

흥보 자식들이 이 말 듣고 벌 때 뒹뒹 하더니만,

“허허 아버지. 그 돈 많이 받거들랑 풍안(風眼)\* 한 벌 사다 주오.”

“이 자식, 풍안 무엇하려느냐?”

그놈 하는 말이,

“부자간이라도 속을 몰라주니 답답하지요. 이월 동풍 부는 때에 뒷간 출입 다니려면 못사람의 발길에 눈에 티가 들어 다닐 수 없어 그리하지요.”

또 한 놈이 나왔더니,

“아부지, 나는 송아지 한 마리 사다 주오.”

흥보 좋아라고,

“기특한 내 아들이야. 장래 살림은 잘하겠구나. 송아지는 무엇 할래?”

“한 마리만 사다 주면 모닥불에 구워 먹게요.”

“어 그놈, 허망한 놈이로고. 저리 가거라.”

또 한 놈이 썩 나오며,

“아부지, 나일랑은 양피 조끼에 통대모 장도(粧刀) 비단 꽃신 한 벌 사다 주오.”

“네 이 자식, 대모 장도 얻다 찰래?”

“찰 데 없으면 갈비 툄어 차지요.”

흥보 아내 곁에 섰다 여러 자식들을 호통하여 물리치니, 흥보 하는 말이,

㉠ “요런 몹쓸 일도 있는가. 개암쪽 만한 불기쪽에 그새에 시장판을 벌였구나. 그만 두어라. 많이 사다 주마.”

- 작자 미상, 「박흥보전」 -

\* 풍안: 바람과 티끌을 막으려고 쓰는 안경.

22. <보기>의 내용을 참조할 때,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09 9월 평가원)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핏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작품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그 말이나 행동에 여러 층위의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의 상황에 서로 다른 심리가 복합적으로 얹혀 있는 양상을 읽어내는 것은 판소리계 소설의 문학성을 이해하는 요건 가운데 하나이다.

- ① ㉠: 형제간의 우애를 저버린 시아주버니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가 함께 나타난다.
- ② ㉡: 아내의 심정을 이해하고 동조하는 마음과 가장 노릇을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얹혀 있다.
- ③ ㉢: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과 형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

난다.

- ④ ㉔: 남편이 매 맞으러 가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함께 나타난다.
- ⑤ ㉕: 철없이 행동하는 자식들에 대한 답답한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든 건사하고자 하는 책임감이 함께 나타난다.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22

제기된 이의의 요지는 “값다 값다 못 값으면 몽둥이 서넛 맞기로 관계있나.”라는 홍보의 말에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걱정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ㄷ’에 걱정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가 놓인 상황이나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추론하면 오히려 어려운 현실에 대한 걱정이 지나쳐 이를 애써 무시하려는 심리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보기>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 문항에서는 표면에 나타난 마로가 행동 뒤에 숨은 인물의 심리까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값다 값다 못 값아서 몽둥이를 맞는 상황을 연상하는 것 자체가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걱정하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2009 수능 38번 문항

#### # 89. 불이의 집(낮)

누군가 대문을 두드린다. 들어낸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 돌아본다. 영희냐 하고 달려가 문을 열면 얼굴이 부은 영호와 영수가 들어온다.

영호    엄마 영희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   .....

영호    엄마 우리 파티를 하죠. 불고기 파티를..... 이거 고집입니다.

하고는 어머니에게 준다. 말없이 보다가 가져가는 어머니.

**불이** 얼굴은 왜 다쳤니.

**영호** (빙긔 웃고) .....덕분에 고기를 얻었어요. 얘기가 좀 복잡해요.

하고 함께 마당으로 나간다.

#### # 90. 고급 레스토랑

비프스테이크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철이 다소곳한 영희에게 다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 # 91. 불이의 집 마당

풍로에 불을 지피고 있는 불이. 어머니는 고기에 양념을 친다. 보고 있는 영수와 영호.

**영호** 다운\*은 됐지만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영수 말없이 앞만 본다.

#### # 92. 레스토랑

영희가 접시의 고기를 서툴게 썰고 있다. 지켜보던 우철이 접시를 가져다 익숙한 솜씨로 고기를 잘라 소스까지 쳐 준다. 약간 화가 나 지켜보는 영희.

#### # 93. 불이의 집 마당

익고 있는 고기. 식구들이 둘러앉아 고기를 먹는다.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집 부수는 소리. 해머 소리.

#### # 94. 몽타주\*

영희와 우철이 고기를 먹고 있다.

영희를 뺀 가족이 고기를 씹고 있다.

이들의 면모가 다양하고 자세하게 묘사되며 몽타주된다.

#### # 95. 불이의 집

㉠ 팡팡 하고 소리 나며 흔들리면 담벽에 큰 구멍이 난다. ㉡ 커다란 해머가 구멍을 뚫혀 온다. ㉢ 구멍으로 안의 전경이 보인다. 태연히 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난쟁이 식구들이 보인다. ㉣ 담벽이 크게 무너지며 먼지가 인다. 지켜보는 인부들. 가라앉은 먼지의 마당. ㉤ 식구들이 말없이 먹기를 계속한다. 인부의 대장이 눈짓을 하면 인부들이 흠어져 앉으며 땀을 닦는다. 마지막 파티를 하는 난쟁이 일가를 기다리는 인부들. 인부들도 즐거운 낮이 아니다. 어머니가 익은 고기를 접시에다 주섬주섬 담는다. 일어나는 어머니, 식구들이 의아하여 본다. 어머니가 고기 접시를 들고 인부들에게 간

다. 어리둥절하다가 담뱃불을 끄는 인부들.

**어머니** (담담하다) 고기가 얼마 남지 않았군요. 한 점씩이라도 드세요.

하며 고기 한 점을 집어 대장부터 내어 민다. 멍하니 보다가 황급히 손바닥으로 받아 먹는 대장. 말없이 지켜보는 대장. 영호만이 턱을 악물고 눈물이 글썽한다. 어머니는 계속하여 고기 한 점씩 인부들에게 나누어준다.

**어머니** 아저씨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아저씨들이라고 좋아서 하겠어요.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도 없을 텐데……. 집은 헐리더라도 오늘 하루 여기서 자야 해요. 딸이…… 집 나간 딸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 #96. 고급 맨션 앞

우철이 승용차를 몰아와 아파트로 진입하고 있다. 다소곳이 앉아 있는 영희의 모습.

#### #97. 불이의 집

일거에 폭삭 무너지는 담. 방문을 열고 나와 선 식구들 앞서 뽀얗게 먼지가 인다.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해”라 쓰인 장독대가 큰 해머에 의해 부서진다.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다각도로 보여진다.

- 홍파 각색,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

\* 다운: 권투 시합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쓰러진 상태.

\* 몽타주: 넓은 의미로는 편집 작업을, 좁은 의미로는 서로 다른 화면을 결합하는 방식을 가리킴.

38. 학생들이 모두 활동을 통해 ‘#95’를 지문 내용에 충실하게 촬영하려고 한다. ㉠~㉣에 대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09 수능)

- ① ㉠: 해머 소리를 음향 효과로 제시하면서 흔들리는 담벽을 보여 준 후에 담벽에 난 구멍을 보여 준다면, 상황이 실감 나게 전달될 수 있을 거야.
- ② ㉡: 담벽의 구멍을 보여 준 이후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하면, 카메라가 인부들의 시선을 대변할 수 있을 거야.
- ③ ㉢: 담벽에 난 구멍을 통해 난쟁이 일가의 모습을 포착하려면, 카메라는 담벽 바깥쪽에 위치해야 할 거야.
- ④ ㉣: 담벽이 무너지고 인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지가 서서히 가라앉도록 촬영하면,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가 구체화되는 시각적 효과를 살릴 수 있을 거야.
- ⑤ ㉤: 난쟁이 일가가 식사하는 장면을 다시 화면에 담는다면, 철거 위협에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태도를 부각할 수 있을 거야.

정답 : ②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38

이 문항의 취지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지문에 나타난 정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습니다. 시나리오의 지문은 시각적 영상을 구성하기 위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답지 ②는 ㉠의 해머가 구멍을 넓혀 오는 상황을 반영하여 담벽의 구멍을 먼저 보여 주고 그 구멍으로 해머가 모습을 드러내도록 촬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카메라는 인부의 시선이 아니라 구멍이 만들어지는 광경을 담벽 안쪽에서 지켜보는 시선을 대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답지 ②는 적절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답지 ④는 ㉢의 담벽이 무너지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담벽이 무너지고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인부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를 통해 난쟁이의 집이 철거될 상황이 구체화됩니다. ‘난쟁이 일가가 겪을 사태’란 그들의 집이 헐리게 될 일을 가리킵니다. 인부들이 눈앞에 나타나면서, 이 사태가 시각적 효과로 뚜렷하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지 ④는 적절한 진술입니다.

답지 ⑤는 ㉢의 말없이 먹기를 계속하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91에서 난쟁이 일가는 고기 구울 준비를 하고, #93에서 고기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 먼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해머 소리’이고, ‘집 부수는 소리’입니다. 철거 위협이 엄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난쟁이 일가는 고기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난쟁이 일가는 닥쳐오는 위기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사를 태연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포착되는 난쟁이 일가의 모습은 ㉢과도 관련됩니다. ㉢을 보면, 난쟁이 일가는 ‘태연히’ 앉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답지 ⑤에서 진술했듯이 ㉢은 ㉢의 상황을 다시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철거 위협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는 난쟁이 일가의 모습이 부각됩니다. 그러므로 답지 ⑤는 적절한 진술입니다.



컴퓨터에서 동영상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어떻게 작은 파일 안에 수십만 장이 넘는 화면들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을 것이다. 동영상 압축은 막대한 크기의 동영상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만 남김으로써 화질의 차이는 거의 없이 데이터의 양을 수백 분의 일까지 줄이는 기술이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일반적으로 화면 간 중복, 화소 간 중복, 통계적 중복 등을 이용한다.

동영상은 연속적인 화면의 모음인데, 화면 간 중복은 물체가 출현, 소멸, 이동하는 영역을 제외하고는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이 비슷한 것을 말한다. 스튜디오를 배경으로 아나운서가 뉴스를 보도하는 동영상을 생각해 보자. 현재 화면을 이전 화면과 비교하면 아나운서가 움직인 부분만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따라서 현재 화면을 모두 저장하지 않고 변화된 영역에 해당하는 정보만 저장하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하나의 화면은 수많은 점들로 구성되는데, 이를 화소라 한다. 각각의 화소는 밝기와 색상을 나타내는 화소 값을 가진다.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 동영상 압축에서는 원래의 화소 값들을 여러 개의 성분들로 형태를 변환한 다음, 화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성분들을 제거하고 나머지 성분들만을 저장한다. 이때 압축 전후의 화소들의 개수에는 변화가 없으나 변환된 성분들을 저장하는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화질의 차이가 별로 없이 데이터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그런데 화면이 단순할수록 또 규칙적일수록 화소 간 중복이 많아서, 제거 가능한 성분들이 많아진다. 다만 이들 성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 화면이 흐려지거나 얼룩이 지는 등 동영상의 화질이 나빠진다. 이러한 과정은, 우유에서 수분을 없애 전지분유를 만들면 부피는 크게 줄어들지만 원래 우유의 맛이 거의 보존되는 것과 비슷하다.

압축된 동영상에 저장해야 하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는 위의 과정을 거쳐 이미 많은 부분이 제거된 상태이다. 통계적 중복은 이들 데이터에서 몇몇 특정한 값이 나오는 빈도가 통계적으로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때 자주 나오는 값일수록 더 짧은 코드로 변환하여 저장하면, 데이터 값을 그대로 저장할 때보다 저장하는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

45.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2009 수능)

<보 기>

이전 화면

(가)

현재 화면

이전 화면

(나)

현재 화면

※ (가), (나)는 흑백 화면이며 화소의 개수가 모두 동일함.

|   | 현재 화면과 이전 화면<br>사이의<br>화면 간 중복 정도 | 현재 화면 내의<br>화소 간 중복 정도 |
|---|-----------------------------------|------------------------|
| ① | (가)가 더 높다                         | (가)가 더 높다              |
| ② | (가)가 더 높다                         | (나)가 더 높다              |
| ③ | (나)가 더 높다                         | (가)가 더 높다              |
| ④ | (나)가 더 높다                         | (나)가 더 높다              |
| ⑤ | (가)와 (나)가 같다                      | (가)와 (나)가 같다           |

정답 : ③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5

이의 제기는 ‘<보기>에서 (가)보다 (나)가 화소 간 중복이 더 높다’는 주장으로 수렴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는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들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변화가 규칙적인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가)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을 구성하는 화소들(검은 선)과 그 밖의 화소들

(흰 바탕) 사이에서 화소 값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외곽선과 그것에 인접한 화소들을 제외하고는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 화소 값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화소 간 중복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나)의 경우는 5개 도형의 외곽선 이외에,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서도 검은 점부터 흰 점까지 화소 값이 다른 화소들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있는 화소끼리도 화소 값의 차이가 큼니다. 또한 (나)의 경우는 별을 제외한 4개 도형의 내부에 있는 화소들이 가지고 있는 화소 값의 변화도 상당히 불규칙적이므로 화소 간 중복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경우 이전 화면과 현재 화면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화소 값의 차이가 별로 없거나 규칙적이라고 해석한 이의 제기가 있으나, 지문에서 화소 간 중복은 한 화면 안에서 파악하는 것이라 하였고 문항에서도 ‘현재 화면 내의 화소 간 중복 정도’를 물었으므로 이전 화면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2010 6월 평가원 21번 문항

일반적인 청력 검사는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가 없으면 시행하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귀의 소리(otoacoustic emissions)’를 활용하는 기술이 있다. 이 기술은 1978년 데이비드 캠프에 의해 귀에서 소리를 방출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면서 발달하였다.

특정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의식적인 행동은 생리학적으로 내이(內耳)의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세포의 역할로 설명할 수 있다. 포유동물의 청세포는 외부의 소리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면서, 수축과 이완을 통해 특정 음파의 소리에 대한 민감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귀의 소리’가 발생하는데 이는 청세포가 능동적으로 내는 소리이다. 과거에는 ‘귀의 소리’를 외부 소리에 대한 ‘달팽이관의 메아리’로 여겼다. 하지만 주어진 외부 자극 소리로 발생하는 메아리보다 음압이 더 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귀의 소리’를 단순한 메아리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른쪽 귀에만 외부 소리 자극을 가했는데 왼쪽 귀에서도 ‘귀의 소리’가 발생한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귀의 소리’는 청세포에서 발생하여 기저막을 따라 난원창으로, 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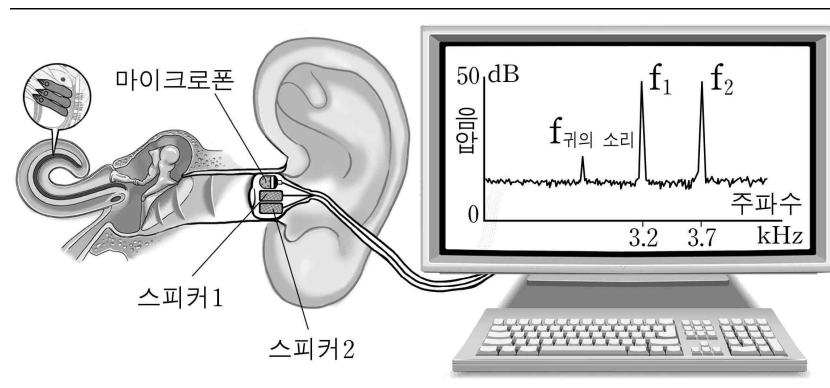
청소골을 통해 고막과 외이도로 전달된다. 이 소리는 두 종류의 외부 소리를 이용하여 청세포를 자극한 후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할 수 있다. 소리 자극으로는 여러 주파수가 섞인 복합음이나 두 주파수( $f_1$ 과  $f_2$ ,  $f_1 < f_2$ )만으로 이루어진 조합음을 이용한다. 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4 kHz 이하의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는데, 그 소리는 개인마다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별로는 일정한 패턴을 유지한다. 후자에서 발생하는 ‘귀의 소리’는 수학적으로 계산되는 여러 주파수 대역에서 측정되며, 특정 주파수 대역 ( $f_x = 2f_1 - f_2$ ,  $x =$  최대 ‘귀의 소리’)에서 가장 크다.

청세포는 작업장의 소음과 같은 특정 주파수나 약물 등에 반복 노출되면 손상될 수 있다. 청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청력 손실이 일어나고 ‘귀의 소리’도 감소한다. 청세포 손상이 진행되어 30 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

‘귀의 소리’는 조용한 환경에서 마이크를 외이도에 장착하여 측정한다. ‘귀의 소리’ 측정 기술을 활용하면 검사 받는 사람의 협조 없이도 청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기술은 몇몇 국가에서 신생아의 청력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 검사에 이용되고 있다.

21. <보기>는 두 주파수의 조합음을 이용하여 ‘귀의 소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그린 그림이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2010 6월 평가원)

<보 기>



- ① ‘귀의 소리’는  $f_1$ ,  $f_2$  자극 소리보다 빨리 감지될 것이다.
- ② 외이도가 막혔을 경우 ‘귀의 소리’ 측정이 어려울 수 있다.
- ③ 마이크를 통해서 감지되는 소리는 자극 소리, 메아리소리, ‘귀의 소리’이다.
- ④  $f_1$ 이 3.2 kHz,  $f_2$ 가 3.7 kHz일 때 발생하는 ‘귀의 소리’의 음압은 2.7 kHz에서 가장 크다.
- ⑤ 스피커를 통하여 두 주파수의 소리 자극을 가하고, 마이크를 통하여 감지되는 소리를 측정한다.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21

이의 제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측정되는 소리의 순서를 알 수 없다. 따라서 답지 ①은 정답이 될 수 없다.

둘째,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는 지문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의 ‘ $f_{\text{귀의 소리}}$ ’는 30dB 이하이므로 마이크에 ‘귀의 소리’가 감지될 수 없다. 따라서 답지 ③도 정답이 될 수 있다.

셋째, <보기>의 장치를 통해 음압을 측정한 것이지 소리를 측정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답지 ⑤도 정답이 될 수 있다.

넷째, 측정하는 마이크의 위치에 따라 ‘귀의 소리’가 감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므로 문제에 오류가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문의 셋째 문단을 보면 외부의 소리 자극에 따라 청세포가 반응하여 ‘귀의 소리’가 발생함을 알 수 있으므로, ‘귀의 소리’는  $f_1$ ,  $f_2$ , 자극 소리보다 늦게 감지됩니다. 따라서 답지 ①이 정답입니다.

둘째, 넷째 문단의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귀의 소리’도 사라진다.”는 진술로 미루어 볼 때, <보기>의 그래프에서 ‘ $f_{\text{귀의 소리}}$ ’가 측정이 되었다는 사실은 검사받는 사람에게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은 없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보기>의 그래프에 나타난 ‘귀의 소리’의 음압이 20dB이라 하더라도, 이는 ‘귀의

소리'의 음압이지 청력 손실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30dB 이상의 청력 손실'이란, 30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해서 30dB 이상 청력이 감소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지 ③은 정답이 아닙니다.

셋째, 소리는 주파수, 음압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됩니다. <보기>의 그래프에서 'f<sub>귀의 소리</sub>'는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음압으로 측정됨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답지 ⑤는 정답이 아닙니다.

넷째, 지문과 <보기>의 그림에는 '귀의 소리'를 측정하기 위한 마이크로폰이 고막의 외측, 즉 외이도에 위치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 -2010 6월 평가원 40번 문항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피해를 구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민법은 명예 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해 손해 배상과 같은 금전적인 구제와 아울러 비금전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금전적인 구제 방식의 하나가 '반론권'이다.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반론권은 일반적으로 반론 보도를 통해 실현되는데, 이는 정정 보도나 추후 보도와는 다르다. 정정 보도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는 것이며, 추후 보도는 형사상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도된 당사자의 무혐의나 무죄 판결에 대한 내용을 보도해 주는 것이다.[A]

반론권 제도는 세계적으로 약 30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반론권 제도는 의견에도 반론권을 적용하는 프랑스식 모델이 아닌 사실적 주장에 대해서만 반론권을 부여하는 독일식 모델을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 반론권 제도의 특징은 정부가 반론권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행사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반론권 도입 당시 우리 정부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행사가 언론에는 신뢰도 하락과 같은 부담을 주지 않고, 개인에게는 신속히 피해를 구제 받을 기회를 주기 때문에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사와 일부 학자들은 법정 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반론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언론의 편집 및 편성권을 침해하여 궁극적으로 언론 자유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반론권 존립 여부에 대해 판단하면서, 반론권은 잘못된 사실을 진실에 맞게 수정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자가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게재하는 권리로서 합헌적인 구제 장치라고 보았다. 또한 대법원은 반론권 제도를 이른바 무기대등원칙(武器對等原則)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즉 사회적 강자인 언론을 대상으로 일반인이 동등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도록 균형 유지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는 것이다.

반론권 청구는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할 수 있으며, 두 기관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때 반론권은 해당 언론사의 잘못이나 기사 내용의 진실성 여부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 언론 전문가들은 일부 학자들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관련된 분쟁은 법정 밖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권 제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중재의 합의율과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40. [A]에 근거하여 볼 때, 반론 보도문의 성격에 가장 잘 맞는 것은?(2010 6월 평가원)

- ① 본지는 2008년 1월 1일자 3면에서 공무원 A 씨가 횡령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A 씨는 2009년 4월 20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② ○○ 연구소의 B 소장은 ‘경제 회복 당분간 어렵다’는 취지의 본지 인터뷰 기사 내용에 대해, 이는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대목만을 인용하여 ‘경기 부양에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자신의 견해를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밝혀 왔습니다.

- ③ C 기업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핵심적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본지의 보도로 인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기계 자체가 아닌  
사용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나 관련 기업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 ④ 본지는 D 병원장의 예를 들어 병원들이 보험료를 부풀려 신청  
한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D 병원장은 기사  
에서 지적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알려 왔으며, 확인 결과  
기사의 D 병원장은 E 병원장의 오기(誤記)로 드러났음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본지는 F 금융공사가 미국보다 비싼 학자금 대출 금리로  
부당한 이익을 남긴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F 금융공사는 미국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학자금 대출  
상품의 금리보다 자사의 금리가 더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사실로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내용을 수정합니다.

정답 : ②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0

이의 제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답지 ②의 경우 인터뷰 내용이 순수한 의견이어서 이는 반론권 적용의 대  
상이 아니다.

둘째, 답지 ④와 ⑤가 반론 보도문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답지 ②에서, B 소장의 인터뷰 내용은 ‘ 좋지 않은 경제 상황’이라는 사실  
에 근거한 주장으로, 이는 반론권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문의 사설이 반론권  
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유도 그것이 사실에 근거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답지 ②  
에서 B 소장은 기사가 사실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을 왜곡했다고 하여 반론권을  
청구한 것입니다.



둘째, 답지 ④는 병원장의 이름을 명백히 잘못 표시한 것을 바로잡는 내용으로 정정 보도문이며, 답지 ⑤는 F 금융공사의 주장을 확인한바 사실로 드러나 이를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정정 보도문입니다. 참고로, 답지 ①의 경우 어떤 형사적 조치가 있는 후 그 결과를 알려주는 추후 보도문이며, 답지 ③은 사과의 내용을 포함한 정정 보도문입니다.

-2010 09 평가원 29번 문항

[앞부분의 줄거리] 양창곡의 연인이었던 강남홍은 그와 이별 후 백운 도사에게 무예를 배워 오랑캐의 장수가 되어 남장을 하고 명나라 원수 양창곡과 전장에서 맞서게 된다.

강남홍이 옥 같은 손을 들어 화살을 쏘니 시위 소리와 동시에 동초와 마달 두 사람의 갑옷이 뽕그랑하고 깨졌다. 두 장수가 더 싸울 뜻이 없어 말을 돌려 진영으로 돌아왔다.

뇌천풍이 투구를 주워 다시 쓰고 벽력부를 휘두르며 크게 꾸짖었다. “조그만 오랑캐 장수야! 작은 재주만 믿고 무례히 굴지 말라.” 그리고는 다시 강남홍에게 달려들더니 홀연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회를 보시라.

14회 옥피리는 자웅(雌雄)의 음률을 주고받으며,

거문고의 아름다운 소리는 끊어졌다 이어졌다 한다.

각설. 뇌천풍이 분기탱천하여 도끼를 휘두르며 강남홍에게 덤벼들었지만 그녀는 태연히 웃으며 부용검을 들고 서서 꼼짝도 않았다. 뇌천풍은 더욱 화가 나서 크게 소리 지르며 힘을 다해 강남홍을 공격했다. 순간 강남홍이 쌍검을 휘두르며 허공에 몸을 솟구쳤다. 뇌천풍이 허공을 쳐다보며 급히 도끼를 거두어들하려는데 갑자기 뽕그랑하는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다. 날아온 칼이 공중에서 떨어지며 투구를 쳐서 깨뜨린 것이었다. 뇌천풍이 황망하여 몸을 뒤틀며 말에서 떨어졌다.[A]

그러나 강남홍은 다시 돌아보지 않고 칼을 거뒀다. 원래 강남홍의 검법은 깊고

얇음이 있어서 다만 투구만 깨뜨릴 뿐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뇌천풍은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자기 머리가 없음을 의심하니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났다.

(중략)

강남홍은 백운 도사가 준 옥피리를 가지고 손삼랑과 연화봉으로 올라갔다. 멀리 명나라 진영을 바라보니 조용히 등불만 깜빡이는데,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다. 강남홍이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희롱했다. 이때 서풍은 쓸쓸히 불고 별과 달은 하얗게 빛나는데 원숭이의 슬픈 울음소리는 타향에서 떠도는 나그네의 시름을 돕는다. 찬 이슬은 옷깃에 가득 내리고 밝은 달은 진영을 환히 비춘다. 어떤 이는 창을 베고 누워 잠이 들고 또 다른 이는 칼을 치며 근심스럽고 슬프게 앉아 있던 때였다. 갑자기 바람결에 옥피리 소리가 아련히 반공에 퍼졌다. 처량한 곡조는 쇠와 돌도 녹이고, 흐느끼는 소리는 산천의 빛도 바꾸게 할 듯했다. 이때 명나라 십만 대군이 일시에 잠을 깨어 늪은이는 처자를 그리워하고 젊은이는 부모를 생각하여 혹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고 고향을 노래하며 일어나 서성거렸다. 군중이 자연히 소란해지면서 부대의 대오가 어지러워졌다. 소유경이 깜짝 놀라 동초와 마달을 불러 군중을 단속하도록 했다. 그러나 두 장수 역시 기색이 처량하고 행동거지가 수상했다. 소유경이 급히 양창곡에 알렸다.

마침 양창곡은 병서를 베고 잠을 자려던 참이었다. 정신이 이리저리 흔들리며 하늘에 올라 남천문에 들어가려 하니 한 보살이 백옥 여의를 들고 길을 막았다. 양창곡이 노하여 칼을 뽑아 여의를 치니 쾅그랑하고 땅에 떨어져 한 송이 꽃이 되어 붉은 빛과 기이한 향기가 천지에 진동했다. 양창곡이 놀라 깨어 보니 꿈이었다. 심중에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소유경이 황망히 군막 안으로 들어와 군중의 동정을 보고하였다. 양창곡이 놀라 군막 밖으로 나가 시간을 물어보니 벌써 4, 5경이나 되었다. 삼군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진영이 들끓고 서풍은 손에 든 깃발을 불어 흔든다. 바람결에 들리는 옥피리 소리는 애원하는 듯 처절하여 영웅의 마음으로도 비감해지는 것을 어찌지 못할 정도였다. 양창곡이 귀 기울여 들어 보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말했다.

“옛날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통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를 흠어 놓았다더니 누가 이 곡조를 부는지 모르겠구나. 내 어렸을 적 옥피리 부는 것을 배워 곡조를 기억한다. 이제 한 번 시험하여 군사들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케 하겠다.”

그는 상자에서 옥피리를 꺼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호방하여 마치 천 리에 펼쳐진 봄날의 물이 장강에 흐르는 듯, 삼월 조화로운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했다. 그러자 처량했던 마음은 절로 풀렸으며 다시 한 곡을 불자 호탕한 마음이 무력무력 생겨나 군중이 평온해 졌다. 양창곡은 다시 음률을 바꾸어 한 곡을 불었다. 그 소리는 웅장하면서도 기상이 커서 군사들의 기세가 늠름해졌다. 이에 군사들은 복을 쓰다듬고 칼춤을 추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고자 하였다.

-남영로, 옥루몽 -

29. <보기>에서 [A]에 활용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2010 09 평가원)

<보 기>

고전소설에 구현된 다양한 관습적 장치는 고전소설의 중요한 형식적 특징이자 독서법에 대한 일종의 약속이기도 하다. 옥루몽 에 사용된 관습적 장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ㄱ. 각 회의 첫머리에 놓여서 이후에 전개될 서사를 암시하는 제목
- ㄴ.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거나 이후 전개될 내용을 선전하는 문구
- ㄷ.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
- ㄹ. 전 회에서 서술된 사건을 부연 반복하여 앞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대목
- ㅁ. 작품 혹은 각 회의 첫 장면이 시작되거나 배경이 바뀌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될 때, 이를 알리는 상투어

- ① ㄱ, ㄴ, ㅁ    ② ㄱ, ㄷ, ㄹ    ③ ㄱ, ㄴ, ㄹ, ㅁ    ④ ㄴ, ㄷ, ㄹ, ㅁ
- ⑤ ㄱ, ㄴ, ㄷ, ㄹ, ㅁ

정답 : ③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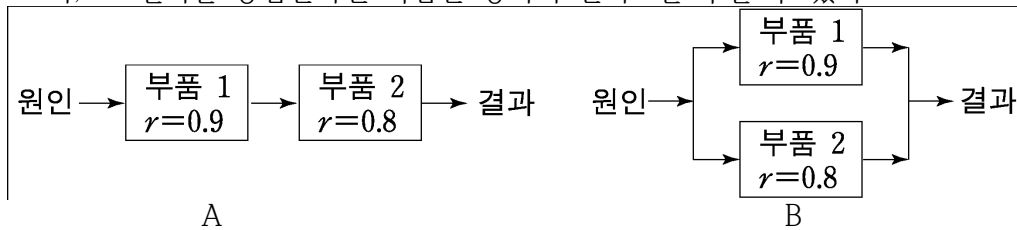
이 문항의 취지는 고전소설에 흔히 활용되는 다양한 관습적 장치 중에서 『옥루몽』에 실제로 구현된 것을 수험생이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문항에 대한 이의 제기는 <보기>의 ‘ㄷ.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을 [A]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내용은 대체로 뇌천풍이 말에서 갑자기 떨어진 뒤 이어지는 표현인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에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전소설에서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심정적 동조가 들어간 논평’이란 “슬프다. 자고로 좋은 일에는 굶은 일이 많은지라. 이 소저의 액운이 중하고 조물주가 야단스러워 한바탕 사단을 만드니 안타깝도다.”(『화문록』권1)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에서는 말에서 떨어진 뇌천풍의 상황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등의 심정적 동조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표현은 뇌천풍이 말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에는 서술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서술자가 개입하는 방식과 양상은 다양합니다.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에 대해 가치 판단·감정 표출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하며, 현재까지의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간략히 제시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사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발화를 통해 이야기의 전개를 고의로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14회의 첫 단락에서 ‘어찌된 일’에 해당하는, 뇌천풍이 말에서 떨어지는 과정을 곧바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는 뇌천풍에 대한 심정적 동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서술은 “다음 회를 보시라.”와 짝을 이루어 작중 인물이 아니라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기능하는 관습적 표현입니다. 이는 회를 바꾸기에 앞서 급박하게 이어지는 사건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켜 이어질 내용에 대한 독자의 궁금증을 증폭시키기 위한 서술적 장치입니다.

-2010 수능 49번 문항

어떤 장비의 '신뢰도'란 주어진 운용 조건하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맞게 작동할 확률을 말한다. 복 잡한 장비의 신뢰도는 한 번에 분석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으므로, 장비를 분해하여 몇 개의 하부 시스템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다. 직렬과 병렬 구조는 하부 시스템에 자주 나타나는 구조로서, 그 결과를 통합한다면 복잡한 장비의 신뢰도를 구할 수 있다.



A와 같은 직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경로가 하나인 가장 간단한 신뢰도 구조이다. 직렬 구조에서 시스템이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품이 다 정상 작동해야 한다. 어떤 하나의 부품이 고장 나면 형성된 경로가 차단되므로 시스템이 고장 나게 된다. 만약 어떤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A의 신뢰도는 부품 1의 신뢰도 ( $=0.9$ )와 부품 2의 신뢰도 ( $=0.8$ )를 곱한  $0.72$ 로 계산되며, 이것은 100번 가운데 72번은 고장 없이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장 없이 영원히 작동하는 부품은 없기 때문에 직렬 구조의 신뢰도는 항상 가장 약한 부품의 신뢰도보다도 낮을 수밖에 없다.

한편, B와 같은 병렬 구조는 원인에서 결과에 이르는 여러 개의 경로가 있고, 그중에 몇 개가 차단되어도 나머지 경로를 통해 결과에 이를 수 있는 구조이다. 병렬 구조에서는 부품이 모두 고장이어야 시스템이 고장이므로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의미의 값인 1에서 두 개의 부품이 모두 고장 날 확률 ( $0.1 \times 0.2 = 0.02$ )을 빼서 얻은  $0.98$ 이 B의 신뢰도가 된다. 한 부품의 고장이 다른 부품의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면 이 값 역시 달라진다.

이러한 신뢰도 구조는 물리적 구조와 구분된다. 자동차의 네 바퀴는 물리적 구조상 병렬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중 하나라도 고장 나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없으므로 신뢰도 구조상으로 직렬 구조인 것이다.

종종 장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복 설계(重複設計)를 활용하기도 한다. 가령, 순간적인 과전류로부터 섬세한 전자 기구를 보호하는 회로 차단기를 설치할 때에 그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2개를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차단기 2개 중 1개라도 정상 작동하면 전자 기구를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직렬 구조이지만 신뢰도 구조상으로 병렬 구조인 것이다. [가]

신뢰도 문제에서 직렬이나 병렬의 구조로 분석할 수 없는 ‘n중 k’ 구조도 나타난다. 이 구조에서는 모두 n개의 부품 중에 k개만 작동하면 시스템이 정상 가동된다. n개의 최대로 움직이는 승강기에서 최대 하중을 견디는 데 k개가 필요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 구조에서도 부품 간의 상호 작용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실제로 대규모 장비에 대한 신뢰도 분석은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많은 경우 적절한 판단과 근삿값 계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주어진 장비의 구조 및 운용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어떤 부품이 고장 날 확률 = 1 - (그 부품의 신뢰도)

49. [가]에 근거할 때,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물리적인 구조는?(2010 수능)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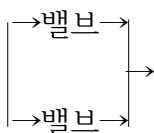
하천 인근의 배수펌프 관에는 두 개의 역류 방지용 밸브가 연결되어 있다.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가 있다. 두 개의 밸브는 ‘중복 설계’된 것이므로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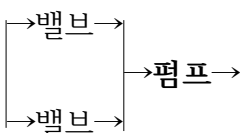
\* 단, 역류에 대한 고장만을 생각하고 밸브가 닫힌 채 고장 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음. ( → :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

① →**펌프**→**밸브**→**밸브**

② →**밸브**→**펌프**→**밸브**

③ →**밸브**→**밸브**→**펌프**

④ →**펌프**→  


⑤ →  


정답 : ①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9

<보기>의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금방 빠지지 않을 경우’란 물이 흘러 나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며, ‘펌프 쪽으로 물이 역류할 우려’란 흘러 나간 물이 다시 펌프 쪽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배수의 방향, 즉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은 <보기>의 단서에서 ‘→’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류 방지용 밸브’는 펌프에서 흘러 나간 물이 다시 펌프 쪽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물이 흘러 나가는 방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보기>에 나와 있듯 배수펌프의 기능은 ‘물을 밖으로 흘러 내보내는 것’이지 물이 흘러 들어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역류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역류란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다시 펌프 쪽으로 오는 현상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것은 화살표 반대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역류 방지용 밸브는 펌프의 오른쪽 구간에 설치되어야 ‘펌프에서 배출된 물’이 ‘펌프 쪽’으로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보기>의 배수펌프 시스템에서 중복 설계를 해야 한다고 했으므로 밸브 두 개가 물리적 구조상 직렬로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밸브가 한 개만 작동해도 역류를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입니다.

-2011 06 평가원 11번 문항

1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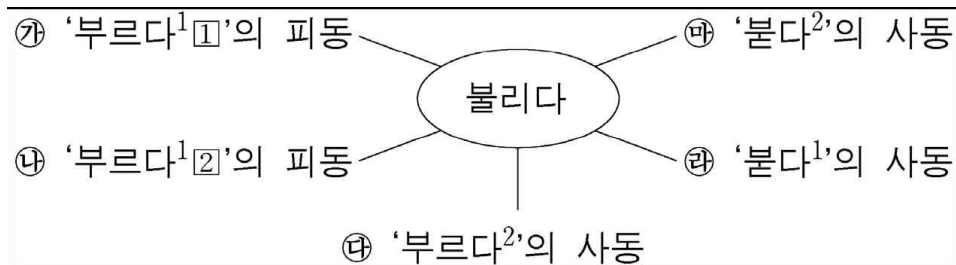
부르다1 ㉡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2 ㉡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1 ㉡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2 ㉡ }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렸다.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려 갔다.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 재미에 빠져 있다.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정답 : ③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교육과정에 명시된 피동과 사동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문장에서 사용되는 ‘불리다’라는 동사의 동음이의어적 양상을 사전의 의미 정보와 연계하여 구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보기>에서 ‘부르다2’의 의미가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찬 느낌이 들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부르다2’에 제시될 품사 정보는 ‘동’이 아니라 ‘형’이 맞습니다. 출제 과정에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항에서 ‘부르다2’의 품사가 동사이든 형용사이든 상관없이 ‘부르다2’의 사동은 성립합니다. 따라서 제시된 부호는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문항의 정답을 확정하는 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2011 6월 평가원 49번 문항

(나) 요사이 고공들은 생각이 어찌 아주 없어  
밥사발 크나 작으나 동욱이 좋고 굶으나  
마음을 다투는 듯 호수(戶首)\*를 시샘하는 듯  
무슨 일 감겨들어 흘깃할깃 하느냐  
너희네 일 아니하고 시절조차 사나워  
가뜩이 나의 세간 풀어지게 되었는데  
옛그제 화강도(火強盜)에 가산(家産)이 탕진하니  
집 하나 불타 버리고 먹을 것이 전혀 없다  
(중략)

칠석에 호미 씻고 김을 다 맨 후에  
새끼 꼬기 누가 잘 하며 섬은 누가 엮으랴  
너희 재주 헤아려 제각기 말아 하라  
가을걷이 한 후에는 집짓기를 아니하랴  
집은 내 지으마 ㉠ 웁은 네 묻어라  
너희 재주를 내 짐작하였노라  
너희도 먹을 일을 분별을 하려무나  
멍석에 벼를 던들  
좋은 해 구름 끼어 햇별을 언제 보랴  
방아를 못 찼거든 거치나 거친 올벼  
옥 같은 ㉡ 백미 될 줄 누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네 데리고 새 ㉢ 살림 살자 하니  
옛그제 왔던 도적 아니 멀리 갔다 하되  
너희네 귀 눈 없어 저런 줄 모르건대  
화살을 제쳐 두고 옷 밥만 다투느냐  
너희네 데리고 추운가 굶주리는가  
㉣ 죽조반(粥早飯) 아침 저녁 더 많이 먹였거든  
은혜란 생각 앓고 제 일만 하려 하니  
생각 있는 새 일꾼 어느 때 얻어서  
집 일을 마치고 시름을 잊겠는가  
너희 일 애달파 하면서 ㉤ 새끼 한 사리 다 꼬겠도다.

- 허전, 「고공가(雇工歌)」-

\* 호수 : 고공(머슴)의 우두머리.

(다) 물이 하나의 국가라면, 용은 그 나라의 군주이다. 어족(魚族) 가운데 큰 것으로 고래, 곤어, 바다 장어 같은 것은 그 군주의 내외 여러 신하이고, 그 다음으로 메기, 잉어, 다랑어, 자가사리 종류는 서리나 아전의 무리이다. 그 밖에 크기가 한 자가 못 되는 것은 수국(水國)의 만백성들이다. 그 상하에 서로 차서(次序)가 있고 대소(大小)에 서로 거느림이 있는 것은 또 어찌 사람과 다르겠는가?

이 때문에 용이 그 나라를 경영함에 가물어 물이 마르면 반드시 비를 내려 이어주고, 사람들이 물고기 씨를 말릴까 염려하여 겹겹이 물결을 일렁이어 덮어 주니, 그것이 물고기에게는 은혜가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런데 물고기에게 자애로운 것은 한 마리 용이고, 물고기를 못살게 하는 것은 수많은 큰 물고기들이다. 고래들은 조류를 따라가며 들이마셔 작은 물고기를 자신의 시서(詩書)로 삼고, 교룡, 악어는 물결을 다투어 삼키고 씹어 먹어 작은 물고기를 거친 땅의 농사로 삼으며, 문절망둑, 쏘가리, 드렁허리, 가물치 족속은 사이를 노리고 틈을 잡아 덮쳐서 작은 물고기를 은과 옥으로 삼는다. 강자는 약자를 삼키고 지위가 높은 것은 아랫것을 사로잡는다. 진실로 그러한 행위를 싫증 내지 않는다면 물고기들은 반드시 남아나지 않을 것이다.

슬프다! 작은 물고기가 없다면 용은 뉘와 더불어 군주 노릇을 하며, 저 큰 물고기들이 또한 어찌 으스댈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용의 도(道)란 그들에게 구구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보다 먼저 그들을 해치는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다.

아아, 사람들은 물고기에게만 큰 물고기가 있는 줄 알고 사람에게도 큰 물고기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 물고기가 사람을 슬퍼하는 것이 사람이 물고기를 슬퍼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을 어찌 알겠는가?

- 이옥, 「어부(魚賦)」-

40. (나)와 (다)를 비교할 때, 문맥적 의미가 비 와 가장 가까운 것은?(2011 06 평가원)

-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0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두 작품을 비교하여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는 것은 작품 내적 상황에 한정하여 그 단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의 ‘비’는 가물었을 때(상황) 용(주체)이 물고기(대상)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비’와 가장 가까운 것은 ‘죽조반’입니다. 작품 내적 상황에서 ‘백미’, ‘살림’, ‘새끼’는 주체가 대상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 -2011 6월 평가원 44번 문항

한글 창제 후 다양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자 생활사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서적의 간행에 영향을 미쳤는데, 서적을 간행할 때에 서적의 내용과 간행 목적에 따라 예상 독자층을 상정하고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게 되었다.

한글 창제 직후 간행된 『용비어천가』, 『월인천강지곡』, 『석보상절』은 모두 한글과 한자를 섞어 표기하였다. 하지만 세 문헌은 구체적인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상정한 예상 독자가 달랐기 때문이다.

『용비어천가』는 ‘海東六龍이 노르샤’에서와 같이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였다. 이것은 한자와 한문을 많이 아는 사람을 주요 독자층으로 상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월인천강지곡』은 ‘생世존尊’에서처럼 해당 한자음에 한자를 병행하여 적었고, 『석보상절』은 ‘世생尊존’에서처럼 해당 한자에 한자음을 병행하여 적었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에는 공통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우리나라에서 발음되지 않는 한자음을 표기하려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한자를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독자층으로 상정하였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누구를 주된 독자층으로 상정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달랐다. 『월인천강지곡』은 한자를 잘 모르는 독자, 즉 한글 창제를 통해 새로 확보하게 될

독자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방식으로 간행된 것이다.

앞의 세 문헌보다 후대에 간행된 『두시언해』와 『백련초해』도 한글과 한자를 섞어 쓰는 방식에 서로 차이를 보인다. 성종 때 간행된 『두시언해』는 두보의 한시를 한글로 번역한 책인데, ‘東녀그로 萬里에’에서 보듯 한글과 한자를 혼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두시언해』가 두보의 시를 한문으로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련초해』는 원문의 시는 한자로 적고 각 한자에 한글로 음과 훈을 달았으며, 번역문은 순 한글로 적고 있다. 이는 한자를 모르는 아동을 독자로 상정하였기 때문이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독자층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순 한글로만 적는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011 6월 평가원)

- ①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한글로 밝혀 적는 방식을 채택했다.
- ② 『월인천강지곡』은 한글 창제로 인해 확대될 독자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표기 방식을 채택했다.
- ③ 『석보상절』은 서로 다른 부류의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표기 했다.
- ④ 『두시언해』는 한자와 한문에 익숙한 독자층을 고려했다.
- ⑤ 『백련초해』의 번역문은 한글로만 표기되었다.

정답 : ①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문항 번호 : 44

‘월인천강지곡’과 ‘석보상절’은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다만 월인천강지곡 은 종성 자리에 ‘ㅇ’을 붙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월인천강지곡 에는 ‘세世존尊’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문에서는 월인천강지곡 과 석보상절 에서 한자음과 한자의 배치 순서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문헌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를 제시하는 과정에서 원문과 달리 ‘생世 존尊’으로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항을 푸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향후 출제 과정에서는 지문 정보의 정확성에 더욱 유의하겠습니다.

하루는 승상이 심사가 상쾌하여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남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는지라.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의 골육이니, 남은 다 흙물이라 하여도 출산할 때에 선녀의 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심한 것이라면 어찌 선녀가 와서 해산까지 시켰으리오? 필경 무슨 이상한 일이 있을 듯하니, 아무리 흉악해도 집에 두고 나중을 보사이다.”

하고 저녁을 먹으니, 그것이 밥상 곁에서 밥 먹는 소리를 듣고는 이불 속에서 데굴데굴 굴러 나와 승상 곁에 놓이었다. 승상이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가 갑자기 생각하되, ‘이것이 귀와 눈이 없건마는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오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라. 아무렇게나 밥을 주어 보리라.’ 하였다. 부인도 고이하여 밥을 갖다가 곁에 놓으니, 그것의 한쪽 옆이 들먹들먹하더니 한 모서리가 봉긋하며 마치 주걱 모양 같은 부리를 내밀어 밥을 완전히 먹었다. 승상이 하도 고이하여 부인을 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하였는데 밥을 먹으니, 사람일 것 같으면 태어난 지 십여 일 만에 어찌 한 그릇 밥을 다 먹으리오? 아무렇게나 밥을 더 주어 보라.”

하였다. 부인이 웃고 밥을 또 가져다 놓으니, 그것이 주는 대로 먹으며 승상과 부인이 더욱 고이하게 여겼다. 그것이 밥 먹는 대로 점점 자라 큰 동이만 하게 되었다. 승상이 부인을 청하여 함께 보고 크게 의혹하여 가로되,

“이후는 밥을 끊지 말고 아침저녁으로 먹이라.”하고,

“매양 이것저것 하지 말고 이름을 지어 원(圓)이라 하라.”하였다.

밥 먹기를 잘하여 점점 자라 큰 방 안에 가득하니, 더욱 흥하고 고이함을 측량치 못하여 말하기를, “원이 더 자라면 방을 찢을까 싶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자.”

하고, 노복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것을 여럿이 옮겨 후원 월영각에 가져다 두라.”하였다. 비복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두고 아침과 저녁을 공급하였다. 몇 년 안에 한 섬의 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 방이 터지게 되었다.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연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밤낮 근심으로 지내는데, 세월이 물 흐르듯하여 어느덧 십여 년이 되었다.

(중략)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함께 집에 돌아오니 내실(內室)이 텅 비어 있었다. 가뜰이나 염려하던 차에 의혹이 가슴에 가득하여 집안 내외인을 다 찾으니, 비복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와서 아뢰되, “월영각에 난데없는 선동(仙童)이 노복 등을 부르시나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모두 보온즉, 방 안에 가득한 것은 없고 한 소년 선동이 앉아서 ‘아버님께서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물으시니, 그 연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그 비복을 데리고 월영각에 가 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섬돌 아래로 내려와 엎드려 가로되,

“소자는 십 년을 부모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승상이 우연히 그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하고 소년을 불러 대청 위에 앉히고 묻기를, “이 일이 하도 고이하니 사실을 자세히 이르라.” 하였다. 소년이 아뢰기를, “오늘 묘시(卯時)에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이 내려와 이르기를, ‘남두성이 옥황상제께 득죄하여 십 년 동안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는데, 죄악이 다 끝났다.’ 하고, 허물을 벗겨 방 안에 두고 이르기를, ‘이 허물을 가져갈 것이로되 네 부모께 뵈어 확실한 자취를 알게 하라.’ 하고 갔사오니, 소자가 보자기를 벗고 보온즉 허물이 곁에 놓여 있고 책 세 권이 놓였사오니, 십 년 불효를 어찌 다 아뢰리이까?”

승상이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허물이 방 안에 놓여 있고 천서(天書) 세 권이 분명히 놓였거늘, 마음에 크게 놀라고 기뻐하여 소년의 손을 잡고 마음 가득 기뻐하여 말하기를,

“네가 십 년 동안을 보자기 속에 들어 있었으니 무슨 알 만 한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서 우리의 의혹을 덜게하라.”

원이 고개를 숙여 재배하고 말하기를, “소자가 보자기 속에서 십 년 동안 고행하였사오니 아무런 줄을 몰랐사오니 황송함을 이길 수 없사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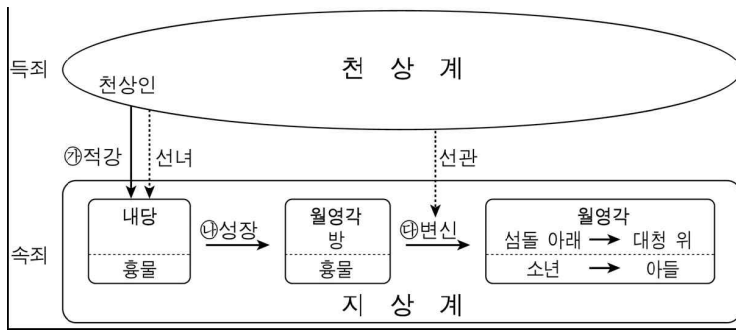
승상 부부가 그제야 원을 안고 등을 어루만지며 가로되, “네가 어이하여 십 년 고생을 이다지도 하였느냐?” 하고 못내 기뻐하였다. 내외 상하(內外上下)며 이웃과 친척 가운데 뉘 아니 기뻐하리오.

- 작자 미상, 「김원전」-

22.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주인공이 천상에서 죄를 지어 지상으로 내려와 살다가 다시 천상으로 돌아가는 화소를 적강화소(謫降話素)라 한다. 이 화소를 수용한 「김원전」에서 공간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뉘고, 천상계와 지상계는 주인공 김원의 공간 이동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통한다. 위 글에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① ㉠의 결과로 얻게 된 ‘이것’이라는 호칭은 주인공이 사람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② ㉠의 성격 때문에 ㉡의 과정에 선택이 개입한다.
- ③ ㉡에서 ‘밥’ 먹기를 통해 홍물은 이름을 얻게 되어 ‘골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
- ④ ㉡의 결과를 비복은 김 승상에게 보고하여 부자 관계 확인의 정당성을 제시한다.
- ⑤ ㉡ 이후, 부자 관계를 확인받으려는 김원의 바람은 ‘불초자’라는 호칭으로 구체화된다.

정답 : ④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이 문제에 대한 이의 제기 내용의 핵심은 답지 3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문은 적강한 존재인 홍물이 지상의 존재인 김 승상 부부의 자식임을 확인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승상 부부는 자신의 골육이 홍물인 것을 의심하고 근심하다가 홍물이 밥을 먹자 이를 계기로 모친은 웃고 부친은 이름을 지어 줍니다. 즉 모친의 웃음과 부친의 이름 짓기는 김원이 자식으로 인정받는 것에 연계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원’이라는 이름을 얻는 과정에서 ‘밥 먹기’는 중요하고도 유일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2011 9월 평가원 26번 문항

20세기 후반부터 급격히 보급된 인터넷 기술 덕택에 가히 혁명이라 할 만한 새로운 독서 방식이 등장했다. 검색형 독서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하이퍼텍스트 문서나 전자책의 등장으로 책의 개념이 바뀌고 정보의 저장과 검색이 놀라우리만치 쉬워진 환경에서 가능해졌다. 독자는 그야말로 사용자로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읽고 있는 텍스트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읽던 텍스트에 다른 텍스트를 추가할 수도 있다. 독서가 거대한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항해하는 것에 비유될 정도로 정보 처리적 읽기나 비판적 읽기가 중요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초기의 독서는 소리 내어 읽는 음독 중심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쓰인 글이 완전해지려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또한 초기의 두루마리 책은 띄어쓰기나 문장 부호 없이 이어 쓰는 연속 기법으로 표기되어 어쩔 수 없이 독자가 자기 목소리로 문자의 뜻을 더듬어 가며 읽어 봐야 글을 이해할 수 있었다. 흡사 종교 의식을 치르듯 성서나 경전을 진지하게 암송하는 낭독이나, 필자나 전문 낭독가가 낭독하는 것을 들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책을 읽는 낭독-듣기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던 12세기 무렵 독서 역사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것은 유럽 수도원의 필경사\*들 사이에서 시작된, 소리를 내지 않고 읽는 묵독의 발명이었다. 공동생활에서 소리를 최대한 낮춰 읽는 것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두루마리 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된 책자형 책은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다시 읽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묵독을 도왔다. 묵독이 시작되자 낱말의 간격이나 문장의 경계 등을 표시할 필요성이 생겨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가 발달했다. 이와 함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 개인적 체험을 기록한 책도 점차 등장했다. 이러한 묵독은 꼼꼼히 읽는 분석적 읽기를 가능하게 했다.

음독과 묵독이 공존하던 18세기 중반에 새로운 독서 방식으로 다독이 등장했다.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책 생산이 이전의 3~4배로 증가하면서 다양한 장르의 책들이 출판되었다.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 되었고, 독서 조합과 대출 도서관 등 독서 기관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전 시대에는 제한된 목록의 고전을 여러 번 정독하는 집중형 독서가 주로 행해졌던 반면, 이제는 분산형 독서가 행해졌다. 이것은 필독서인 고전의 권위에 대항하여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를 뜻한다.

이와 같이 오늘날 행해지는 다양한 독서 방식들은 장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씩 등장했던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당대의 지식사를 이끌었던 흔적들이 남아 있다.

\* 필경사 :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26. 위 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분산형 독서가 나타나기 전, 고전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으로서의 권위를 지녔다.
- ② 책자형 책의 여백에 있는 주석을 참조하거나 앞부분을 재독하는 등 읽기가 끊기는 현상은 낭독의 확산을 도왔다.
- ③ 묵독의 시대에는,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낭독할 수 없었던 반체제, 에로티시즘, 신앙심 등과 관련된 책이 등장했다.
- ④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의 사용은 어형(語形)은 물론 절이나 문장의 배치를 빠르게 인식하게 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 ⑤ 인쇄술의 보급으로 출판문화가 발달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등장한 독자들의 요구로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었다.

정답 : ②

####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이의 제기의 핵심은 답지 5도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답지 5의 내용은 네 번째 문단에서 추론이 가능합니다. 즉 ‘금속 활자와 인쇄술의 보급으로, ~ 이전에 책을 접하지 못했던 여성들이 대거 독자로 유입되었고, ~ 자신이 읽고 싶은 것을 골라 읽는 자유로운 선택적 읽기’가 가능해졌다는 부분에서, ‘인쇄술의 보급은 출판문화의 발달을 낳았을 것이고, 새로운 소비층인 독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장르의 책이 출판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자들의 요구가 확실히 있었는지의 여부가 지문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제도나 문화 현상은 필요에 의해 생겨난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요구가 있었음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독서 기관의 증가를 통해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가 있었고 다양한 책의 출판이 이루어졌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채권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 증권으로, 국채나 회사채 등 발행 주체에 따라 그 종류가 다양하다. 채권의 액면 금액, 액면 이자율, 만기일 등의 지급 조건은 채권 발행 시 정해지며, 채권 소유자는 매입 후에 정기적으로 이자액을 받고, 만기일에는 마지막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지급 받는다. 이때 이자액은 액면 이자율을 액면 금액에 곱한 것으로 대개 연 단위로 지급된다. 채권은 만기일 전에 거래되기도 하는데, 이때 채권 가격은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 투자자는 정기적으로 받게 될 이자액과 액면 금액을 각각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값들의 합계인 채권의 현재 가치에서 채권의 매입 가격을 뺀 순수익의 크기를 따진다. 채권 보유로 미래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할 때는 금리를 반영한다. 가령 금리가 연 10 %이고, 내년에 지급 받게 될 금액이 110원이라면, 110원의 현재 가치는 100원이다. 즉 금리는 현재 가치에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의 현재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의 가격도 하락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이처럼 수시로 변동 되는 시중 금리는 현재 가치의 평가 구조상 채권 가격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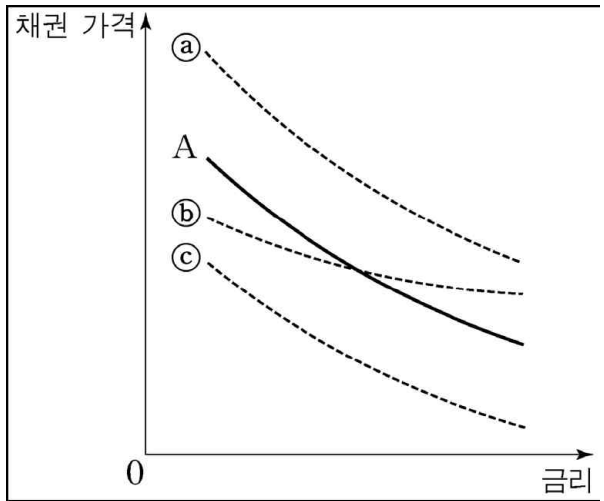
채권의 매입 시점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인 만기도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다른 지급 조건이 동일하다면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더 민감하므로 가격 변동의 위험이 크다. 채권은 발행된 이후에는 만기가 점점 짧아지므로 ㉠만기일이 다가올수록 채권 가격은 금리 변화에 덜 민감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높은 순수익을 기대하므로 액면 이자율이 더 높은 채권을 선호한다.

또 액면 금액과 이자액을 약정된 일자에 지급할 수 없는 지급 불능 위험도 채권 가격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채권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될 경우, 그 기업은 지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고, 이에 따라 채권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된다.

한편 채권은 서로 대체가 가능한 금융 자산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가령 주식 시장이 호황이어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

46. <보기>의 A는 어떤 채권의 가격과 금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위 글의 ㉠과 ㉡에 따른 A의 변화 결과를 바르게 예측한 것은?

<보기>



- |   |   |   |
|---|---|---|
|   | ㉠ | ㉡ |
| ① | a | c |
| ② | b | a |
| ③ | b | c |
| ④ | c | a |
| ⑤ | c | b |

정답 : ③

-평가원의 공식 답변 내용

대학 수학능력시험 언어 영역은 학교 교육의 성취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보편적인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항의 출제 의도는 지문에서 설명한 내용을 주어진 그래프에 적용하여 판단하게 함으로써 읽기 과정에서의 추론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에 접근할 때는 지문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이 문항에 대한 주된 이의 제기는 <보기>의 금리가 해당 채권의 ‘만기 수익률’을 의미한다고 보면 ㉡에 따른 그래프의 변화는 A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항의 지문에서는 ‘금리’를 ‘시중 금리’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격과 금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둘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처럼 수시로 변동되는 시중 금리~”이라고 언급하면서 ‘금리’를 ‘시중 금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에서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현재 가치’, ‘만기’, ‘지급 불능 위험’, ‘다른 자산 시장의 상황’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 요인이 채권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지문의 둘째 단락~다섯째 단락에 각각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문의 이러한 흐름을 따르면, L의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채권에 대한 수요가 줄어 채권 가격 하락”할 수도 있다는 표현은 주어진 금리 하에서 주식 시장의 호황에 따른 채권 수요의 감소가 채권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도의 요인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문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L에 따른 A의 변화 결과에 해당하는 것은 c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문항의 정답에는 이상이 없습니다.